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3 호

7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3호 (35)

1949년7월15일

내 용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강령……………………………………………………(三)
선언서(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六)
평화를 위하여 새전쟁방화자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신 엽…(一三)
원가저하와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대하여……………정 준 택…(二三)
당간부들은 정치시사를 더 깊이 연구하자………박 영 의…(三三)
—참 고 자 료—
경제령역에서의 과학 연구사업의
결점과 파업에 대하여……………………………오 쓰뜨로위짜노브…(四二)
체코슬로바키야공산당 제九차대회에서 진술한 크•고트왈드의 보고……(七三)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연구자료—
외국무력간섭과 쏘베트국가가
이를 격파 승리한 원인…………………………박 정 호…(九〇)
—국 제 보 도—
불가리아공산당내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와의 투쟁……………………(一〇八)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
로씨야에 있어서의「토지공동체」……………………………………(一一三)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

독일파시즘과 일본제국주의의 격멸로 제二차세계대전은 종국되었으며 그결과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되었다。

조선인민에게는 자기의 민족자결권을 실천하며 통일적 조선민주주의독립국가를 수립할수있는 가능이 조성되었다。

조선에관한 모쓰크바三상협정에는 조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급속히 수립할것과 또는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조선인민에게 줄 동맹국들의 원조가 예견되었다。 그러나 북미합중국정부의 배신적、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쓰크바협정은 실천되지 못하였다。

이 결과 조선이 일제통치에서 해방된지 벌써 四년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국토는 의연히 남북으로 분열되어있다。 북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우리조국의 발전을 보장하며 조선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숙청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향상을 보장하는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아무러한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민주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 테로제도가 횡행하고 있다。

一九四八년초에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하고 우리조선인민에게 동맹국의 원조와 참가가 없이 자기의 국내문제를 해결할수있는 가능성을 주자는 쏘련의 제의는 조선인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것은 이 제의가 우리조국에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문제를 가장 용이하고 정당하게 해결할수 있는것이었기 때문이다。

의 북미합중국정부는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북미합중국정권당국은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또는 원동에서의 북미합중국의 군사전략상 기지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들이 우리조국을 분렬하여 그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정책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광범한 전 인민적 운동을 야기시키였다。 이 운동의 결과 一九四八년八월에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총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 련립거부를 수립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조선인민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반동분자들은 조선분할정책을 실시하면서 남조선에 조선반동분자들과 조선민족반역자들로 괴뢰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괴뢰「정부」는 자기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민주운동을 반대하여 탄압 테로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인민과 고립된 남조선 괴뢰「정부」는 미군의 지지가없이 홀로 인민과 남아있기를 두려워한다。

조선으로부터의 쏘련군대의 철거와 조선인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쏘련의 확고한 지지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강력한 힘으로된다。

조선에서 북미합중국정권당국이 실시하고있는 제국주의적 정책과 미제국주의자들의 지지하에서 조선반동분자들이 남조선에 창설한 테로제도는 조선인민을 예속시키며 그의 창발력과 창조적 기능을 말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것이다。

우리조국이 앞으로 계속 분렬되어 있는다면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며 국가의 민주발전을 보장하며 봉건적 잔재를 숙청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一、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즉시 철거케하며 소위「유·엔위원단」을 물러가게하고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二、통일을 방해하는 조국의 반역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달성하기위한 투쟁에 인민들의 총력량을 동원한다。

三、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 이미 실시된 민주개혁들을 일층 확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四、一九四八년八월二十五일 총선거의 결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위한 공화국정부의 활동을 협조한다。

五、전조선적으로 광범한 민주개혁을 실시하며 전체조선인민에게 공민의 동등권과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등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六、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반동분자들에게 의하여 탄압당한 인민들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그 합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七、일본국가 일본인개인 법인 및 조선인민의 반역자들에게 소유되였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는 원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八、일본국가 일본인개인 법인 또는 조선인반역자들에게 소유되었던 산업 및 기타 기업소들의 국유화를 남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九、남조선에서 민주운동에대한 탄압과 테로를 반대하여 남조선 감옥들에 투옥된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한다。

一〇、쏘련과 민주주의 중국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과 및 기타 자유애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一一、일본을 제국주의적 일본으로 부활시키려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一二、침략적 동맹을 조직하며 새 전쟁도발 목적을 가진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을 반대하며 평화와 국제적 협동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한다。

一三、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조선인민들 속에서 문맹을 퇴치하며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일본제국주의의 사상잔재와 기타 온갖 반민주주의적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선 언 서

조선전체민주주의정당사회단체들에게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친애하는 동포들!

친애하는 남북조선의 민주주의제정당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조국이 일본제국주의기반에서 해방된지 벌써 근四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은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으로 분렬된채 남아있다。 이 四년동안에 우리조국의 남북은 각각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리조국의 북반부에서는 민주건설이 성과있게 진행되었으며 또 진행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이 실천되어가고있다。

우리조국의 남반부에서는 반동도배들이 자기의 통치권을 수립하며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온갖 대책을 취하고있다。 경제적 방면에서나 정치적 방면에서 남조선은 점점 더 미국에 예속되어가고 있다。

누가 우리인민에게 통일을 방해하는가?

누구의 리익을 위하여 이 분렬이 계속되는가?

우리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인민을 기만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팔아먹으며 자기의 미국상전들의 리익과 자기의 정권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조국과 인민을 망쳐먹기에 준비되어있는 그들의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다。

우리민족은 마치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국가를 통치할수 없으며 자기국가를 발전시킬수 없다고 우리를 모욕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근 四년동안이나 나려오면서 남조선을 원동에서 반민주투쟁을 위한 자기의 군사 정치적 기지로 미국의 경제적 원천지로 월가의 독점자본가들을 배부르게하는 새 원천지로 전변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 계속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외교와 미정권당국의 전체 노력은 四년동안을 나려오면서 이 제국주의적 략탈적 기도를 실천시킴에 목적을 두었던것이다。 벌써 一九四五년말에 열리었던 모쓰크바 三국외상회의에서 미국대표단은 미국 중국 영국 및 쏘련四개국대표들로 구성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행정기관은 고등판무관을 통하여 조선을 관리할 자기의 기능을 실행케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미국제의에는 조선정부수립에 대한것이 예견되지 아니하였다。

우리조국에 대한 사실상 이러한 위임통치는 미국초안에 의하면 十년까지 실천되어야 할것이었다。 이러한 제의를 접수하는것은 조선을 장구한 기간을 걸쳐 자기의 독립적 인민정권이 없이 외국통치하에 있게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미국제의는 거부되었다。 쏘련의 제의에 의하여 모쓰크바三상회의는 조선에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며 조선을 독립국가로 부흥시키며 민주주의 기초에서 조선을 발전시키기위한 조건을 창설하며 조선에서 장구한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급히 숙청할것을 예견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조선인민의 광범한 각계각층의 리익에 부합되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우리국가에서 정권을 자기수중에 장악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참여하지못하게하며 국가를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애쓰는 민족반역자들의 리익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동분자들의 리해관계는 완전히 결합되었다。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반동분자들과 동맹하여 모쓰크바三상회의결정을 실천할 목적을 가진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백방의 대책을 취하였던것이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적 독립과 제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쏘련은 조선에서 쏘미량국군대를 동시에 철거하고 미국과 쏘련의 원조와 참가없이 우리조선인민에게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자기손으로 수립할 가능을 주자는 제의를 함으로써 우리조국의 통일을 위한 길을 또다시 열어놓았다。

우리조선인민은 우리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는 쏘련의 이 정당한 제의를 한결같이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것은 이 제의가 미제국주의자들과 조선반동분자들의 리익에 반대되는 까닭이었다。 미국정부는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비법적으로 넘길것을 강요하였다。 유·엔총회는 조선인민의 의사도 듣지않고 쏘련대표들과 제민주주의 국가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압에 의하여 소위 「림시유·엔조선위원단」을 창설하였다。

미침략정책의 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은 그의 래조와 비법적 활동에 격분된 우리조선인민들의 리익을 반대하여 활동함으로써 조선에서 완전히 실패하였다。

미국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대표들이 참가하지않은 소위 비법적 유·엔「소총회」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할데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조선인민의 절대다수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보이코트운동에 총궐기하였다。오직 폭력과 공개적 무력수단에 의하여서만 이 미군정당국과 반동분자들은 一九四八년五월十일에 남조선에서 소위「선거」를 위조하고 이 위조「선거」의 결과 소위「국회」와 조선인민의 악독한 원쑤이며 자형리인 리승만을 괴수로한 단독괴뢰「정부」를 수립하였다。

소위「국회」는 립법기관과는 비슷치도않은 가련한 존재이다。이「국회」는 조선인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국회」에는 한명의 로동자나 한명의 농민도 선거되지 않은 까닭이다。다시말하면 남조선인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한명도 없는 까닭이다。남조선 소위「국회」는 대지주 자본가 일본총독부관리등 친일파 민족반역자 및 인민의 원쑤들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다。

미정권당국의 비호하에있는 리승만도배들은 자기들의 반역적 죄악을 합법적으로 성문화하기 위하여서만「국회」를 창설한것이다。

리승만도배들은「국회의원」중에서 미군철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여 나서는자들을 투옥하며 일부「국회의원」들이 리승만도배들의 반역적 정책을 반대하는 조그마한 시도라도 란포하게 진압하고있다。

미국정부는 조선에 대한 자기의 침략정책을 형식적으로 시인받기 위하여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또다시 상정시키었다。

유·엔총회는 미국대표단의 강압에 의하여 우리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조선에로 소위「신유·엔조선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선인민의 진정한 대표가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서서 남조선 단독선거와 우리조국에 조성된 실지정세에 대한 진실을 전세계에 정토하며 조선에서 미국의 침략정책을 폭로할까 두려워하였다。

미국사람들과 민족반역자들은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무엇으로 변하게하였는가?

미정권당국과 조선반동분자들의 통치 四년동안에 남조선은 민주주의운동을 반대하는 테로 추종 탄압통치의 횡포한 무대로 되었다。

남조선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적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지하로 구축되였으며 그들의 출판기관은 파괴 분쇄되었다。인민의 숙망을 진정으로 표현하는자들은 남조선에서 무재판 무심사의 총살을 당하며 체포되며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있다。

일본이 투항한후 三주일이 지나서야 조선에 진주한 미국사람들은 우리강토에서 한명의 일본군인도 축이지않고 그대로 남기어 놓았다。그러나 미국사람들의 지시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민주개혁과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인민적 위업을 위하여 투쟁한 수만명의 애국자들은 총살되며 투옥되며 고문을 당하고있다。

미정권당국과 민족반역자들의 통치의 결과 남조선의 경제는 계속 파탄되며 공업생산은 지금까지 계속 저하되고 있다。

미독점자본가들은 소위「경제원조」라는 미명하에서 남조선을 자기들의 잉여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리용하고 있다。이러한「원조」의 결과 남조선의 거리에는 수백만의 무직업자와 걸인의 떼들이 방황하고있다。농촌경리는 퇴보되어가고있다。

우리조국의 고창 남반부인민들은 할수없이 기근과 반기아에서 신음하고있다。

리승만괴뢰「정부」에 모인 반역도배들은 자기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각종「협정」과「협약」을 체결하였다。이「협정」과「협약」에 의하여 남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미자본가들에게 예속되고있다。

반역도배들이 실시하고 있는 남반부를 예속시키는 정책은 전체조선인민의 격분을 환기시키지 않을수 없다。

우리조선인민은 쏘미량국정부에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요청서에 제기한 우리조선인민의 요망을 쾌히 응낙한 쏘련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쏘련군대가 북조선으로부터 철퇴한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데 대하여 더욱 격분되어있다。

이제는 미국정부에게는 남조선에 자기군대를 지속주둔시킬 아무런 구실과 조건도 없다。

전체조선인민은 우리조국의 통일을 장해하는 미군의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면서 민주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조선인민의 정당한 이 사업에 있어서 쏘련은 우리조선인민에게 무한한 원조를 주고있다。

조선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계단을 통하여 쏘련이 실시한 시종일관한 정책은 우리조선인민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一九四五년 도쓰크바 三상회의에서 쏘련대표단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고수하여 미국대표단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조선문제에 대한 쏘미공위사업시기에 쏘련대표단은 조선문제에 관한 모쓰크바三상회의 협정원칙을 시종일관하게 꾸준히 주장하였다。 모쓰크바三상회의 협정실천이 불가능하게되자 쏘련정부는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할것을 주장하고 자기군대를 솔선 철거함으로써 실지에 있어서 우리민족의 자주권과 권리를 존중히 하는 진정한 자기의 정책을 보이어 주었다。

쏘련정부는 우리조국의 통일과 민주와 독립에 대한 조선인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주장하였으며 또 계속 주장하고있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조국의 분렬을 영원히 계속시키려고 시도하고있다。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될때가 왔다。 그것은 四년동안이나 계속한 조국의 분렬이 우리조선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을 점점 더 가져오고있는 때문이다。

통일적 민주조선은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조선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기의 경제를 발전시키게 될것이다。 지금 파괴적 상태에 있는 남조선의 경제는 북조선의 경제토대에 기초하여 급속히 부흥되게 될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남북조선이 호상련결된 통일체라는것을 누가 모르는가?

북조선인민들의 성과는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독립국가가 어떻게 급속히 발전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모범으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하에서 우리조국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반동분자들은 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않는다。

리승만 도배들은 군대를 준비하며 자기의 미국상전들에게서 군기를 요구하고있다。

리승만도배들은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사들을 피의 바다에 잠그려고 하고있다。

우리조국남반부에서 테로와 추종은 날이 갈수록 더 혹심하여 가고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죽고있다。

우리조국의 민족반역자들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주운동을 진압할 목적으로 동족상쟁을 도발시키는 경험을 풍부히 가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하여 중국과 희랍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치렬하여 가고있다。 지금 그들은 조선인민을 피의 바다에 잠그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반동분자들을 전쟁에 광분하도록 충동하고있다。

그러기때문에 소위 남조선 「국방군」이 매일같이 三八선에서 충돌사건을 도발하는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제주도인민들과 전라남도 유격대들에게 대한 탄압과 三八선 충돌사건을 충동하고 조직한 자들이 미국사람들이며 그들의 주구 리승만 망국도배들이다。

우리인민은 동족상쟁을 원치않는다。 우리인민은 미독점자본가들과 그들의 앞에서 당황망조한 민족반동분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는다。

조선인민은 자기손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키려하며 또 통일시킬수있다。

우리조선인민을 분렬할수 있겠는가? 물론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하나이었으며 하나이며 또 하나로 될것이다。

우리조국과 우리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이 시기에 남북조선의 진정한 전체애국자들과 제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은 그들의 재산여하와 사회적 지위와 성분여하를 불관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총 결집하여야 하겠다。

친애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것을 남북조선의 전체민주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전체조선인민에게 호소하며 하기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제의한다。

一、조국의 평화적 통일사업을 조선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쥐고 우리인민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

二、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군이 우리조선에서 즉시 철퇴할것을 요구한다。

三、우리는 비법적 기관인 소위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것을 요구한다。

四、우리는 남북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립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것을 제의한다。

五、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자。

六、조국의 평화적 통일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자。

七、립법기관선거는 一九四九년九월에 실시하며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실시하자。 일본통치시대에 일제와 열성적으로 협력한자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八、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대책들을 반드시 실시하자。

가、민주주의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그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할것。

나、전체민주주의제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며 그들에게 자유적 활동권을 보장할것。

다、민주주의제정당 사회단체 출판기관들의 폐간에 대한 지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제정당 사회단체들에게 자기의 출판기관을 가질 권리를 보장할것。

라、언론 출판 집회 군중대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것。

마、전체정치범들을 즉시 석방할것。

九、선거지도위원회는 다음과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정부와 그의 기관들에 선 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들을 줄것。

나、자기의 결정과 지시실행을 검열할것。

다、선거지도위원회가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외국군대의 철거를 감시할것。

十、총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함께 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경찰보안기관들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로 넘어온다。선거지도위원회는 경찰대로부터 친일과 일본경찰과 헌병대에 복무하던자들을 제대시키며 제주도 인민항쟁과 남조선유격운동 탄압에 참가한 경찰대들을 해산시킨다。

十一、총선거의 결과에 수립된 최고립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며 그 헌법에 기초하여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는 남북조선에 지금 현존하여있는 정부들로부터 정권을 접수하며 그 정부들은 해산된다。

十二、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군대들은 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조선공화국정부가 련합시킨다。제주도와 기타 지대들에서 인민항쟁과 빨찌산운동 탄압에 참가하였던 남조선「국방군」부대들을 해산시킨다。인민항쟁과 빨찌산운동진압에 참여하였던 자들에게는 군대에 복무하는것을 금지하며 이 탄압을 추동한 자들과 조직한 자들은 처벌을 당한다。

민주주의제정당 사회단체와 전체인민들에게 제기하는 우리의 평화적 조국통일계획은 이러하다。우리는 전체조선인민들이 우리의 제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못할것이다。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해를 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것이다。

통일적민주주의독립조선만세!

영원히 통일된 조선인민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평화를 위하여 새 전쟁방화자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

신 열

제二차 세계대전이 종결된후 미영 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에 대한 자기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권을 설정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세계전쟁을 선전하고 준비하는 길로 나섰다。해결되지 않는 절대적 모순에서 혼란되고、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극도로、첨예화된 영 미 지배자들은 국제적 무대에서 공개적인 침략적 정치로선으로 넘어갔다。침략적 영 미 군사 련합이 획책한 평화와 안전을 반대하는 음모、미국의 지도하에 제국주의 군사뿔력의 조성、제국주의 진영이 열광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군비、이것들이 쏘베트동맹을 선두로한 견고한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민주진영에 대립되고 있다。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평화의 옹호자인 쏘베트동맹 주위에 결합되고 있는것은 마땅한 일이다。쏘베트인민과 모든 나라의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쏘딸린적 외교정책은 전 세계의 일반 사람들을 견고한 평화와 제민족간의 친선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한다。

수백만 인민대중의 평화를 옹호하는 위력한 운동은 모든 나라에서 장성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다。전쟁방화자들의 진영에 대립되고 있는 평화옹호자의 진영은 로동계급、농민、인테리、식민지의 피압박대중등 가장 광범한 계층을 자기 대렬에 망라하고 있다。최근에 열렸던 전 세계 평화옹호대회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이 대회에서 七十二개국에서 모여든 제 민족의 대표자들―민족、신앙、신념이 다른 남녀들이 세계에 닥쳐오는 새로운 위협 즉 새 전쟁의 위협을 인민들은 자각하고 있다는것을 성명하였다。전 세계 평화옹호대회는 六억의 남녀를 결속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이름으로써 평화옹호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사업

이라는것을 선포하였으며 전체인민들을 평화를 위한 결정적 투쟁에로 호소하였으며 평화를 위한 이 투쟁을 승리할 자신과 의지를 대회에서 피력하였다。

× × ×

레닌은 지적하기를 전쟁이라는것은 자본주의의 피치못할 동반자이며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활의 한 형태이라 하였다。「자본주의 하에서는 개별적 경제 및 개별적 국가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장성이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파괴된 균형을 가끔 회복하는 수단은 산업에 있어서 공황, 정치에 있어서 전쟁과 같은것밖에 다른 수단은 없는것이다」(레닌전집二十一권 三一〇페지 제四판)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가 그 국가에서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일인것처럼 전쟁도 그와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우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쓰딸린대원수는 지적하였다。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생활의 결정적 역활을 하고 있는 독점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식민지의 강점, 새로운 자본수출지, 새로운 원료 원천지를 요구한다。 즉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제도의 여명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유일하고 모든것을 포함하는 경제 제도가 아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력량이 더욱 더욱 장성 강화되며, 평화의 력량이 더욱 더욱 단결 장성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전쟁이라는것은 결코 제국주의적 전쟁방화자들이 생각하는 바와같이 숙명적이거나 면치 못할것이 아닌것이다。 전쟁은 전 세계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통일적 운동에 의해서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것이다。

현대적 조건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전쟁 방화계획의 도상에는 극복할수 없는 성색으로 위대한 쏘베트동맹을 선두로한 위력하고도 나날이 장성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이 서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나서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제국가도 쏘베트동맹과 같은 진영에 서있는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도 로동계급의 정치적 자각성이 많이 장성되었다。 그들은 그 국가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지도적 력량인 것이다。 평화를 위한 투쟁 전선은 식민지 제 국가에서도 장성 확대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인민들은 지나간 전쟁과 전후 기간의 여러 사건에서 위대한 교훈을 받았다。 지구상 二十四억의 인구중 十二억을 차지한 아세아 피압박 제 민족은 인민해방력량이 거대한 역활을 노는 해방운동에로 궐기하였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미영 지배도당과 그들의 보조자들의 정책의 제국주의적 특성을 알았으며 또한 알고있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준비하는 전쟁이 다른 나라, 다른 인민을 강탈 억압하고 전 세계에 대한 미제국주의 통치를 설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의적, 강탈적, 강도적 전쟁이라는것을 분명히 알고있다。 인민들은 평화옹호가 자기들의 긴절한 과업이며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자기들의 력량을 단결함으로써 전쟁방화자의 계획을 분쇄하고 견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본주의의 렬강의 지배층은 자기들의 력량과 가능정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진영에는 경제적, 정치적 모순이 심각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는 가장 첨예한 계급적 갈등으로 파렬되고 있다。 로동계급은 공산당의 령도하에서 자기들의 압제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국가들간에 체결된 군사적 정치적 조약이 로동계급과 자기들의 국가안에 장성되어가는 민주력량을 반대해서 군사적 방책과 같은 억압을 적용하는 것이라는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새 전쟁준비와 해결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주요한 방조자들인 우익사회주의당에 관해서 말하면 그들은 도처에서 더욱 더욱 첨예화하는 위기를 당하고 있으며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더욱 더욱 상실하고 있다。

각종의 쁠럭과 동맹들,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간에서 체결된 북대서양조약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을 자랑하는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弱点)을 폭로하는것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평화옹호자들이 새로운 세계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서 단결되고있다。 인민들은 제二차 세계대전의 예기할수 없었으며 또한 잊을수 없을만한 수난과 공포를 똑똑히 알고 있다。 인민들은 전쟁을 원치않는다。 지금은 제국주의자들이 싸우더에서 리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인민들을 육탄(肉彈)으로 몰아세울수 있던 그러한 때는 아니다。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력량은 제국주의와 전쟁방화자들의 력량을 릉가하는것이다。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는 제국주의 자들의 희망과 그러한 전쟁을 조직할수있는 가능성과의 사이에는 쓰딸린동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거대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어떠한 거대한 강국이라도 가령 그 나라의 정부가 이것을 애쓰고 있다 할찌라도 현재 거대한 군대를 다른 동맹 강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서 내세울수는 없는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에 있어서 아무도 자기 인민없이는 전쟁을 할수없으며 인민은 싸우기를 원치않기 때문인것이다。 인민들은 전쟁에 실증이 났다。 더우

거 새로운 전쟁을 정당화할수 있을만한 아무러한 분명한 목적도 없는것이다」(쓰딸린) 평화를 위하여 서있는 력량이 너무나 뚜렷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력량은 능히 침략자들의 계획을 분쇄할수 있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조건하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평화옹호자들에게 대해서는 자기 력량에 대한 과소평가와 제국주의 진영의 력량에 대한 과대평가가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제국주의자들의 팽창과 침략계획에 대한 위력하고 전면적인 저항、전체 평화옹호자들의 노력의 결합은 전쟁방화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다。

민주력량의 단결과 새로운 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은 인민들을 위력한 군대로 통일하였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거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위협과 모험위에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국주의는 그와 대비할만한 것을 가질수 없는것이다。

대중의 선두에서 공산당들은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을 방위하여 서 있으며 그의 영향이 장성되고 있다。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표현하면서 평화를 위하여 서 있는 각국 공산당들은 장성되어가는 전쟁의 위협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것과 평화를 옹호하는데로 운동을 조직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자기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 미 침략자들의 뿔력이 진행하고있는 미친듯한 전쟁준비에 대한 대답으로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공산당들、그 나라들의 인민들은 결코 쏘베트동맹을 반대해서 싸우지 않을것과 그들 공산당들은 평화를 옹호하는 력량을 강화하며 평화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것은 무엇이나 다 할것을 전세계에 소리높이 외쳤다。

공산당들은·전쟁방화자들을 파멸로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이 있는 전 세계의 평화력량을 과소평가하는것과 투쟁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의 숙명적인 불가피성에 관해서 소리를 높임으로써 평화를 위한 투사들의 대렬을 와해시키고 그들속에 불안과 락심을 씨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은 폭로한다。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들은 로동계급의 반역자、영 미제국주의의 충복 즉 민주력량의 통일성을 파괴시키려고 모험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을 폭로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만일 우익사회주의자들―영국 레이버당원―제국주의자들、미국의 제국주의적 직맹지도자들의 반역적 정책이 아니면 그러한 미친듯한 전쟁준비를 확장할 가능성이 없는것이다。

이 자본의 충복들은 자기들의 상전의 뜻을 순

응하면서 영 미제국주의의 정책의 강탈적인 본질을 민주주의의 가면과 사회주의적 언사밑에 은폐하려고 날뛰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대렬을 분렬시키며 그의 자각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우익사회주의자들을 제국주의의 종복으로、프로레타리아트의 변절자로 락인하는것은 평화를 위한 성과적인 투쟁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 × ×

평화옹호에 절실한 리해를 가진 인민대중은 전쟁방화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튼튼히 단결되고 있다。즉 민족、신앙 및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투쟁에 통일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회의와 집회、대회와 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화옹호자들의 위력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도처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통합하는 평화옹호위원회가 발생하고 있다。다수의 국가에서는 평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성명、군비축소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제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유·엔에 보내는데 대한 서명등 수백만의 서명수집이 진행되고 있다。또한 평화를 위하고 영 쏘친선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투쟁할것을 레닌그라―드 로동자들에게 선포한 영국로동자 란까쉬르 와채쉬르의 서한은 각국 로동자와 쏘베트동맹로동자의 단결력 장성을 증명하는것이다。쏘베트동맹、미국 및 영국 인민들의 친선은 견고한 평화의 훌륭한 담보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고 북대서양조약을 반대하는 과업이 더욱 광범한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국제민주녀성동맹에 통일되고있는 근로 녀성들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그 동맹은 제一차 국제녀성대회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쟁할것을 맹세하였다。수다한 정치적、사회적、직맹、문화、녀성、청년、종교 및 기타 단체들은 전세계 평화옹호대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이에 참가하였다。

각국에서는 전세계평화옹호대회에 앞서서 새로운 전쟁방화자들의 죄악을 세상에 공포하는 대회들이 진행되었다。미국에서 개최된 평화를 옹호하는 미국의 과학 및 문학 활동가 대회는 미국인민대중도 역시 미국지배도당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세계전쟁준비를 비난한다는것을 표시하였다。평화옹호위원회가 벌써 三十개국에서 창설되었다。

제국주의적 반동은 전세계평화옹호대회의 범위와 정치적 의의를 말하지않고 대회참가자수를 국한하려고 시도하였다。그러나 반동들의 날카로운 온갖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개최된 전세계평화옹호대회와 불란서정부가 입국사증을 줄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파리로 갈수없었던 대표

외국대표단들의 쁘라—그에서의 회합은 평화옹호운동이 얼마나 광범한 범위를 차지하였는가를 표시하였다。정치적 신념, 민족, 피부의 색이 상이한 사람들, 직업과 종교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옹호하는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파리와 쁘라—그로 모여들었다。현재 六천七백만의 로동자와 사무원을 결합하고 있는 세계직업총동맹 八천만의 맹원을 가진 국제 민주녀성동맹, 五천만의 청년로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을 계산하는 세계민주청년동맹, 五十四개국에 조직을 가지고있는 국제학생동맹, 一천만의 맹원을 가진 국제 정치범 동맹, 국제기자단체등의 가장 거대한 단체들과 기타 다수의 국제적 민주주의적 동맹과 단체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전세계의 로동자, 농민, 녀성, 청년, 과학과 문학의 지도적 활동가들이 대회에 나왔다。평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민주진영의 력량은 헤아릴수없을만치 큰 것이다。

전세계평화옹호대회는 전세계평화옹호전선의 거대한 장성 강화의 표시자이며 평화옹호자들의 단결력과 제국주의 전쟁의 력량에 대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력량의 승리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신념의 표시자이었다。

전 세계평화옹호대회는 자기의 선언서에서 평화를 위한 투쟁의 실제적 투쟁 강령을 제출하였다。대회는 전쟁선동, 인종적 멸시, 제민족간의 적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였으며 새 전쟁선동을 하고있는 출판기관, 문학 및 영화 생산을 결정적으로 비난하고 뽀이코트 할것을 환영하였다。

유·엔헌장을 거부하고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군사협정을 전세계인민의 이름으로 대회는 반대하고 인민들을 궁핍에 이르게하며 그들에게 중하(重荷)를 메워주는 한없는 군사지출의 증대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호소하였다。대회는 원자탄 및 기타 모든 대중적 인명 살륙수단 금지와 렬강의 군비축소와 원자에네르기—를 다만 평화적 과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목적하에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를 설립할것을 력설하였다。세계인민이 참석한 이 대회는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고 반동과 침략을 반대하는 투사로서 민족적 독립과 모든 민족의 평화적 협조를 위한, 제민족의 자결권을 위한 투사로서 자기를 공포하였다。경각성을 높일 결정하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전세계평화옹호대회 위원회를 창설하였다。그 위원회는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힘쓰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음모의 매 걸음마다 능히 평화를 보장할수있는 인민대중의 위력한 력량앞에 관명되게 하기 위해서 전체 평화옹호자들을 통합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하고있다。

「우리는 단결될수 있었다。우리는 서로 서로 리

해할수있었다。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한 이 투쟁 즉 생명을 위한 이 투쟁을 승리할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이렇게 대회 선언서에는 말하고 있다。

평화옹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며 전쟁방화자를 반대하는 위력한 운동은 더욱 광범히 발전되고 있다。

평화의 적들의 기도에 관해서 기억하면서 파시스트예속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출한 쏘베트인민은 새로운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경각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화사업을 결정적으로 방위하고 있다。쏘베트동맹의 인민들은 쏘베트정부의 외교정책 즉 전세계근로자들의 절실한 리익과 기대를 표현하는 평화와 제민족친선의 쓰딸린적 정책을 열렬히 지지한다。

쏘베트인민은 레닌—쓰딸린당의 령도하에 꾸준한 정력과 열성을 가지고 인민경제, 물질적 복리와 문화의 새로운 위력한 제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으며 전후 五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쟁을 더욱 광범히 넓히고 있으며 평화와 제 민족안전의 성책인 쏘베트동맹의 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 평화옹호자들의 통일과 조직성— 이것이 전쟁방화자를 반대하는 성과있는 투쟁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것이다。평화의 력량은 장성강화되고 있다。평화와 민주주의 력량은 승리할것이다。

원가저하와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대하여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 준 택

우리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의 경제건설은 유일한 국가계획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다。一九四七년부터 시작된 인민경제계획은 경제건설의 구체적 실천형태이며 기본적 동력인 것이다。

북반부에서 인민경제가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고 있는 기초에는 새 생산관계가 놓여있다。

해방후 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적 제 개혁이 승리적으로 실시된 결과 정치경제구조에 질적인 전변을 가져왔다。특히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는 북반부의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토지개혁은 농업기구에 잔존하여 사회발전을 조애하던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를 숙청하고 토지를 직접 발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분여하여 줌으로써 농민을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시키었다。이 개혁의 결과는 농촌경리의 자유발전을 보장하였으며 농업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 운수 체신 및 은행등의 국유화로 주요산업부문은 인민의 소유로 되었으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산업은 전인민경제부문에 있어서 지도적 역활을 놀게되었다。

산업국유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 생산관계는 생산과 분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도록 하였으며 제한없는 리윤획득을 위한 자유경쟁을 배제하여 버렸다。생산의 무정부성 대신에 생산의 조직적 계획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파잉생산에 기인하는 생산의 불균형적 발전과 공황 대신에 생산의 균형적 발전이 보장되는 제 조건이 이루어졌으며 기아와 실업의 위협은 없어지고 인민경제의 견실한 발전과 륭성의 전망이 열리었다。

이러한 제 조건은 북반부에서의 경제건설을 유일한 국가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지도하며 추진발전시킬수 있게 하였다。

북반부에 있어서 인민경제계획이 년년이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부강한 민족경제 건설의 길을 힘차게 저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계급에 점유되어있고 잉여생산물이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력이 발전되면 될수록 로동자들의 처지가 악화하여지며 실업과 공황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되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우리인민적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그 결정적인 요인이 있으며 인민정권의 옳은 정책에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업은 우리민족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킴으로써 력량을 축적하고 인민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동시에 조선인민경제에 뿌리박혀있는 반 봉건적 락후성과 식민지적 편파성을 시급히 퇴치하고 건전하고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인민경제 계획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것이다。

인민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민족경제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대책으로 되는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은 一九四八년계획을 한층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것이다。이 계획은 북반부 인민경제가 부흥으로부터 발전으로 넘어가는것을 의미한다。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각 생산부문의 로동생산성 제고률및원가저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로동생산성 제고률

부문별	一九四八년에비한 一九四九년제고률	一九四八년에비한 一九五〇년제고률
국영산업부문(평균)	二〇·二	三八·二
지방국영산업부문	三一·〇	四九·二
림산(원목)부문	三〇·一	三七·〇
수산부문	一一·八	一六·一

원가 저하률

부문별	一九四八년에비한 一九四九년저하률	一九四八년에비한 一九五〇년저하률
국영산업부문(평균)	九·三	一八·三
지방국영산업부문	一三·〇	二〇·〇
림산부문	二一·三	二六·六
수산부문	二一·七	二七·五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 二개년계획은 통일적 인민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있는것이다。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또 경제적 기술적 자립을 실현함에 있어서 원가저하와 기업의 수익성 제고는 그 중심적 과업의 하나로 되지않을수없다。경제발전을 의미하는 확대 재생산은 인민경제의 축적 여하에 달려있으며 원가

저하는 확대 재생산의 기본원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적인 유일한 동력은 자본주의적 리윤인것이다。자본주의적 리윤은 자본가에 의한 로동자의 착취 결과인 잉여가치의 전화(轉化)된 형태이다。그의 대소(大小)는 생산에 있어서의 착취조건과 또 자연발생적인 상품실현의 조건 여하에 달려있다。자본주의적 리윤은 두말할것도 없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돌아가 그들의 개인적 향락증진과 더욱 혹심한 착취수단의 증대를 위하여 소비되는것이다。

우리 북반부에서의 인민경제 발전은 오로지 부단한 생산원가의 저하에 의한 인민경제 축적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즉 로동생산력을 발전시키며 필요로동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며 잉여생산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전개되는것이다。인민경제축적은 국정가격과 생산원가와의 차액의 대소(大小)에 의하여 즉 기업의 수익성으로써 표현된다。인민경제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잉여생산물 가치의 계속적 증가는 화폐형태로써 자본축적을 확대시킨다。그리하여 확대된 화폐자본은 계획에 의하여 인민경제의 종합적 견지에서 제생산부문에 재분배되어 기본건설의 형태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는것이다。인민경제 축적과정을 고찰한다면 조성되는 잉여생산물 가치는 두개의 부분으로 분렬되어 그 일부는 판매가격에 대한 일정한 세률에 의한 거래세와 예산부과 형태로써 리익공제(생산부문에 있어서 계획리윤은 일률적으로 총 원가의 一〇%인바 그 九〇%)의 형태로 국가재정 체계에 흡수되고 다른 일부는(계획리윤의 一〇%)해당 기업의 내부축적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재정체계에 흡수된 축적을 인민경제부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따라 자본과 로동력을 계획적으로 재분배 함으로써 각 생산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一九四九년도 종합예산에 있어서 거래세 리익공제 및 가격차금 수입은 一〇四억九천五백五十八만八천원으로 전(全) 세입예산의 五三•一%를 차지하고있다。

생산원가가 저하됨에 따라 인민경제축적이 증대되며 인민경제축적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계획은 확대되고 생산량은 장성된다。생산량의 장성은 또한 원가저하에 관련되어 잉여생산물 가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인민경제축적을 확대 발전시키는것이다。

축적템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확대 재생산의 템포는 더욱 증대되고 전인민경제부문에 있어서 축적과 확대 재생산은 상호 작용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것이다。우리인민정권은 필요한 생산부문을 계획적으로 확장하며 재생산과정에 봉착하는 모든 난관을 의식적으로 타개함으로써 인민경제 총생산과정의 원활하며 부단한 발전력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물론 인민정권은 인민경제 축적증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다。그러나 인민정권은 리윤의 획득에만 관심을 두는것이 아니다。국가는 인민경제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며 장래 부강한 민주국가건설의 토대로 되는 경제적 기술적 자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업부문은 리윤여하를 불문하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는 현재 리윤이 없지만 인민경제건설을 위하여 중요한 기업은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다。국가는 현재의 수익성 여하에는 관계없이 필요한 부문 전체를 발전시킬수 있도록 모든 인민경제 축적기금을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국가는 개개기업의 수익성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것은 아니다。여기에는 현재 수익성이 없는 기업을 전인민경제적 견지에서 급속한 시일내에 수익성있게 하는 과업이 제기되는 것이다。

인민경제발전에 있어서 각개 기업의 수익성의 계통적인 증가는 결국에 있어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원천으로 되기때문에 필요한 것이다。여기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없으며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백방으로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같이 인민경제발전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는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생산원가 저하는 실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생산원가의 계속적인 저하가 없이는 인민경제의 장성은 불가능한것이다。그렇기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는 원가저하의 요인을 옳게 파악하여야 한다。

× × ×

인민경제는 개별적 생산부문의 총체이며 또 개별적 생산부문은 개별적 제기업의 총화이기 때문에 원가저하는 각 기업의 독립채산과 경영실태(經營實態)와 분리하여서는 안될것이다。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는 一개(個)제품당 원가를 저하시키며 잉여생산물을 보다 많이 생산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기본적 관리방식이다。독립채산제가 매개국가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가저하와 기업의 수익성 제고는 국영기업들의 일상적 투쟁 강령인것이다。

생산원가는 기업의 화폐지출인바 생산원가의 기본요소는 로임(勞賃)원료 자재비 감가소각(減價銷却)제 경비 및 관리판매비이다。이상의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면 생산물의 원가저하를 결정하는 제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

1. 로동생산성의 제고

2. 원로 자재 전력 및 연료의 절약
3. 생산설비의 적시보수와 현존 생산설비의 리용률 제고
4. 재정규률의 강화와 모든 랑비현상과의 투쟁
5. 원가예산제의 확립과 원가 검토회의의 효과적 운영

一、로동생산성의 제고

생산원가저하에 있어서 로동생산성의 제고는 결정적 역활을 노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로동생산성은 로동생산력을 표현하며 인민경제의 발전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로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채용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조건을 합리화하며 로동자 및 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로력조직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로동생산성의 급진적 향상은 사회주의적 기업에 있어서의 생산조건의 개선과 로동자 및 기술자들의 기술향상에 의존하고 있는것이다. 로동생산성은 생산조건에 발전적 변화가 있다든가 로력조직 및 기타 요인에 개선 또는 적극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약 발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로력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발전법칙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각개 기업소에서는 로동생산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개 로동자의 一시간당 평균생산량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며, 또 이것을 공장별 분공장별 각 작업반별로 작성할것이며 로력조직을 합리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기업소에서는 자기의 로력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산조건에 따라 소요로동량을 산출하며 직접로동과 간접로동, 기술로동과 일반로동의 소요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와 결로가 요구되는 것이다. 만일 로력조직이 불합리하게 되고 인원배치가 정확하게 되지못한다면 생산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력이 편재하게 되어 로력의 혼돈(混沌)한 전용이 생기게 되며 심지어는 어느 부문에서는 숙련공이 잡용부로 사용될수도 있는것이다. 로력조직의 정확성은 반드시 임금지불의 정확성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인민적 계획경제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원가저하를 초래하는 로동생산성의 제고는 매 개인의 로임(勞賃)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단위 생산물원가에 있어서의 로임지출은 저하되어야 하는것이다. 로력조직이 정확히 수립되었다 할찌라도 도급기준량이 부정확하게 되고 루진도급률이 옳게 산출되지 못하였다면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감살(減殺)시키고 로동능률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

는 것이다.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중요한 요인(要因)의 하나는 생산경쟁운동과 생산협의회의 역활이다. 쏘베트동맹의 경험에서 보는바와 같이 로동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쟁운동과 생산협의회는 중대한 역활을 놀고있는 것이다. 계획의 완수를 위한 생산경쟁운동은 로력대중의 창발성을 발동시키며 그들의 자각적 로동의욕을 북돋우는 공간(槓杆)인것이다.

우리북반부에 있어서의 생산경쟁은 타인의 희생(犧牲)으로서 자기의 치부(致富)와 승리를 꾀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경쟁이 아니라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함으로써 부강한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건설하기위한 로동자들의 자각적 전국투쟁인 것이다. 생산경쟁운동은 우리들의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함에 있어서 강력한 공간(槓杆)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생산경쟁운동은 기념행사적 돌격운동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생산의 경상적 견실한 상승(上昇)이 보장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전개되어야 할것이다.

생산경쟁운동을 옳게 전개하며 계획달성과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생산협의회의 역활은 중대한것이다. 생산협의회는 인민정권의 핵심적 주인이된 로동자들의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자각적 행동인것이다. 생산실적을 결로하며 다음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선진적 로동자들의 좋은 경험과 창발적 의견 또는 결점을 퇴치하기위한 군중적인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이 생산협의회를 통하여 개진(開陳)되며 전개되어야 한다.

二、원로자재와 전력 및 연료의 절약

원가저하에 있어서 원료 및 자재의 절약은 극히 중대한것이다. 특히 원료비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공업부문 금속부문 기계부문 전재부문 및 화학부문에 있어서 이것을 저하시키가 위한 투쟁은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원료비와 동력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모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소비되는 원료 및 동력에 대한 단위제품당 소비정량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원료 및 동력비의 적량는 원단위 계산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이를 정확히 산출할수 있다. 원단위계산을 정확히 하는 동시에 선진국가의 표준원단위를 연구하며 선진적인 기업의 표준원단위를 동일생산부문의 각기업소에 적용할것이다. 단위제품당 원자재 및 동력비의 근소(僅少)한 절약도 총생산에 있어서 막대한 절약이 되는것이며 또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큰 절약을 가져오는것이다.

원가계산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一개(個)제품당 원자재의 소비를 제정하는데 있다。그럼으로써 원자재를 더욱 절약하며 제품원가를 조직적으로 저하시킬수있으며 원가저하의 목표를 확정할수 있을것이다。그러나 현재 국영기업소들의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점의 하나는 오늘날 까지도 원단위 계산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부정확한것이 발견되는것이다。원자재와 동력비를 절약하는데 있어서는 원단위를 저하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표이다。그렇기때문에 금후 원단위의 정확한 계산을 위한 투쟁은 가장 초미지사(焦眉之事)인것이다。

또 원자재비를 저하시킴에 있어서는 원자재의 구입 운반 보관 보조자재의 교체등이 주밀(周密)한 계획밑에서 진행되어야한다。이를 위하여서는 첫째 보다 저렴(低廉)한 원자재 또는 재생품 대용품을 사용하며 우량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운반비등 모든 부대비(附帶費)가 절약되어야한다。또 一개(個) 제품당 소비기준량에 근거한 정확한 평균보유량(平均保有量)이 결정되어 이 보유량에 의하여 원자재구입을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무용한 장기 저장 또는 부족을 방지하는 동시에 돌연적인 고가(高價)구입을 초래하는 무계획적 구입작풍은 이것을 근절하여야한다。

둘째 구입된 원자재는 정연히 보관되어 항상 현품과 장부가 일치되어야하며 기계부속품등은 규정에、의하여 적시(適時)에 교체되어야한다。

셋째 원자재를 절약할수있는 창안 원료를 절약하는데 크게 공헌한 로동자 기술자 또는 기업소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표창하여야 할것이며 이것을 널리 선전해석하는 사업이 광범히 조직되어야한다。

三、생산설비의 적시보수와 현존설비의 리용률 제고

생산설비의 적시보수와 현존설비의 리용률 제고문제는 생산과정 합리화의 문제이다。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원가를 저하시키는 문제는 결국 생산행정(生產行程)의 합리화를 떠나서는 생각될수 없는것이다。

생산과정의 합리화란 실로 광범한 문제이다。생산과정의 합리화를 위하여서는 로동요구(勞動要具) 로동대상의 개선、로동자들의 문화적 기술적 수준의 향상、로동의 숙련、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 및 로력조직의 합리화등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요구되는것이다。또 그것은 생산의 기계화、전기화、자동화、기존설비(既存設備)의 합리적 리용、기계 및 기구의 합리적 배치등에 의하여서도 실현된다。물론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넓은 의미 즉 인민경제적 종합적 견지에서의 생산과정의 합리화는 기업의 배치와 립지조건(立地條件)、기업의 결합형태、원료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작업(一貫作業)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할수 있다。우리의 로동생산성을 선진국가의 수준만큼 급속히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이상의 모든것이 달성되어야 할것이 요구되며 또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당면한 가장 긴요하며 손쉽게 할수있는 생산의 합리화는 생산설비의 보수작업을 제때에 실시하며 일시적 증산을 위하여 기계를 혹사하는 경향을 근절하고 현존설비를 최대한도로 리용함으로써 생산을 증가시키는 문제이다。

실로 현존생산설비의 리용률을 고도로 높여야 할것은 산업부문에서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첫번째로 나선 중대한 과업인것이다。

또 생산설비의 보수작업을 제때에 실시하는 문제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보수작업을 제때에 실시하지 않는 경향은 두가지로 볼수 있다。하나는 생산이 급하다는 구실밑에 생산의 일시적 저하를 기피(忌避)하여 보수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무리한 작업을 그대로 계속하는 경향과 또 하나는 원가저하를、곡해(曲解)하여 계획과 예산에 예정되어있는 보수작업을 계획대로 하지않고 가공적(架空的) 절약을 꾀하는 경향인것이다。이러한 경향은 일시적 증산 또는 어느 기간에 있어서 원가를 저하시키는것 같으나 필경에는 적시 보수에 예정하였던 몇배의 비용을 랑비하게 되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생산설비의 적시 보수와 현존 생산설비의 최대한도 리용、이 문제들이 바로 실시됨이 없이는 더 발전된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생산과정의 합리화는 생각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四、재정규률의 강화와 모든 랑비현상과의 투쟁

원가저하를 위하여 재정규률을 일층 강화하며 경비절약을 더욱 철저히 할것이 요구된다。

一九四八년에 국영기업소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경비절약을 위한 운동이 힘차게 전개되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별적으로는、재정과 물자를 람용(濫用)하는 실례들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였다。재정의 절약과 그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는 재정규률을 일층 엄수하여야한다。

재정규률의 강화를 위하여는 우선 부과별(部課別)로 예산제도가 확립되어야하며 그것에 규정대로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할것이다。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되고 절약이 있어야 할것이

다。일견(一見) 재정경비지출이 적으면 곧 재정이 절약된것같이 아는 경향들이 일부에 있으나 재정경비지출은 반드시 계획된 사업의 진행도표와 결부되어 검토되어야한다。특히 기계 기구 건물 사택등의 보수작업이 때를 놓치면 필경에는 막대한 손실 즉 랑비를 가져온다는것은 기술(記述)한 바이나 이것을 재삼(再三) 강조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재정규률의 강화는 모든 랑비현상과의 투쟁과 결부된다。랑비현상을 퇴치하기위한 투쟁은 애국심의 앙양을 위한 사상동원을 요구한다。인민의 소유로되어 있는 국가기업에 있어서 일체의 랑비현상은 인민의 리익에 배반되는 행동인 것이다。

원자재에 있어서는 소비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필요이상의 원자재사용은 거부되어야하며 무계획적 전류용(轉流用)을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자체의 검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랑비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사업이 제도화(制度化)되어야 할것이다。

五、원가예산제의 확립과 원가 검토회의의 효과적 운영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이 단지 구호(口號)에만 그치지않고 질절적으로 전개되려면 원가예산이 생산과정과 결부되어 각부문별로 확립되어 이것이 주지철저(周知徹底)되어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이 군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기업소들에서 원가예산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 이것이 실시되어 있다 할찌라도 경리일군들의 실지생산에 연구가 아주 미약하기때문에 생산과 긴밀히 련결되지못한 원가예산이 되어버리고 있다。원가예산은 일부 원가일군들의 두뇌(頭腦)속에서 생산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작성된다면 이것은 산 원가예산이 될수 없는것이다。

원가예산제가 확립되어있지 못하며 또 이것이 군중화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부분적 기업소들에서는 원가검토회는 형식적이거나 또는 전혀 실지되고 있지않다。현재 부분적 기업소에서 흔히 실시되고있는 원가검토회를 본다면 장시간에 걸친 다른 회의끝에 원가실적을 발표하고 구체적 대책이 세밀히 검토됨이 없이 원가저하를 맹세하는 정도이다。

원가예산제가 광범한 군중에게 철저히 침투되었다면 현장에서 구입되는 자재의 품질 또는 그 가격에 심각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업무(業務)에서 품질 좋은 자재를 렴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심각히 투쟁하게되어 국영기관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자재를 무계획적 사업에 의하여 시장에서 구입하는 폐풍(弊風)은 근절될것이며 또 업무

(業務)에서는 자기들의 로력(勞力)으로 보장된 자재의 합리적 자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다。

이와같이 각 부문별 각 공정별(各工程別)에서 원가저하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전체가 투쟁할수 있도록 원가예산이 군중화되어야 한다。원가예산제가 바로된다면 원가검토회는 이것에 상응하여 심각하게 효과있게 진행될것이다。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이 군중화되지 못한 곳에서 효과적 원가검토회를 도저히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 × ×

이상에 있어서 생산원가 저하와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몇가지 긴요한 문제를 기술(記述)하였다。

계획과제를 질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부단적으로 높은 수준에로 상승(上昇)하는데 있는것이다。

로동생산성 제고에 있어서 또는 독립채산성(獨立採算性)을 개선함에 있어서 경사적 루진적 향상을 보장하는것이 우리가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투쟁목표로 되어야한다。그러기 위하여서는 일반 로동자들의 작업수준을 선진적인 모범로동자들의 작업수준으로 제고시키며 일반기업의 작업수준과 수익성을 선진적 기업수준에로 제고시키기위한 투쟁이 과감히 전개되어야 할것이다。

로동생산성 및 원단위 수준에 있어서 선진적 요소와 후진적 요소사이에는 현격(懸隔)한 차이가 있다。현 수준을 선진적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문제는 실로 대단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것이다。이것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생산경쟁을 옳게 조직 전개하며 기술전습사업을 옳게 추진시키며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광범히 보급시키는데 있다。

기업책임자 기술자 및 경제간부들이 선진적 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업방법과 기술분야에서 구투(舊套)를 벗어나지못한 현상을 시급히 퇴치하고 우리사업의 질적 수준을 발전하는 민주건설에 보조(步調)를 맞추어 나가야 할것이다。

인민경제건설에 있어서 우리의 사업조직과 사업지도를 국가와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급속히 제고시키는것 이것이 곧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며 원가저하와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투쟁목표인것이다。

당간부들은 정치시사를 더 깊이 연구하자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부부장 박 영 의

당간부들과 당원들에대한 사상리론상 교육과 실무상 교육은 반드시 우리의 당면한 정치투쟁과 정치로선 위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투쟁은 계급투쟁의 최고형식이며 근로대중의 사상의식은 일정한 계급적 립장과 로선 위에 선 정치투쟁에서 가장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당 간부들과 매개 당원들은 일상적으로 맑쓰—레닌주의 선진과학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뿐만 아니라 그 기초위에 국제 국내적으로 적변되는 현행 정치시사를 깊이 연구하여야한다.

정치시사라함은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군사상、정치상、경제상、문화상 발생하며 또는 변화하면서 있는 사변들을 말하는 것이다. 크게는 각 국가간의 외교담판 또는 전쟁 및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 해방운동등으로부터 一개국의 국내정변 국내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치시사의 범위는 가장 광범하고 복잡다단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호상 관련되며 교차된 계급간의 세력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이며 근본적으로는 대립된 두개 진영—민주와 반동파의 투쟁이며 대립된 두개 계급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일정한 형식에 불과하다.

一、정치시사를 왜 연구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왜 정치시사를 연구하여야 하겠는가? 정치시사를 연구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개 사회적 인물이며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국내적으로 발

생되는 제 사변들은 민주와 반동과의 투쟁속에서 모두 우리 매개인민들의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그가 만일 나는 정부의 간부도 아닌 한개 사무원에 지나지않는데 무엇을 결정하겠는가? 한다든지 혹은 나는 한개 농사짓는 농부인데 어찌 감히 국가의 대사를 운운하겠는가 하며 국제 국내 정세의 변화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는 커다란 잘못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우리조국은 위대한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장구한 통치기반에서 해방된지 四년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매국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직 국토가 통일되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미군주둔하의 남조선 산업경제는 파탄되고 실업자는 증가되며 농촌경리는 파산되고 있으며 인민들은 무권리와 기아、빈궁、질병에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있어 공화국인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있을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사태는 전체 조선의 애국적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에 궐기시키고 있다.

이에 있어서 우리당 간부들과 당원들은 사실상 이 첨예한 투쟁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선봉적 투사의 역활을 감당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정치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적의 힘을 바로 알며 우리의 힘을 기르는데 있다. 그러면 적의 힘을 알며 우리의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근로자들의 선진적 우주관인 맑쓰—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이에 립각하여 정치시사를 계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적의 동향과 력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이다.

동시에 적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상적으로 투쟁형세에 수응하면서 항상 시사보고 정치보고로써 당내외 군중들을 투쟁에로 고무 발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사보고 정치보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력량을 알며 적의 력량을 알게하는것이며 우리와 적의 투쟁형세와 변화를 즉 그 계급들이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하며 인민의 지향을 포착하여 가장 적절한 투쟁 임무와 로선을 제기하여 가장 정확한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투쟁을 수행케 하는 가능성을 준다.

우리가 정치시사를 연구하는것은 정세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들을 시정하고 국내외 형세의 본질을 명백히 리해한 기초위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정치적 자각성과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어떠한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능히 자유로이 옳은 방향을 잡으며 원래의 투쟁방침과 정책을 견지하여 더욱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려는데 있다。

우리가 정치시사를 연구하는 목적과 의의는 실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二、정치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일부 부정확한 태도의 방법

우리가 정치시사를 연구하는것은 이미 위에 말한바와같이 시사에 대한 우리들의 모호한 관념들을 타파하며 문제에 대한 본질의 파악과 우리들의 태도를 결정하며 우리의 투쟁임무와 실제공작을 결정하려는데 있다。그렇기때문에 정치시사에 관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일상적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우리당일군들에게는 정치시사문제 취급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부정확한 태드와 연구방법이 존재하고있다。우선 연구태도에 있어서 그것은

첫째로 정치시사에 전혀 관심하지않는 태도이다。

어떠한 동무들은 정치시사는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생활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정치 시사는 곧 국사이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고 오인하고 있다。이것이 바로 유해한 태도이다。이러한 태도는 과거 일제통치계급이 주입한 사사적 잔재인 것이며 오늘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인할수 없는 완전히 해독적 사상인 것이다。

반동적 전체 통치자들―과거 일제나 현재의 리승만 도당들은 인민들이 정치시사문제를 연구하는것을 극력 탄압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그들 일부 지배계급만이 능히 알수있는 전문적인 난해한 문제인것같이 허식하고 인민들을 무지의 구렁에 처하게 함으로써만이 인민에게 대한 자기들의 혹독한 착취와 탄압을 더욱 용이하게 할수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인민정권은 이와는 판이하다。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서 인민과의 사이에는 하등의・모순도 없으며 량자간의 리익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기때문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업하는 정권기관나의 당원들은 물론 사회단체들에서 사업

하는 당일꾼들은、반드시 계통적으로 정치시사를 연구하여야 한다。우리당원들이 자기 사업을 후과있게 옳게 수행하려면 정치시사에대한 리해를 더일층 깊게하며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제고시키며 자기의 일상적인 투쟁에서 더욱 맹렬하여져야 한다。

둘째로 정치시사에 비교적 관심은 하나 자기의 취미있는 부문에만 주의를 돌리고 다른 부문에는 관심하지않는 태도이다。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일부 소위 문화적 인사나 그렇지 않으면 신입당원으로서 정치적 경험이 적은 동지들속에 많은 경향이다。이것은 역시 정치시사 연구에 있어서 유해한 태도이다。이러한 태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사업하며 인민의 력량을 정확히 평가할줄 모르며 자기의 주관적 노력을 홀시하고 객관적 현실가운데서 능동적 작용을 할수없다。

셋째로 정치시사를 행세꺼리로 연구하는 태도이다。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사람중에는 두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속세를 초월한듯이 우쭐하는 자이요、다른 하나는、자기의 전문박식을 표시하려는 청담(淸談) 자이다。이런 따위의 태도는 모두 반동적 통치계급들을 객관적으로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반동적 통치계급들은 정치시사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기실 원하고 있는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의 반항을 견제하며 자기의 지배를 더욱 용이하게 할수있는것이다。그러므로 정치시사의 옳은 지식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옳지못한 연구태도를 청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 있어서

첫째로 문제만 라렬하여 놓을뿐이지 객관적 존재의 사물의 발전법칙을 파악하며 형세발전의 동향을 파악하지않고 문제를 보기만하고 구체적으로 파악 리해 하지못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협애한 경험주의 연구방법으로서 낡은 눈으로 새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사태들을 보는 방법이다。

셋째로 정치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편면적이며 절대적인 방법이다。이것은 개인주의적 립장에서 범하기쉬운 결점이다。그것은 소부르죠아 개인주의적 사상방법의 본신이 실재에 있어 부정확한 사상방법인 까닭이다。고려므로 현실자료를 연구하는가운데서 결론을 짓지않고 결론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부류들이다。

넷째로 문제를 형식만 보고 문제의 내용을 보지않는 형식주의적 연구방법이다。

다섯째로 다만 문제의 과거와 현재만 보고 문제의 장래 추세를 보지않으며 문제가 어떻게 어떠

로 발전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고 어떻게 어디로 발전하면 우리에게 불리한가에 대하여 연구하지않는 연구방법등등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태도와 방법으로써 정치시사를 연구하여야 하겠는가。

三、정치시사를 어떠한 태도로써 연구할것인가

우리는 정치시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정확한 방법을 소유하기전에 우선 반드시 정확한 립장에 서야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문제이다。 만일에 립장이 없거나 혹은 정확한 립장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지 못할것이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부정확한 립장에 선 사람에게 정확한 연구방법이 생길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므로 정확한 방법은 부정확한 연구방법을 퇴치하는데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정치시사를 연구하는 정확한 립장에 튼튼히 서는데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 정치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립장을 가져야하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업과 일상생활이 그러한 바와같이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민적 립장에 서야한다。 다시 말하면 맑쓰—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며 분석하며 종합하여야한다。 인민적 립장에서 정치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같은 세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특점은 당면한 투쟁임무와 실제공작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투쟁방침과 정책을 련결시키며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는 전체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공작은 일체 이러한 조선인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조국을 또다시 식민지예속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조국강토로부터 철거시키며 우리조국과 인민을 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먹는 리승만괴뢰도당을 타도분쇄하는데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투쟁은 오늘 우리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위한 투쟁의 중요관건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투쟁임무와 실제사업과 방침과 정책을 련결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이러한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것이다。

둘째특점은 인민적 관점에서 연구하여야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 력사는 인민이 창조한다。 결코 몇개

의 정치가나 외교가 또는 몇개의 명사나 요인들이 창조하는것이 아니다。 물론 명사나 요인들이 일정한 구체적 조건위에서 어떠한 중요한 작용을 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력사적 작용은 오직 광대한 인민 즉 군중만이 한다。 례를 들면 어떤사람은 제三차세계대전이 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쏘미 외교관계의 긴장성이 라든지 또는 국제무대에서의 량국의 투쟁등을 보고 량국은 전쟁할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은 한줌밖에 되지않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야기되는것은 아니며 또한 쏘련의 평화적 외교정책과 전세계인민들의 전쟁을 반대하는 힘이 너무나 강대하기 대문에 실지에 있어서 전쟁 도발자들의 음모는 실현되지 못하는것이다。 우리는 정치시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신문지상에 게재되는 명수들의 담화 혹은 외교관의 활동만을 보고 인민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지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반드시 인민적 관점에 서서 정치시사를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특징은 일체 형세발전 가운데서 투쟁의 기본법칙을 장악하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력사는 진보하며 형세는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의 일정한 시기내에는 반드시 일정한 주류(主流)가 있는것이다。 례를 들면 제二차세계대전이 결속된후 평화와 민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이것은 또한 세계 형세발전의 주류이다。 이상과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적 립장은 결코 주관주의적 립장으로부터 산생되는것이 아니다。

정치시사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인민에게 유리한 문제들을 승인만하면 되고 불리한 문제들은 승인하지 않으면 다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은 인민적 립장에 대한 일종 오해이다。 인민적 립장이라는것은 곧 실제속에서 진리를 찾는 태도이어야 한다。 우리는 다만 문제를 승인할뿐만 아니라 심각히 연구하며 그를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의 정치시사는 곧 래일의 력사이다。 그러므로 우리일군들은 력사적 안광으로써 정치시사를 연구할것이며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새 문제를 보아야할것이다。 이것은 가장 과학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이다。

四、정치시사를 어떠한 방법으로써 연구할것인가

그러면 정치시사연구의 정확한 방법이란 과연 어떠한것인가 그것은 우선 일정한 시사문제에 있어서 구체적 분석을 주어야한다。 결코 몽롱한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례를 들면 우리민족이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의 기반하에서 해방된지 벌써 四년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조국은 인공적인 三八선으로 분렬된채 아직도 국토가 통일

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조국을 식민지 예속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매국노·리승만도당을 원조하며 우리조국강토에서 물러가지 않고있는 때문이다。그러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언제든지 우리강토에서 물러가지 않으며·리승만도당을 무제한으로 원조할수있겠는가。우리는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현재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일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그들의 내부에는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와의 대립이 일층 첨예해 가며 미국반동파와 광범한 인민들간의 모순은 더욱 심각하여 갈뿐만 아니라 미국 부르죠아 자체내에 존재하는 모순과 대립도 또한 더욱 격심해 가고 있다。다른 방면으로 미제의 주구 리승만도당은 그들 내부에서 권세와 지위 쟁탈을 위한 갈등이 날이갈수록 심하여가며 리승만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인민항쟁의 불길은 로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그것은 무엇보다도 공화국의 기치밑에 「미군즉시철거」「리승만괴뢰「정부」타도」를 절규하여 일어선 남반부인민들의 무장투쟁의 승리적 전진이 이를 여실히 말하고 있으며 소위 망국「국회」「국방군」의 내부가 와해되어가는 사실들이 이를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또한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전세계 평화 애호인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분석하여 볼때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매국도당을 원조하며 장기주둔을 획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운 것이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하면서 새 성과를 달성하며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맹렬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것이다。

둘째로 중요한것은 계급관계의 변화로부터 일체 문제의 실질(實質)을 보아야한다。다시 말하면 문제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내재적 모순관계를 분석하여야한다。이것은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것이다。

정치정세의 변화는 대단히 복잡하다。그러나 사회발전의 법칙을 장악하면 그 내재적 모순은 리해하기에 매우 쉬운것이다。

주지하는바와같이 제국주의는 모순의 결합체이며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죽어가는 자본주의이다。모순의 집합체인 제국주의는 특히 식민지와 예속국들의 수억만 인민을 가장 무지하게 착취하며 가장 비인간적으로 압박한다。그렇기때문에 예속국들에서 이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해방운동이 장성하며 혁명운동이 장성하며 첨예화하여 간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은 로동자 농민이 주인이될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근절된 새 형태의 국가이다。그러므로 그들은 약소민족의 자주권을 존중시하며 옹호하며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을 원조한다。

이러한 두 모순은 서로 대립된 새것과 낡은 두 세계체계의 모순이며 세계상의 기본 모순이다。이러한 기본적 모순은 오늘 국제상에서의 중요한 모순을 조성하고있다。그것은 쏘베트동맹은 평화정책을 견지하는 반면에 미 영은 침략적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기때문이다。그러나 미 영간의 모순도 제국주의의 기본모순에 의하여 점점 첨예화하여 가는것은 사실이다。제二차세계대전 이후의 모순발전은 필연적으로 죽여가는 제국주의의 멸망에로 접근시키고있다。반면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력량은 더욱 장성 강화되고 세계는 완전히 낡은 세계로부터 새 세계에로 전변되면서 있다。우리는 이와 같이 반드시 계급관계의 변화로부터 일체 정치시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인민의 지향으로부터 정치형세의 발전을 보아야한다。상기한 바와같이 력사의 발전은 인민이 결정하는것이다。

그것은 결코 한개 령수나 저명한 외교가가 결정하는것은 아니다。우리가 표면상 현상으로 보면 세계대사는 마치 몇개의 령수나 몇개의 거두회의나 또는 약간의 외교활동가가 결정하는것 같다。그러나 이것은 다만 현상일뿐이고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진정으로 세계대사를 결정하는것은 인민의 지향이다。

그러나 령수나 외교가의 활동이 만일에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며 인민의 의지를 집행한다면 그는 여하히 곤난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최후에는 승리한다。이와 반대로 여하히 령수나 외교가의 활동이 비상하더라도 그가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지 못하고 인민의 지망을 위반할때에는 결국 그는 수치스러운 실패를 맛보게된다。때문에 정치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민의 지향으로부터 정치형세의 발전을 보아야한다。

그러면 무엇이 인민의 의지인가? 또 어떻게 표현되는것을 인민의 의지라고 부르는가? 인민의 의지는 곧 대다수의 의지이다。례를 들면 제二차세계대전 이후 공고한 평화와 안전은 전세계인민의지향이며 이는 엄연한·사실이며 전세계 인류의 지망이다。

제二차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전세계 인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하게 평화와 민주를 희구하고있다。미제국주의자들을 선두로한 국제반동들이 군비를 확장하며 군사기지를 설정하며 군사쁠럭을 조작하며 새 전쟁을 선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인민들과 고립되고 약화하여가는 제국주

의 분자들의 의도대로는 되지않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실로만 돌아갈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세계인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때문이요、그것은 또한 세전쟁 도발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력량이 반동보다 너무나 강대하고 크기때문이요、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를 괴수로한 국제반동진영은 전후에 있어서 급속히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체내에 존재하고있는 엄중한 모순이 더욱 첨예화하고 있는대문이다。

조선의 례를 들고보자!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된 의지이다。조선인민은 독립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실행하며 자기정권의 주인이 될것을 요구한다。三十六년간의 장구한 일제통치하에서 쓰라린 식민지 노예생활에 신음하여온 조선인민이 또다시 새침략자인 미제의 식민지노예로 되기를 누가 원하겠는가?

그러나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미제국주의 조종하에서 괴뢰「정부」를 조작하고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진압하여 민주를 실행하지않으며 동족상쟁을 조장하며 미군의 계속주둔을 애걸하고 있다。그러므로 조국애에 불타는 조선인민들은 거족적으로 총궐기하여 자기의 결속된 력량으로서 자기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있는 것이다。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결속된 전체인민들은 공화국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일층 맹렬한 구국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일정한 시기에 가서 비약적인 변화를 가져올것이다。이 변화는 곧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시기이다。

넷째로 문제를 전면적 진체적으로 보아야 할것이다。오늘 세계상의 반민주력량은 이미 국제반동세력을 형성하고있다。

현재 반민주주의적 제국주의의 력량도 국제적이며 반제국주의적 민주력량도 역시 국제적이다。어떠한 한개의 국가나 심지어 어떠한 한개 지방의 민주와 반민주와의 투쟁도 그는 곧 세계 민주와 반민주와의 투쟁의 일부분이며 전세계문제와 독립적으로 분리시킬수는 없는것이다。그러므로 정치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국부적으로 또는 고립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전면적、전체적으로 문제를 관찰하며 그럼으로써 정확한 결론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치시사를 연구함에서 적의 력량과 인민의 력량의 소장(消長)으로부터 군사형세를 보는것도 필요할것이다。적의 력량과 우리의 력량의 대비적(對比的) 변화로서、군사 형세의 발전을 보는 것은 가장 정확한것이다。그런데 혁명적 전쟁에서 적과의 력량의 변화를 보는데 있어서 단순한 군사관점으로서나 또는 량방 군대와 수량상 차이로부터

보아서는 안되는것이다。왜 그러냐하면 혁명적 전쟁은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 전쟁이며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여 투쟁하는 전쟁이다。그러므로 인민들은 역시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그러므로 반드시 인민들의 정치적 각오정도와 인민의 조직력량을 군사 력량의 속에 넣어야 되는것이다。인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는 여하한 간고한 조건하에서든지 능히 승리를 쟁취하며 군중과 탈리하고 군중에게 뒤떨어진 군대는 결국 패하고야 만다。

五、결 론

이상 말한바와같이 정치시사를 연구하는 우리일꾼들은 반드시 정확한 립장과 정확한 방법과 또는 새 관점으로서 현실을 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일부 우리동지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문화수준도 낮고 정치수준도 높지못한데 이와같이 복잡한 사사문제들을 어떻게 연구하겠는가고 말한다。또는 어떤동무들은 먼저 방법을 배운다음에 또 새관점으로 보는 방법들을 습득한 다음에 자료를 수습하여서 연구하는것이 어떠한가고 한다。그러나 정치시사를 연구하는 일은 그러 곤난한 것은 아니다。문화수준이나 정치수준이 낮은 동무들도 가히 연구할수 있다。

문화수준과 정치수준은 정치시사를 연구하며 또는 일상적인 자기학습 행정에서 제고하여야 한다。정확한 관점과 립장과 방법은 자기사업과 정치시사를 연구하는 실지사업가운데서 배양되며 단련되는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착수하여야 하겠는가?

그것은 우선 개개의 현실생활로부터 착수하여야한다。정치 시사에 대하여 제일 모호하고 또는 전혀 모르는 문제로부터 곧 착수하여 착착 해결을 짓도록할것이다。이의 해결방법은 집체적인 방법과 자기자체의 연구로써 해결하는것이다。

집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간단한 시사좌담회 또는 시사연구회등같은것을 소집하여 일정한 문제를 제출하고 공동적으로 연구하는것이 좋을것이다。또는 책임간부 또는 동지들을 찾아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좋다。그렇기 때문에 우리일꾼들은 반드시 대담하고 정확한 사상방법으로 자기의 수준을 높이며 자기를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자체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방법으로서 무엇보다도 다독(多讀)하며 정독 다습하여야한다。광범한 참고자료들과 정치시사문제들을 읽으며 시사지식을 체계 세우도록 하여야한다。

만일 우리일꾼들이 이와같이 정치시사에 대한 옳은 지식으로써 튼튼히 무장한다면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을 제때에 군중속에 깊이 침투시킬것이며 군중들로하여금 정부와 우리당의 로선을 위한 투쟁에 더욱 맹렬하며 용감하게 발동할수 있을것이다。

참고자료

경제령역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의 결점과 과업에 대하여

쏘련과학아까데미야 경제학 연구소·학자쏘베트 확대회의의

一九四八년十월에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 학자쏘베트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과학 일군열성자들과 강사들과 여러 성(省)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서는『경제 령역에서 과학연구사업의 결점들과 과업에 대하여서와 一九四九년 경제연구소 사업계획에 대하여』로 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연구소 소장인 쏘련과학아까데미야 정회원 크·브·오쓰뜨로위쨔노브가 보고하였다. 아래에 이 회의에 관계된 간단한 속기(速記) 보고 요지를 기술한다.

크·브·오쓰뜨로위쨔노브의 보고

쏘련에서 경제과학은 레닌과 쓰딸린의 저서에 의하여서 온 동시에 그들의 친근한 전우들과 제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최고단계에 제고되었다.

레닌—쓰딸린적 경제학 리론의 기초위에서 쏘련에서는 세계사적 승리가 달성되었다. 국가의 대공업화와 농촌의 집단화가 실시되었고,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었고,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적을 격퇴한 경제적 승리가 보장되었고, 사회주의적 경제 향상과 전후 경제 복구에 관한 五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레닌—쓰딸린 정치경제학은 우리의 실습자들을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경제적 법칙과 전망의 명확성으로써 무장시켰다.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은 반동적 제국주의의 력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쏘련을 수반으로한 민주력량의 더 없는 무기로 되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의 경제학설은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변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투쟁에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있다. 경제학설의, 발전을 위함에서 쓰딸린동지의 저명한 저서『전련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가 막대한 의의를 가졌다. 이는 맑쓰—레닌주의의 백과사전으로 되는 저명한 작품으로서 그의 출판 十주년을 이달에 쏘베트국가에서와 또는 전세계 근로자들이 광범하게 기념하였다.

쏘련에서 경제학 연구는 절대로 전문적 과학연구소의 법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지도

를 실시하는 행정에서 발전되며 확충되고 있다. 거대한 연구사업은 계획을 작성 지도하며 관리하는 국가기관들이,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는 행정에서와 그의 실행과 초과실행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는 행정에서 진행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과학은 점점더 광범한 대중의 소유로 되며 그들을 경제 발전에 관한 법칙의 지식으로써 무장시키며 그 자체가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중들의 경험으로써 확충되고 있다.

쓰딸린동지가 이미 현대의 극복할수 없는 운동이라고 규정한 쓰따하노브운동은 생산기술을 개선하며 완성시키는 용감한 과학적 창조자들을 나날이 배출하고 있으며 꼴호즈생산의 발전은 많은 꼴호즈 선진인사들과 미추린적 창발자들과 훌륭한 자연개조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전쏘베트동맹 경내(境內)를 통하여 계획이상 축적을 위한 강력한 인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원가를 저하시키며 사회주의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훌륭한 창시자들을 산출하였다.

전동맹(볼쉐위크)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서 진행된 사상 교양사업문제에 관하여서와 철학과 생물학 문제에 관한 당의 결정은 과학자들 앞에 과학연구사업의 사상수준 향상과 과학에서의 철저한 당성원칙의 적용, 맑쓰—레닌적 방법론, 사회주의 건설의 실습과 학리의 긴밀한 련계등 모든 과제들을 매우 날카롭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특별히 경제과학 기관, 우선 전동맹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나 또는 대학의 경제 강좌등이 사회주의 건설 실제의 훌륭한 성과로부터와 당과 정부에서 과학연구사업에 전체로 내세우는 요구로부터 장구한 락후는 절대로 용허할수 없는 일이다.

一、

사회주의적 경제의 법칙성의 연구와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제문제의 연구는 쏘베트 경제 과학의 가장 중요 부문의 하나이다.

一九四一년一월에 정치경제학 교과서 준비와 관련하여 말한 쓰딸린동지의 지시로 정치경제학을 새 단계로 제고시켰으며 경제학자들 앞에 쏘베트경제의 여러가지 문제의 창작적 연구의 넓은 전망을 타개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와 쏘베트 전시경제에 대한 제문제를 서술한 저작 가운데는『조국전쟁 당시의 쏘련의 전시경제』라는 느·아·워즈네쎈쓰끼의 저서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이 저작은 일반적으로 쏘베트 경제에 대하여서와 부분적으로 전시경제에 대하여 말한 쓰딸린동지의 지시를 구체화하여 발긴시킨것으로 되며 경제과학의 창조적 발전사업에서 거대한 진보를 보인것이다.

최근에 와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부분적 문제들이 대하여 서술한 쏘베트 경제문제에 관한 많은 책—소책자 속기강연등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오직 이 가운데서 몇개의 저작만이 연구적 성질을 띠었고 기타 다수 저작들은 모두 학습용 혹은 선전적 의의를 띠었던것이다.

사회주의적 법칙성이 론리적 또는 력사적 관련성에 의하여 서술되어있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계층적 계제(階梯)가 없는 것은 경제 령역에 있어서 경제과학 연구의 거대한 결점이다.

대학교 강령의 기초에 근거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의 체계는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서의 내부적 론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 발전의 력사적 행정을 역시 잘 반영하지 못하였다. 경제학자들의 시야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연구에 대한 방법론 문제가 루락되었다. 정치경제학 교수들은 이 결점을 특별히 날카롭게 감촉하는 바이다. 대학생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맑스의 『자본론』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의 해설을 들을 때에 그들은 심각한 내부의 론리적이며 력사적인 련계를 감각하며 엄격하고 철저한 서술을 감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현하에 존재하는 대학강령에 의하여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과정을 수업할 때에는 이와같은 깊은 내부적 론리와 력사적 련계등을 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한 제문제의 충분치 못한 연구는 쏘련경제의 법칙의 수량에 대한 부질없는 번쇄적 쟁론(煩瑣的爭論)을 초래한다. 여러 저자들의 법칙을 규정한 방식가운데는 저자의 임의의 방임이 많고 튼튼한 방법적 근거가 없다. 마일에 경제학자들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학설로부터 출발하면서 리론적이며 질서정연하게 력사적 발전행정에 해당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수 있었을뿐 그의 법칙을 규정하는 방향에서 이와같은 모든 부질없는 쟁론과 방임(放任)이 없었을것이다.

이는 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방법론제가 지금 이떠한 중대한 역활을 가졌는가 함에 대하여 말하여 주는것이다.

전동맹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 연구소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제문제』에 관한 론문집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론문집도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계통적 교과서로는 조금이라도 리용될수 없다. 최선의 경우에서 이 론문집은 오직 이와같은 교과서 준비를 위한 몇개의 자료로밖에는 제공되지 못한다.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중대한 특성과 자본주의적 경제 앞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기대한 우월성은 쏘베트에서 『인민경제의 발전과 운동의 원천이 계획을 작성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데 있는것이다』(느·워즈네센쓰끼) 이는 쏘베트 경제과학 앞에 여러가지 리론 문제를 제기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 정치와 경제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사회주의 경제 법칙과 경제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식적 지도와 경제적 지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공산주의사회 건설 사업에서 경제의 국가적 지도와 당적 지도의 역활을 원만히 반영하는 등의 문제이다.

비록 그렇다하는 쏘베트 국가의 경제적 역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출판물에 매우 부족하게 반영된다. 경제 연구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비상히 지연되어 一九四九년 상반기에 가야 겨우 출판될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자적 기능은 인민경제의 계획화이다. 쏘베트주권의 몇해동안에 사회주의적 계획화 령역에서 계획화 방법에 관한 매우 귀중한 자료들을 축적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런 모든 자료들의 과학적 종합은 쏘베트국가에서나 또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 그 간부들의 리론적 무장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최근에 와서 사회주의적 계획화 문제에 관한 많은 론

문들과 소책자들이 출판되였다. 전동맹 볼쉐위크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인 고급당학교에서 출판한 『소베트경제의 기초와 인민경제 각분야 지도의 실제』라는 새 과정에 의한 많은 속기 강연등을 반드시 부언 못할 사실로써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강연들에 관한 비고(備考)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즉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성에 관한 리론적 문제들은 그 가운데 서술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이 문제들이 반드시 사회주의 정치경제교정(教程)에 의한 속기강연 중에 반영될것인 까닭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고급당학교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에 관한 한개의 강연도 출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자문을 뽄찌야로부터 삘라따로 덜어보내었다. 계획화 문제에 관하여 발표한 론문들과 소책자들에서의 큰 결점으로 되는것은 그가 계획화 방법 문제를 약하게 반영한 사실이다. 오늘날까지 인민경제 계획화에 대한 론문과 력사의 제문제에 관한 중대한 저서가 없는것이다.

경제연구소에서 경제계획화 력사에 관한 주요작업은 오직 계획화의 가장 초기에 관하여서만 추진되었고 가장 주요한 시기인 수차의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 기간과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와 전후경제 발전기를 겸친 전시기를 통하여서는 그가 저자들로써 보장되지 못하였다.

실제적 계획 실천에 있어서 광범한 사회주의적 재생산에 대하여서와 인민경제의 바란스에 대한 문제와 학리적 연구가 거대한 의의를 가진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도 아직 자기의 연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一九四七년도에 발행한 아·노뜨낀의 저서 『사회주의적 재생산의 리론적 개론』은 커다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이외에도 오유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저서도 역시 근본적 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바이다. 이 저서의 주요 결점은 중대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추상적 번쇄론으로 그에 착수하였음과 그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경솔하게 하였음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문제로부터 탈리된것 등이다.

비씨 제十八차 당대표대회에서 특별한 주의로써 쏘베트 경제간부들이 기업소 경제에 관한 용의(用意)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지시는 특별히 전후 五개년 계획을 四개년에 실행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모쓰크바 공장들의 창의에 의하여 계획이상 축적을 위하여서와 쏘베트국가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가렬한 운동이 발생된 오늘날에 와서 더욱 현실적 의의를 가진것이다.

쏘베트 경제학자들의 앞에는 사회주의적 생산과 분배의 경제적 공간으로 되는 구체를 각방면으로 연구할 과제가 나서고 있다. 그의 효과는 가치법칙의 리용과 관련되어있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독립채산제의 강화 방법을 연구하여 도급제와 로력 보수에 관한 장려금 형태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탐구하여 엄격한 절약을 실행하여 투자금의 효력을 제고하는 등 모든 방법을 탐구할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리론적 연구가 현실히 실제 사업보다 떨어지는것이다.

쏘베트 경제에서 가치법칙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저서 가운데 매우 미약하게 서술되었다. 그러나 경제연구소와 대학경제강좌와 가자들의 모임에서 이 문제의 심의는 거대한 의견차이와 대비되 경제에서 가치의 의의와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방향으로 다름박질하는 그릇된 론술을 폭로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뜨낀의 저서에도 있는 오유인바 그의 테—제에 있어서의 가치보다 사용가치의 우위(

법)에 대한 서술에서 볼수있다) 따라서 가치를 사회주의적 경제의 기본법칙으로 변화하는 방향에서도 역시 같은 사태를 초래하였다. (쓰·골레쓰네브의 저서 『사회주의적 농업 기업 조직』에서 계획은 가치법칙 실현의 무기로써 취급되었다) 토의는 역시 일부 경제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모든 생산방법에 특유한 비력사적 범주로써 가치법칙을 간주하는 벌써 오래전에 비난받은 반(反)맑쓰주의적 개념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것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것은 넓은 토의에서 『가치법칙은 사회주의적 계획화의 무기로 된다』는 문제에 대하여서와 동시에 이 문제의 학리적 연구에 대한 요구가 성숙되었음에 대하여 말하여 주는것이다.

그러나 독립재산제와 재정과 대부 문제 등의 연구는 좀 우량한 상태에 있다. 최근에 와서 많은 저서들을 발간하였는데 그 저서들 가운데는 많은 결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대한 과학적 흥미를 환기하여 간부양성 사업에 많은 방조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역시 이 방면에 있어서도 아직 계획 이상의 축적을 위하여서와 사회주의적 기업소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투쟁의 풍부한 경험을 종합함에 대하여 이를 매우 미약하게 추진시켰다.

우리 학계에 있어서 쏘베트 상업에 관한 문제에도 우리는 매우 적은 주의를 돌리고 있었다.

경제학 방면에 있어서 학술사업의 가장 중대한 결점 가운데 하나로는 쏘베트 기본 경제 과업 해결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주의로부터 점차적으로 공산주의로 과도하는 과정 실시와 관련한 문제들을 고려에 넣어야 될것이다.

더우기 이 문제의 연구는 쏘베트국가에서 경제과학 발전의 기본로선을 가까운 五년간에 반드시 결정할것이다.

가까운 장래의 五년동안에 구체적 과제로써 쏘베트인민들앞에는 공산주의의 생산-기술토대의 창설, 도시와 농촌사이와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사이의 대립성의 폐절, 각자의 요구에 의하여 분배하여 줄만한 시기로의 전환하기 위한 필수품의 대량생산 창설 등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들의 연구는 벌써 선진적 사회주의 산업기업소와 꼴호즈들의 실제에서와 대중의 창조적 활동 가운데서 표현된 그러한 공산주의적 맹아들을 창발적으로 종합하는 기초 위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와 사회주의의 산업과 꼴호즈 농업 등의 성과들은 이런 문제들의 창발적 연구를 위하여서와 학리적 종합을 위하여서 풍부한 자료를 주는것이다. 이 방면에 있어서 쏘베트 경제학자들은 반드시 학리적 활력과 창조적 창발력을 현출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어떤 소책자들과 론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가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우리 상상 가운데 제一한 새로운 모든것을 멸시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로동의 차별청산에 대한 옳지 못한 간략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일과 례로써 브·빠우꼬브의 저서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대립성과 그의 폐절 방법』 一四〇페지를 참고할것) 공산주의의·최고단계로 과도함에 있어서 물질적 리해관계에 대한 역할과 상품화폐의 공간을 과소 평가하는 일이 류행된다.

경제 연구소에서는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제 실시에 있어서 전기화의 역할을 연구함에 의한 사업과 기본 경제적 과업 해결에 있어서 곤난한 생산행정의 기계화하는 방

법과 석탄산업 발전의 방법과 농촌 협동조합의 경제 발전 방법연구 등 사업을 진행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잡지들 가운데 론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부분적으로 『경제 제문제』 잡지 중에도 이런 론문이 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직 공산주의로 넘어감과·관련된 문제의 광범한 창작적 연구의 첫 맹아로 되는것이다. 이 문제들은 반드시 쏘베트 경제학자들의 과학 연구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여야 할것이다.

쏘베트주권의 몇해동안에 경제과학의 거대한 부문화가 발생되었다. 특별히 이는 사회주의 산업과 사회주의 농업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정치경제학과 함께 쏘베트 인민경제의 개별적 부문들을 연구하는 많은 경제학과목들이 생기게 되였다. (산업, 농업, 류통 등) 경제과학의 이러한 부문화는 전문화의 깊은 행정과 분업을 반영하는바 이는 우리 인민경제에서 진행되며 이는 생산력의 급격한 장성을 반영하는것이다. 이는 물론 진보적 현상인것이다.

그러나 부문적 경제학 과정, 조직의, 방침문제 연구는 급격히 장성되는 쏘베트 인민경제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런 제 과목들의 급속한 발전보다 적실히 뒤떨어진다. 교과서들을 일별하면 그의 저작자들에게는 그리 드물지 않게 부문적 경제학 방법과 과목에 대하여서와 사회주의 정치경제학과의 이 과목들간의 경계선에 대한 명백한 관념이 없는것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과목을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할 절실한 필요성이 발생된다.

산업경제와 그의 개별적 부문 경제에 관한 과학서적들의 一九四六―一九四八년간을 통한 개관은 이 방면에서 개별적 문제에 관하여 서술한 그리 크지않은 과학적―일반 소책자가 다수이며 또는 주로 경험적이나 구체적 묘사성을 가지고 편협한 기술적 국한성에 구애되어 생산행정의 경제면을 등한시하는 국부적(局部的)인 전문적 저작이 많았다. 이는 첫차례로 생산조직, 기업소에서의 계획작성, 기술적 정량, 바란스 분석등에 관한 작업에 관계된다.

현실적인 리론문제―당면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의 일반적 법칙성의 전변과 그의 발전의, 특수적 법칙성, 그 부문 내에서와 부문들 간의 비례와 기타 문제들이 보충으로 부문적 경리를 서술한 서적들 중에 우회(迂廻)되었으며 루락되었다.

전문적 잡지(『석탄』, 『철』, 『유색금속』, 『기계건조신보』, 『자동차공업』 기타) 등이 보통으로 경제문제에 관하여는 자소한 주의를 돌리면서 오직 매우 드물게 개괄적, 특성을 가진 기사를 발표하였다. 이는 아직도 관리기관이 생산경제에 관하여 매우 적은 주의를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전 전동맹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산업경제 문제에 관한 저서도 그다지 높지 못한 리론적 수준에 처하여 있었는바 이는 벌써 중앙출판물에 지적되었다.

농촌 경리 방면에 있어 과학연구사업은 그 대부분이 꼴호즈와 농기뜨락도르지정소와 쏩호즈 사업들과 관련되였다. 이 문제들에 관하여 발간된 학술적 또는 대중적 서적들도 그 다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재(題材)들이 현실적 특성을 띠었다. 그러나 이 서적들의 가장 중대한 결점은 그의 낮은 학술적 수준인것이다. 사회주의적 농업경

제에 관한 리론적 문제들은 이 책의 가운데서 다수 다약하게 기술되었으며 이 서적 가운데 렬거한 구체적 자료들은 곧 낡아지게 그 책이 반가치던 모먼트에 가지고 있던 현실성은 벌써 잃어버리고 만다.

사회주의적 농업 기업—조직에 관하여 기술한 여러 저서들 가운데는 (꼴레쓰네브, 까슈꼬, 잘쩨만) 커다란 리론적 오유가 있으며 그 가운데는 자본주의 과학 앞에 굴종하는 비굴성이 로출된다.

사회주의적 농업 경제 방면에서 일하는 쏘베트 경제학자들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기대한 문제를 연구할 긴급한 현실적 과제들이 제기되었다. 례로서 농촌에서 확대된 사회주의적 재생산, 꼴호즈 생산의 미래 발전 계획, 꼴호즈로부터 꼴호즈간에서 로력보수와 그의 조직, 꼴호즈에서 그의 수입의 분배, 차별적 임차료(差別的賃借料), 사회주의로부터 점차적으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꼴호즈의 미래발전의 전망과 그의 길 등 문제들이다.

사회주의 농업경제 문제에 관하여 지금 경제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저작은 대개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서술하려고 한다. 『꼴호즈간에서 로력보수』 『꼴호즈경제에서 농업로력을 공업로력의 일종으로 변화하는 과제의 해결에서 농기뜨라또르 기정소의 역할』 『농촌경리 종합발전의 전망과 총결』 『사회주의 농업경제의 배프와 진준한』 등 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들의 연구는 지연되어 그들 신행한 계획기한은 이그러지고 있다.

경제과학전선의 가장 立란된 부분으로는 경제통계 교문이다. 전동맹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 한 학자 쏘베트 학회의에서 많은 통계일꾼들과 경제학자들의 참석하에서 통계리부에서의 리론적 연구사업의 형편에 관한 문제와 토의는 이 부문에서도 많은 결점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통계리론에서의 리론적 연구사업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와 인민경제계획 작성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이런 쓰베트통계학자들은 (보야르쓰끼, 야쓰뜨렘쓰끼, 노위꼽, 다위돕, 우꼴란니스, 다쓸롭, 넴치노브 기타) 오늘날까지 아직도 부르죠아방법론의 영향에서 풀려나지 못하였다. 이들의 사업작풍속에는 통계학을 맑쓰—레닌주의적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경향과 경제통계학을 수학으로 대용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따라서 일부의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또 다른 옳지못한 경향들이 있다. 이 경향들은 즉 학술적 연구사업 방면에서 통계학을 과소평가하며, 그의 리론적 방법에 관하여 어느정도의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들이다.

아까데미크 브·쓰·넴치노브를 수반으로한 전동맹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 통계부는 자기 주위에 통계학자들을 련합한 과학연구사업에 옳은 방법적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통계부의 사업에는 중대한 과오들이 있다. 이는 첫자례로 쁘·다쓸로브의 저서 『경제결산방법』에 관계되는 것이다. 이 저서의 발간은 그 서적가운데 작자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야의 포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대한 오유를 내포한 까닭에 중지되고 말았다. 아까데미크 넴치노브의 저서들 가운데는 역시 그의 혁시적 마련에서도 중대한 오유가 있다. 이는 또 그의 저서 『농산물과 축산분야의 배포의 범주에 대하여』에서와 동시에 『농업 경리의 통계와 그의 일반적 리론적 요소』라는 저서의 여러장(章) 중에서 표현된것이다.

생물학 모의에서 반동적이며 유심론적인 유전적 염색체의 리론을 옹호하여 진출한 넴치노브의 연설은 물론 통계학 방법론의 기본문제에 있어서 그의 오유의 깊은 근거가 있는것이다. 뜨·드·리쎈꼬가 자기의 결론에서 올바르게 지적하다와같이 이는 부르죠아 통계학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二、

제二차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첨예화와 반동적 제국주의진영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투쟁의 리해관계는 앞으로의 제국주의에 대한 리론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대하여 창발적 연구를 요구하는것이다.

쓰딸린동지의 저서와 몰로또브동지의 보고들과 연설과 스다노브동지의 보고와 수개 공산당 대표회의에서 연설한 말렌꼬브동지의 보고등은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쓰딸린적 리론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대한 레닌—쓰딸린적 학설이 앞으로의 발전을 표현하는것이다.

쏘베트동맹에서는 거대한 선진적 의의와 부분적으로 리론적 의의를 가진 국제 개관에 대한 문제에 관한 소책자와 강연록、론문등을 적지 않게 출판한다. 동시에 최근년에 출판한 자본주의 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문제들에 관한 여러저서들은 커다란 반맑쓰주의적 오유와 악화를 내포하였다. (예·봐르가의 저서 『제二차세계대전의 총화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 르·에벤또브의 저 『영국의 전시경제』, 므·복씨 쯔끼의 저 『제二차、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사업에서의 기술—경제의 변화』, 쓰·위스네브의 저 『제二차세계대전 당시의 자본주의 제국의 산업』, 아·스뻬르트 저 『제二차세계대전 당시 경제계에서 원료와 연료의 변화』 이·뜨렉쩨베르그의 총편집하에 발간된 론문집 『자본주의 제국의 전시 경제와 평화경제에로 그의 전환』, 이·레닌 저 『베르살리로부터 로까르노 까지의 영국 대외정책』, 브·란저 『제一차세계대전으로부터 제二차세계대전까지의 미국』, 느·느·류비모브 박사의 총지도하에서 편집된 『외국 재정제도』 등 및 기타서적들이다.)

이 모든 저서들은 쏘베트 출판물계에서 공정하고 격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비평가들은 이 책들 가운데서 개량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오들을 발견하였다. 이 과오들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반적 공황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무시하고 악화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을 다살시키며 두개의 제도의 투쟁을 무시하며 경제발전에서 부르죠아국가의 결정적 역할에 대하여서와 자본주의 제국가내에서 계획화가 가능하다는데 대한 비맑쓰주의적 론조등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수의 저서는 편집한 기술—경제적 방법으로써 외국경제에 대한 문제를 취급함과 소극적 비정치적이며 부르죠아적 객관론、부르죠아적 저서에 야무 비판 없는 관계를 취하고 부르죠아 과학과 기술앞에 비굴하는 등 과오들을 가졌던것이다. 개량주의적 특성을 가진 과오는 역시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라는 잡지에도 반영되었다.

비록 이 모든 과오들은 출판물들과 경제연구소 여러회의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할찌라도 이런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에 동주리를 틀고 있은 개량주의 자상에 대하여 그를 폭로하기 위한 비판과 투쟁이 아직 완료되었다고 생각할수 없다. 더욱기 이 맑쓰주의적 자조의 수위에 있는

뽜르가 동지와 그의 친우들은 오늘날까지 자기의 과오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으며 좋은 사업으로써 이 과오를 고치는 길에 서려는 자기의 지망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비판에 관한 이와같은 비당적(非黨的) 관계는 그를 재로운 다른 리론적 또는 정치적 과오를 범함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세계경제와 세계정치』 잡지에서 그의 저서에 관한 론의가 있은 후에 출판된 뽜르가동지의 론문이 잘 증명하여 준다。

경제명역에 있어서 과학 연구의 가장 큰 문제로는 인민민주주의제국 정제문제에 관한 리론적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최근 三년간에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대하여 한개의 연구론문도 발표되지 않았나。 인민민주주의 제국 경제문제는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론문들중에 반영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외국의 현대경제에 대하여 서술한 다른 연구 론문중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도 대개 모자적 성질을 띠었고 중요한 과오를 가지고 있다。

쏘베트 출판물에서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하여 뽜르가동지의 과오는 혹평을 받았다。 그 과오와 본질은 인민민주주의의 여러나라 경제체계가 국가 자본주의 요소가 우월성을 가진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일부분으로 결정되었음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동시에 여러 론문에서는 인민민주제국내에서 달성된 한갖 성과들만이 일방적으로 서술되었고 그에 수반한 난관과 계급적 모순、농민들 가운데서의 그들의 분해과정、자본주의 요소의 존재와 계급투쟁의 첨예화등에 대하여는 침묵하였으며 이 국가들이 공산주의로 향하여 매진하여 나아가는 그의 발전에서 로동계급의 명도권의 결정적 역할、과 그의 선봉적 역활이 무시되었다。 이 론문의 작자들은 인민민주주의 제국이 오직 쏘베트국가의 지나온 경험에 기본하여 그의 방조하에서만 사회주의로 도달할수 있으며 맑쓰—레닌주의의 기초 위에서만 사회주의를 건설할수있는 그런 문제들을 간과(看過)하였다。

경제연구소 내에는 그를 개편한 이후 인민 민주주의제국의 경제를 연구함에 관한 부문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아직 충분한 간부로 보장되지 못하고、아직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학술적 연구에서 진정한 중대 문제는 이전과 같이 비판에 관한 주의부족과 현대 부르죠아 개량주의적 리론 폭로에 관한 관심의 부족이다。 부르죠아 학리에 관하여 이미 잡지에 발표된 모든 론문(불류민、뜨라펜베르그、모보소워츠등의 론문)은 반동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주력량의 정치적투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립된 학자의 범재와 고립성으로 침투되었다。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전문 서술이나 또 론문집이 아직 작성되지 못하였다。 비록 그러나 쏘련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를 반대하여 진출하는 반동적 제국주의 세력의 첨예한 투쟁조건하에서 현대 부르죠아 개량주의적 리론의 폭로는 목하 정세의 조건하에서 가장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전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와 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어떤 이전 작품、부분적으로 불류민동지의 론문은 현대 영국의 경제사상을 진술한 서적으로서 근본적 수정을 요하게 되므로 그의 출판은 또한 지연되고있다。

경제연구소는 一九四八년 계획중에 현대 부르죠아 개량주

의적 리론을 평론한 삼개의 론문집을 발행하기로 예견하였다。 이는 즉 미국제국주의의 경제학 리론의 비판과 폭로、페이브르당의 경제적 리론급 실제의 비판과 폭로、구라파의 경제적 급 정치적 예속하의 계급인 마샬안의 비판과 폭로 등이다。 경제연구소는 이 론문집 출판을 금년도 내로 보장할 과업을 자기앞에 내세운다。

학리적 론문집이나 또는 정기적 출판물 가운데는 로동계급의 형편에 대한 문제와 현대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로동운동에 대한 문제에 퍽 부족한 주의를 돌렸다。 최근 三년동안에 이 문제에 관하여 서술한 책은 하나도 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二차세계대전의 결과에 로동계급의 혁명적 열성이 퍽 커다란 범위로 장성되였다。 로동계급은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반동과 제국주의와 그의 주구인 우익 사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주주의적 력량의 선봉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제연구소는 로동계급의 형편 연구에 관한 문제와 자본주의、제국에서 로동운동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개별적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하는 간부들로써 그루빠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 그루빠도 오직 一九四九년도에라야 겨우 저작을 줄수있는 四명의 인사로 편성되었다。

제二차 세계대전후 서구라파 여러나라 농촌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고 농촌의 [illegible]과 그로 인하여 소중농의 파산과 거대한 지주와 금융자본가들에게 파산된 그들의 예속화 행정을 급속하게 하였다。 미국은 자기 나라대외무역가들의 리해관계를 위하여 각종 방법으로 서구라파의 농촌경제 복구를 제지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수백만의 소(小) 페르메르(농장주)들이 미증유의 속도로 파산 행정에 처하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쏘베트 경제과학 앞에 자본주의적 농촌경제의 전후 발전에 관한 사회—경제문제와 예속된、피착취 농민대중 가운데서 발생되는 행정과 동시에 자본주의 제국내에서의 농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모든 문제의 연구과제를 제기한다。

비록 그렇지마는 연구적 작품에서와 잡지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서술은 우리는 얻어볼수없다。 잡지 가운데 출판되는 론문들은 보통으로 보도적 특색을 띠었다。

최근에 와서 아・아・뜨루소브의 『목얼에서의 농업관계』와、아・스네예르손의 저 『불란서에서의 농업문제』등 二개의 연구론문이 겨우 발표되었다。

자본주의 세계 농업문제에 대하여 계획적 또는 계단적 연구가 없었다。 이전 세계경제와 세계정치 연구소 계획가운데 여러햇동안 편입되어있던 농업공황 연구사업도 파탄되었다。

경제연구소는 아직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 토지개혁 연구소 사업에만 국한할뿐이다。

현대 전후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민족식민지문제가 결정적 의의를 가졌다。 최근에 와서 민족—식민지문제에 관한 문제와 정치경제개관에 대하여 적지않은 론문、강연등이 발표되었다。

비록 그렇지마는 이 지적한 서적 가운데는 전후시기에 있어서 식민지 체계의 공황의 심각화에 관하여 서술한 종합적 리론 작품이 없다。

이전에 있던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에서나 또는 (대

평양 연구소에서나 또는 어떠어든지 식민지 체제의 공황의 강화에 대하여서와 그의 특성에 대한 해석을 줄수있는 전문적 론술 하나도 발표하지 못하였다。경제연구소는 一九四八년도 사업계획에는 식민지 체제와 관련된 문제의，연구를 예견하였다。•레로찌『二차 세계대전이후 민족―식민지문제』와 동시에 중국과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서술한 전문적 저서등이다。이 작품의 완료 기간은 一九四九년도이다。그 외에도『식민지 경제에 대한 제二차세계대전의 영향』이라는 브•와셀리네바의 전문적 저작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도 역시 금년(一九四八년) 말에 가서 출판하게로 예정하였다。

외국 경제연구방면에서 거대한 결점은 맑쓰―레닌주의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부르죠아 통계학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함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정항(情況)을 계속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사업이 없는일이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사전과 비판적으로 검열을 거쳐 수정을 받게된 통계학 자료들이 발표되었을수 있는 년감(年鑑) 등이 없는일이 과학연구 사업과 실제사업에 부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제연구소내에 경기연구부(景氣研究部)가 있는데 그는 지금 경기시보를『경제 제문제』잡지의 부록으로 출판할것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부도 자기 앞에 나서는 모든 과제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여 기능있는 간부로 보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三、

최근년에 와서 경제학자들은 인민경제사에 관한 문제와 경제사상사에 관한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그렇지마는 이 문제들에 관한 서적들은 퍽 빈약하다。오늘날까지 외국인민경제에 관한 략사가 없다。쏘련과학 아까데미야 정희원 므•이•락쎈교가 저술한 로씨야 인민경제사에 관한 저서들에 대하여서는 그 저서들 가운데 결점과 오유가 있음과 동시에 그 책들의 폐지수(頁數)가 과대(膨大)함으로 인하여 그를 교과서로 리용하기는 곤난하다。

다우기 로씨야 경제사 문제에 관한 연구―특히 가맹공화국들의 경제사 문제에 관한 연구가 더욱 좋지못한 처지에 있다。

버쩌 위대한 조국전쟁당시에 경제연구소에서 저술을 시작한 로씨야 경제사상사의 집권(集卷) 준비는。그의 첫권에서 지금 중지되고있다。철학 토의에 기준하여 그 가운데서 많은 과오와 결점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한두번만 그를 개정하지 않았나。경제연구소는 제二권 준비에 있어서 또 몹시 지연하고 있다。

브•쓰떼인교수의 저서『十九―二十세기의 로씨야 사회경제사상 발전사』는 레닌그라드 국립종합대학에서 출판하였는바 이 책 가운데도 로씨야 경제사상발전에 관한 옳지못한 반(反)맑쓰주의적 개념을 내포하고 경제발전으로부터 계급투쟁을 분리시키는 리상적 견해로써 경제사상사의 제 문제를 로출하고 있다。

저자는 로씨야 경제사상 발전에 있어서 쓰뻬란쓰크와 모르드비노브의 역활을 과대평가하였다。쏠라반과를 그는 게르쩬과 체르늬셉쓰끼의 선행자로 표현하고 민주혁명의 적으로 부터 그의 동맹자―사회주의자―공상자、푸리에주의자로 그들을 변화하였다。」

이와동시에 저자는 로씨야 경제사상 발전에 있어서 라지쎄브와 十二월당의 역활과 의의를 과소 평가하였고 악변하였다。다른 방면에서 그는 체르늬셉쓰끼를 혁명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활을 리해하는데까지 이르는 맑쓰주의자처럼 표현하였나。특별히 브•쓰떼인의 저서의 경제사상사중에서 레닌―쓰딸린적 시대묘사를 서술한 부분은 절대 용허할수 없는 악변을 내포하고 있다。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와 한국가내에서 사회주의 건설문제에 대하여 저자는•그를 루락 우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악화하였다。

레닌의 역활을 경제사상 발전에 있어서 오직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문제 연구에만 국한하였고 쓰딸린동지의 역활을 오직 사회주의 문제연구에만 국한하였다。

레닌그라드 국립종합대학이 이와같은 반(反) 맑쓰주의적 저서를 어떻게 출판할수 있었는지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만일에 혁명전 로씨야의 경제사상자와 인민경제사에 관한 진정한 연구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는 쏘베트 시대의 인민경제자 문제에 관하여서와 경제사상에 관하여 특별히 레닌―쓰딸린적 시대에서와 경제과학 발전에 있어서 주로 선전적 특성을 가진 론문들만 있는것이다。

四、

대학들에서 경제학과 교수에 있어 최근년에 이르러 물론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그러나 경제령역에 있어서 과학연구사업의 불충분한 상태는 경제적 과목을 교수함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다。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학 교수에 있어서는 그가 매우 자주 추상적인데서와 현대와의 무 관련성에서 곤난에 봉착하게된다。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과 정치경제의 범주들은 지난 세기에 관계되는 사실과 자료들로써 가득히 해명되어있다。현대 제국주의와 전반적 공황에 관한 문제의 불충분한 연구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서적이든지 없는 형편은 정치경제학을 가르침에 막대한 곤난을 주고있다。

특별히 정치경제에 관한 교과서가 없는것을 절실하게 느끼게된다。자본주의전 사회구조와 자본주의에 관하여서는 교과서가 없는것을 전동맹 볼쉐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인 고급당학교 속기 강연으로써 보충한다。그러나 이 강연들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공황의 묘사를 내포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학 개론은 대학들에서 다수경우에 있어서 그다지 높지못한 수준에서 필기식으로 교수하게된다。그 원인은 교과서가 없고 따라서 정치 경제학에 관한 교과서 준비와 관련하여 말씀한 쓰딸린동지의「지시에 의하여 사회주의 정치 경제문제를 서술한 서적들이 매우 부족한 까닭이다。

정치 경제학을 교수함에 있어서 약점으로서는 현대 부르죠아 학설에 대한 비판이다。해당한 서적을 가지지 못하고 교수들은 순전히 맑쓰와 엥겔쓰 시대의 부르죠아 경제학자들을 비평함으로써 국한될뿐이다。

정치 경제자 교수에 있어서 전동맹 볼쉐위크 공산당 중앙위원회 지시와 철학자 개론에 관한 아•아•쓰다노브의 저시에 충분한 반영을 오늘날 까지 보지못하고 있다。정치 경제학에서 레닌―쓰딸린 시대가 퍽 미약하게 서술되어 있다。」

여러방면에서 교과서들이 없는것과 각부문 경제에 관한 일반적 저작과 교과서의 부족도 역시 대학들에서 이와같은 교과목을 교수함에 막대한 곤난을 주고있다。

경제과목들을 대학에서 교수함에 있어서 지적한 결점은 그 대학들 가운데서 과학연구사업의 약한 형편으로써 많이 규정된다。물론 최근년에 와서 고등교육성과 대학 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 많은 주의를 돌렸지마는 아직 오늘날까지도 이 사업에서 커다란 결점이 제외되지 않았다。비록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계획이 작성되지마는 그는 드물게 실천에 옮기어진다。만일에 대학에서 어떤 과학연구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는 주로 학위론문 준비형태로나 간혹 론문집이나 학자문집등을 준비하는것뿐이다。

최근년에 와서 적지않은 수의 강사—경제가들이 학자론문이나 혹은 박사론문을 발표하였다。그러나 이 학위론문들 가운데서 극 소수가 겨우 출판되였다。더우기 어떤 저작자들은 『들여뜰는 평론가』들에게 자기 론문을 제공하면서 그를 출판하기에 노력하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과연 기괴한 현상을 보게된다。학위론문 발표는 출판사업을 방해한다。원칙적으로 반드시 이와 반대적 현상을 가져야 될것이 아닌가?

이제 학자들 문집에 관하여 몇마디 말하더면 다수경우에 있어서 그는 개인적 저술의 어떤 일반시장의 아무련 따이 없는 론문집으로 되는것이다。(모쓰크비 국립종합대학 정치경제강좌의 저술、레닌그라드 재정 경제대학、계획단과대학、레닌그라드 종합대학 경제 학부등의 정치 경제강좌의 저서등)

五、

경제령역에 있어서 과학연구사업의 불충분한 형편과 그의 모든 결점의 근본원인들은 다음에 서술하는 조건들이다。

一、일부 경제학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있어서 볼쉐위크적 당성의 전투적 원칙을 망각하거나 또는 잘 터해하지 못하는것

二、과학연구사업이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로 부터의 분리가 아직까지도 숙청되지못하고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강좌들이 공장—제조소—꼴호즈—농기—뜨락또르정소—쏩호즈—들과 또는 五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실행하기 위한 대중적 사회주의 경쟁과 쓰따하노브운동과의 불충분한 련락과 계획이상 축적을 위한 투쟁과의 미약한 련락을 가지고 있는 등이며

三、우리조국내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실제에서 발생되는 재 문제들을 제기함에 학리적 진취성(進取性)의 부족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비판과 자아비판을 미약하게 전개함과 창발적 토의가 없는등이다。

재문제의 제기와 연구에 있어서 과오를 범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공포심은 많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연구사업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행정으로 부터 발생되는 모순을 해석하는 일에서 그들을 물러서게함에 이르게하며 과학연구사업을 다 준비된 결정을 되풀이함에 이르게 하거나。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경제문제에 관한 진정한 과학연구사업을 회피하게 하고 선전적 론문이나 소책자 간행으로써 국한되게 한다。그리고 비판과 자아비판은 의례히 경제연구소나 경제강좌에서 일하는 편협한 층의 간부들에게만 국한되었다。최근년에 와서 경제학

자들가운데、광범한 토의를 받은것은 오직 二개의 저서뿐이다。아까데미크 예·봐르가의 저『제二차세계대전의 총화에서 자본주의경제계의 변화』와 아·노뜨낀의 저『사회주의 재생산 개론』등이다。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의 원칙적 문제에 관한 소책자와 론문등은 오늘날까지 넓은 토의의 대상물로 되지않았음으로 이는 결국 그의 직접 작자의 자체와 경제학자들의 넓은 대중의 창발력의 장성을 정지하게 되었다。

四、경제학연구사업의 리론적 수준이 높지못한 원인의 하나는 과학연구자들이 매우 약하게 방법론을 소유한데 있다。특히 부문경제 방면에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이 더 그러하다。이런 현상은 경제적 법칙을 리해함에 있어서 착란(錯亂)에 이르게하며 법칙을 경제적 실제적 실정의 현장과 혼란케함에 이르게하며 정치경제부문과 경제적으로 개별적 부문들의 경계를 분간하지 못함에 이르게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든 관련성과 경향들을 각 방면으로 연구함을 요하는 통계적 자료와 구체적 자료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해석의 방법론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였다。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의 미약한 소유는 현대 자본주의적 정치와、경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개량주의적 성질을 가진 방향을 용허하게된 중대한 오유를 범하게한 원인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五、과학연구사업의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 과학연구자들은 쏘베트경제에 관한 전문가와 외국 경제에 관한 전문가들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과 그들 사이에 동지적 협조가 없는 일은 적지않은 해독을 가져왔다。결과에 있어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자기의 연구사업에서 미국을 수위로한 반동적 제국주의 진영을 반대하여 쏘베트동맹을 수위로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투쟁의 리해관계와 장성되는 사회주의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다른 방면에서 쏘베트경제 전문가들은 자기의 연구사업에서 사회주의적、경제체계가 자본주의 경제체계 앞에서 얼마나 우월함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착안하지 않았다。

六、경제문제에 관한 과학연구사업의 약점은 동시에 역시 과학연구사업에 젊은 기능있는 경제학자 일군들을 충분하게 등용하지 못하였음과 그들을 양정하는、사업에 있어서 완전하게 연구생을 선택하지 못하였던 거대한 결점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여러햇동안에 현대 자본주의 연구 문제에 대하여서는 소수의 낡은 일군들의 독점권이 조성되었었다。이 독점권은 새 간부들을 등용함에 방해되였다。이는 그들의 범하고 있는 과오에 관하여 호상 용서하며 또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까닭이다。그리하여 이 사태는 이전 세계경제와 세계정치 연구소내 사업에서 그의 결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되었던것이다。

七、경제방면에서 과학연구사업의 불충분한 원인의 하나로는 중앙연구기관이 부분적으로 경제연구소가 가맹공화국이나 또는 주(州)의 경제연구기관으로 부터、분리 되였으며 경제기관의、과학연구사업에、있어서와 대학경제강좌 사업에 있어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조정이 없었으며 지방일꾼들을 인입하여 그들과 함께 과학연구 사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과학연구사업에 관한 회의등이 없었던것이다。

六、

경제령역에 있어서 이상에 지적한 과학연구사업의 해적그로부터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의 과제가 나서게 된다.

경제연구소는 이전 세계경제와 세계정치 연구소와 이전 경제연구소의 두개의 연구소를 련합한 기초위에서 쏘베트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적—조직 지도하에 당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一九四七년말에 쏘베트동맹 과학아까데미야 계통내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조직되였다. 이 조직적 개편을 진행한 결과에 사회주의적 경제의 당면한 리론적 문제연구에 관한 전환이 실시되였고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독립채산제, 임금, 가치형성, 대부) 쏘베트동맹에서의 기본경제과업의 해결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향하여 점차적으로 과도하는 과업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획가운데 편입되였다. (농업협동조합발전의 연구, 공산주의에로의 과도를 실현함에 있어서 전기화의 역할등의 연구)

경제연구소에 인민민주주의 제국 경제를 연구하는 부문이 조직되였다.

자본주의경제에 관한 제문제를 연구하는 방면에 있어서도 연구소의 모든 제목 방향들이 변동되였다. 이 제목들은 퍽 당면적 특성을 가지게 되였다、연구소의 계획가운데는 종합적 리론연구사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같은 작품에는 반드시 부르죠아 개량주의학설등을 평론한 론문집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전반적 공황에 관한 제문제에 관하여 서술한 론문집과 전문적 론문들을 타산하여야 되며 현대 로동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관하여 서술한 문제집등을 반드시 타산하여야 될것이다.

경제연구소는 이전에 있던 경제연구소와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연구소로부터 유전으로 받게된 모든 원고들을 비관적으로 평론하는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원고의 일부분은 삭제되고 나머지 부문은 근본적으로 개정되였다.

이러한 심사의 결과에 八개의 론문은 출판될것이고 八개의 부문은 수정이후에 금년내로 출판될것이며 나머지 일부는 근일 발행될것이다. 이 가운데서 상당한 론문으로는 트·멘델리존의 저『十九세기의 공황과 주기(周期)』를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연구소는 과학연구사업의 사상적 내용과 리론적、수준에 관한 요구를 제고하였다.

금년도에 연구소는 학자 쏘베트에서 과학계를 벌리 망라한 토의를 조직하였다. 그 문제들은

一、과거의 연구사업에서의 오유 및 결점과 연구소의 과학연구사업의 방향

二、통계문제에서의 리론사업의 결점과 그의 개선에 대한 대책

三、아까데미크 뜨라첸베르그의 총 편집하에『자본주의제국의 전시 경제와 그의 평화적 경제에로의 전환』에 대한 론문집 토의

四、자본주의 전반적 공황의 첨예화에 대한 스네예므촌동지의 보고

五、노뜨낀동지의 저서『사회주의적 재생산 개론』등이다. 연구소는『미국에서 경제공황의 기숙 조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의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연구소는 자기와 사업에서 아직도 거대한 결점들을 퇴치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점으로는 연구소 각부문 일군들이 전체로 연구사업의 계획을 제때에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다.

一九四八년도에 반드시 서술하여야될 二十六개의 제목가운데서 十월一일에 八명의 저자가 작품을 겨우 제출하였으며 一九四八년 말까지 저자들은 겨우 八개의 작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기타 十개의 작품은 一九四八년도에 모두 완료하지 못할것이다. 동시에 제출한 작품들의 질은 아직 검열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으로써 부석적 평가를 아직 받지못하였다.

연구소 각부문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점이 있다.

각 부문회의에서는 학술연구 토의가 적게 진행되며 비판과, 자아비판이 불충분하게 전개되였으며 부문과 그의 지도자들은 과학자들의 계획 실행을 완전히 실행하기위한 검열과 그의 과학연구 사업지도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수의 부문들은 쏘베트동맹국가계획위원회의 해당한 부문들과 관련되지 않았고 대학교수、과학자、경제간부등 열성자들을 자기주위에 결속하지 못하였다.

여러 부문들에는 과학적 기술간부가 퍽 약하게 편성되였다. 이런 부문들은 대개로 사회주의 정치경제부、농업부、통계부、인민민주주의국가부、브리텐제국부、경기부(景氣部)등이다. 농업경제부에는 장구한 시기동안 지도자가 없다. 동시에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전반적 공황에 대한 연구부와 기타 다른 부문들도 역시 간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통계부가 불충분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이 부문사업에서、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함에 대하여 증명하여주는 중대한 과오들을 범하였다.

연구원과 학사원사업에 있어서도 그의 얼마마한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퍽 중대한 결점들이 있다. 많은 학위론문가운데는 아직 력사적 비중이 더 많고 목하 정세를 론한 비중은 퍽 적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과학연구 지도자가 연구생들의 작업의 계통적 지도를 그들에게 보장하여주지 못하였다. 연구생의 대다수가 지정한 기간내에 학위론문 준비를 완전하지 못하였고 연구생들은 연구소부문들과 련락이 충분하지 못하다.

잡지『경제 제문제』도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잡지 가운데는 리론적、론문이 적게실리고 부르죠아 개량주의적 학설에 관한 비판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다. 잡지의 주위에 광범한 열성적 필자들이 결속되지 못하였고 지방으로부터 일군들이 인입되지 못하였다. 편집부는 오늘날까지 아직도 제때에 잡지 발행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제 연구소가 자기의 계획을 충분히 실행하지못하는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ㄱ、각부문 지도자들과 지도부로부터 자기일군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충분히 지도하지 못하고 그를 완전하게 검열하지 못한일

ㄴ、과학연구사업에 새로 자라나는 간부들을 충분하게 인입하지 못하였음으로 여러 예견한 제목들에 대한 작자를 보장하여주지 못한것

ㄷ、연구소의、다수 간부들에게 학술연구사업에 손해되게까지 직누를、겸임시킴으로써 그들을 연구사업으로 부터 인출(引出)한것

ㄹ、연구소나 또는 그의 부문들에게 있어서 기업소들과 또는 열서적 경제학자들과의 정상적 련락이 없는것

경제연구소의 一九四八년도 계획중에 있는 제목 연구사업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오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전 남은 작품들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그의 계획실행에 많은 장애를 주었다。

七、

일반적으로 경제학 방면에서와 부분적으로 경제연구소 사업 방면에서 위에 이미 지적한 학술연구사업의 결점들을 제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실시함이 꼭 필요하다。

一、쏘베트경제방면에 있어서 학술 연구사업의 중심적 초점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적 종합의 기초위에서 사회주의경제의 법칙성에 관한 창발적 연구사업이 반드시 제기되어야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관한 지식으로써 간부들을 무장하여 그들이 실천에서 이 법칙을 리용할줄 아는 사업이 역시 제기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쏘베트경제가들이 반드시 기억할것은 『아직 자본주의 포위에 있을때 까지는 화약을 말리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느·워즈네센쓰끼)이는 위대한 조국전쟁의 과정을 종합하는 기초위에서 앞으로의 전시경제의 특수한 합법칙성을 연구할 필요를 더욱 환기하는 것이다。

이 과제들의 해결은 쏘베트경제연구에 관하여 추상적—변쇄(煩瑣)론을 극복하고 실제와 관련된 가장 유효한 형태의 설정을 요구하고있다。(기업소와 꼴호즈들의 경제연구 사업과 농업문제에 관한 학술—생산회의에 참가、학술연구기관과 대학등의 생산기업소에 대한 방조의 설정등)

경제적 일군들도 반드시 학술문제의 연구、학술연구사업의 평론과 토론、토론참가등에 인입되어야 한다。다른 방면에서 반드시 편협한 경험론을 극복하여야 하나니 그는 즉 경제적 분석과 리론 종합을 보충적 묘사나 혹은 사실의 수립으로써 대용하는 것을 극복함을 말하는것이다。

二、외국경제를 연구하는 방면에 있어서 쏘베트경제학자들은 현대 자본주의를 연구함에서 개량주의적、자조와 객관정、비 정치적、편협한 기술주의등 제 사조들과 강력한 투쟁을 학술연구사업에서 진행하면서 반드시 인민민주주의제국의 경제문제와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전반적 공황、두 체계의 투쟁、부르죠아 개량주의학설의 비판과 폭로등 재문제에 관하여 연구할 과제를 주요한 중심적 초점으로 제기하여야한다。

三、경제방면에서 학술연구사업의 락후를 퇴치할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것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철저하게 당적 원칙을 실시하며、쏘베트경제학자들의 자업에서 각종 부르죠아 자장의 현출과 견결한 투쟁을 진행하며、부르죠아과학과 기술앞에서 비굴함과 투쟁하는 이러한 기초위에서 학술연구소、대학경제강좌、각종 출판물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쏘베트경제와 외국경제의 재 문제들의 창발적 연구와 활발한 제기를 그 창작자들에게 동무적 비판으로써 방조하면서 반드시 각 방면으로 장려하여야 할것이다。

四、경제방면에 있어서 학술연구사업을 활기있게 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학술연구기관에서나 대학강좌에서나 또는 경제잡지의 페지에서 경제과학의 가장 적게 연구된 문제에 관하여 광범한 창발적 토의들 조직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쏘베트동맹 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 학자 쏘베트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일을 실천하여야 할것이다。중앙과 지방、각 생산기업소등에서 일하는 경제가들의 광범한 적극분자들이 참가하여야된다。이 소집은 쏘베트경제와 외국경제문제에 관한 가장 중대한 학술연구 론문이나 학술연구사업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서와 경제방면에서 각종 학술연구기관과 경제강좌들 간에 학술연구사업을 조정하기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다。반드시 지방으로부터 중앙 학술연구기관 학술사업에 경제학자들을 인입시킬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五、경제방면에서 학술연구사업의 리론적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반드시 경제가 간부들의 기능상과 그들의 맑쓰—레닌주의적 방법론과 그를 경제적 현장연구에 리용할줄아는 지식소유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이는 반드시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저작의 개별적 연구와 리론적 토론회의 조직과 맑쓰—레닌주의 대학에 경제학자들을 광범하게 망라하는등 방법으로써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경제학자들의 기능향상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는 학자와 박사의 학위 론문준비가 되는것이다。고등교육성은 반드시 과학 연구자들과 강사들에게 학위론문 서술에 있어서 특히、정세에 관한 문제를 선택함에 경제연구소와 대학의 중요 경제강좌들을 인입시킴과 함께 효력있는 방조와 그의 지도를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전동맹 볼쉐위크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과학 아까데미야에 대한 결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구원을 경유함으로써 과학일군들의 간부양성 재조직에 관한 계책의 체계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할것이다。

六、잡지『경제 제문제』의 사업에서 결점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열성적 필자들을 증가하는 대책을 채택하여야 이 잡지페지에서 사회주의와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시급한 리론문제의 제기와 그의 토론을 반드시 보장하며、제때에 잡지가 발간되게하며、강사와 선전자들에게 방조로써 계속적으로 강연과 평론등을 실으며 잡지의 사업을 토의하기 위하여 열성적 필자들과 독자들의 회기적 회합을 가져야할것이다。

八、

경제학자까지 참가한 학자 쏘베트확대회의의 주의를 환기한 경제연구소 一九四九년 학술연구사업계획은 경제방면에서 학술연구사업의 형편과 과제를 해석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작성되었다。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의 중심제목으로 연구소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에 관한 계통적 개론을 두권으로 저작할것을 제의하는 바이다。一九四九년도 계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의 경제적 공간(槓杆) 문제인것이다。즉 독립채산제、가치형성、임금、문제이다。계획가운데는 쏘베트동맹의 근본적 경제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과 그리고、자본주의로부터 점차적으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실천하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편입되었다。례로써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전환의 실현에서 전기화의 역활、중(重)공사행정의 기계화의 방법、쏘베트동맹의 기본적 경제과업 해결에 있어서 석탄산업의 발전등 문제이다。

사회주의 농업연구방면에 있어서 계획에 한 문제만 편입

되었다. 그는 즉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농촌집단경제 발전의 길』이 라는 제목이다. 연구소의 제목은 역시 쏘베트동맹의 기본적 경제과업의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구역들의 경제연구들을 예견하였다.

一九四九년 계획은 사회주의적 공업화 력사의 연구와 선철산업의, 연구와 로씨야 경제사상연구 사업의 계속을 예견하였다.

연구소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경제의 두개 문제의 연구를 예산하였다. 그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경제의 사회주의적 변혁의 방법과 이 국가들에서의 토지개혁의 방법이다.

자본주의제국 경제방면에 있어서 연구소는 자기의 학술연구사업의 중심으로 현대 제국주의의 연구와 제二차세계대전후 시기에 자본주의의 전반적 공황의 첨예화에 대한 문제들의 연구사업을 제기하였다. 이는 즉 현대 자본주의의 부패와 기생성문제, 독점자본주의 시기의 경제공황문제, 로동운동과 로동계급의 형편에 관한 문제, 미제국주의문제, 영국의 공황문제, 제二차세계대전이후 식민지체계의 공황 등 문제와 동시에 현대 부르조아 개량주의적 학설에 관한 광범한 비판 등 문제들이다.

경제연구소 一九四九년계획의 기본특성은 이러하다.

× × ×

경제학 연구방면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로 부터와 당과 정부의 요구로부터 학술연구사업의, 더 용허할수 없이 절연된 락후는 반드시 퇴치될것이다. 그러나 생산기업소와 공[illegible]경제연구사업 방면에서 리론연구사업에 전체경제연구소를 과 대학경제 강좌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부문적 과학연구소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사업을 강력히 전개하며 경제가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와 경제일군 실제자들 사이에서 동무적 협조를 조직하는 조건에서만이 락후를 퇴치하는 이 과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으로부터 학술연구사업의 락후를 급속히 퇴치하는것과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실천을 방조하는 우리의 간부들을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의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선진적 맑쓰—레닌주의적 경제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중요한 경제학 작품을 창조하는 일은 쏘베트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사업으로 되는것이다.

크·브·오쓰뜨로위쨔노브의 결론

경제연구소 학자 쏘베트 확대회의는 경제학 연구방면에 있어서 학술 연구사업의 결점을 퇴치하는 사업에 물론 적지않은 리익을 가져올 것이다. 토론중에서 각개 토론자는 수많은 중요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회의 진행의 결과에 우리는 우리 과학연구사업 향상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채택할것이다.

토론가운데서 어떤 동지들은 쏘베트의 과학연구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올바르게 말하였으며 특히 대학들이 과학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지적하였다.

물론 우리 사업에 있어서 얼마의 성과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잡지와 신문가운데는 쏘베트동맹 경제와 외국 경제에 관한 문제의 아주 귀중한 론문들이 게재되었으며 우리 출판계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소책자들과 큰 책들이 많이 발간되었다. 최근에 와서 과학 연구사업이 각 경제 대학들에서나 또는 경제강좌들에서 활발화

하여 가는것은 론쟁할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경제대학들과 강좌들은 생산기업소들이나 또는 꼴호즈들과 련락하에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에와 계획 이상의 축적을 위한 투쟁에 협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리론적 결론과 종합을 위한 귀중한 자료들을 여기에서 얻게된다. 그러나 대

이 모든 성과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경제 연구소나 대학강좌의 경제과학연구기관이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으로부터와 그들의 앞에 당과 정부가 전제(前提)로 내 세우는 요구조건으로 부터 그가 몹시 떨어진다는 사실만은 조금도 엄폐하지 못하며 또한 그 사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런고로 보고가운데 의식적으로 주요한 주의를 우리의 과학연구사업에 있어서의 결점에만 집중하였던것이다.

이제 여러동지들의 토론에로 넘어가서 개별적으로 그를 토의하여 보자.

빨리제브동지는 수다한 옳고 흥미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의 토론 가운데 몇가지 론조는 시인할수 없는것이다. 빨리제브동지나 또는 그와 함께 알라흐베르잔, 쏘로낀 기타 여러동지들이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우리의 과학연구사업의 중심문제로 하여야 된다고 지적하는것은 과연 옳은것이다. 그러나 현시기에 있어서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륜곽과 묘사가 반드시 중심문제로 되어야 된다는 론조는 시인할수 없는것이다.

빨리제브동지의 이 제의의 뒤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는것이다. 그것은 즉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 최고 단계로 이행하는 법칙적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취급 문제인 것이다.

빨리제브동지는 많은 자기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법칙성을 우리는 오직 공산주의 최고단계 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리해할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로부터 공산주의의 기본적 특성와 연구를 중심과제로써 경제학자들 앞에 제기하는 그의 제의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론적 취급은 옳지못한것이며 또한 작자의 의사에 불관하고 그를 공상적 사회주의의 길로 인입하는 것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와 공상적 공산주의의 원칙적 차이점은 과학적 공산주의가 미래의 사회에 대하여 현대 경제적 실정에서 표현되는 모든 경향을 깊이 연구하는 기초위에서 종결적 예측을 확립하는 것이다. 특히 그런 까닭에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 맑쓰와 엥겔쓰가 공상적 사회주의자에 대립하여 자기들의 앞에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구체적 묘사를 줄 과제를 내세우지 않았고 오직 그의 가장 일반적인 묘사에만 국한하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완성적 과제 해결에 들어서서 점차적으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최고계단으로 과도하기는 시기에 처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미래사회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는것이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 일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로 향하는 우리의 운동의 길과 그의 법칙들의 연구에 [illegible]하여 방향을 정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가 반드시 어떤 사회로 되겠는가 하는 예상에 몰두하게 한다면 이는 과연 옳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종류의 연구와 장면한 일이 있었다. 어떤 연구자은 이러한 기초로써 지침을 삼으면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목표와 방법을 서술한 자기의 학위론문의 중심문제를 공산주의의 최고계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일로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실정은 아직 우리에게 미래 공산주의 사회 구조의 모든 세부분을 규정할 가능을 주지않는것만큼 저자는 공상의 방도로써 다름박질하게 되였다. 자기의 학위론문에서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는 꼴호즈를 국가화하는 해목적 자장을 구정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론증에 의한다면 국가화를 반드시 무슨 까닭인지 쓰웨르들롭쓰크 주(州)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전쏘베트동맹 경내에 보급시키자고 하였다. 저자는 정밀하게 년년이 또는 구역별에 의한 꼴호즈들의 국가화의 행정에 대한 보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는 모든 부문에서 미래의 공산주의적 농촌을 표현하려고 의도하였다. 저자의 의견에 의하면 가정마다 정원을 구비한 주택을 가질것이며 반드시 원정(園亭)이 있어야하며 요구되는 식료품은 특수한 과이푸에 의하여 제공하는등이다. 과학적 연구자였대신에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자—공상주의자의 정신을 가진 마닐로브류(類)의 사람을 보게된다.

사회주의로 부터 공산주의 최고단계로 이행하는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와 출발점을 방대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의 실제적 종합을 취하여야하며 국영기업소, 꼴호즈, 쏩호즈, 농기—뜨락또르 지정소들의 공작실제에서 발생되는, 공산주의의 맹아를 깊이 연구하며 생산의 선진인자들의 창발적 의도에서 즉 공장과 꼴호즈 및 쏩호즈전원에서와 기술과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인민적 운동과 절약과 계획이상의 축적을 위하여서와 꼴호즈농촌의 전반적 전기화등을 위한 전인민적 운동에서의 쓰따하노비쯔들의 창의와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산주의적 요소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쏘베트 경제학자들의 과학 연구사업이 반드시 종속되어야 할 그런 중심과업은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실제를 종합하는 기초위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합법칙성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이(모든 문제들의 과학적 연구의 행정에서와 공산주의로 향하여 나가는 길에서 우리의 발전 전망의 과학적, 선견행정(先見行程)에서 공산주의의 최고단계의 특히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것이다.

아. 까쯔동지의 토론에 관하여서는 그가 나의 보고를 비판함에 있어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문제등을 연구하는 방면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새 문제들이 불충분하게 구체적으로 보고중에 규정되였다는 그런관계에 대하여서는 나는 그점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에 발간한 『경제 제문제』 잡지의 어느 호(號)중에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에 관한 토론이 게재되였다. 이 토론 가운데서 우리는 수다한 새 문제들의 제의와 연구의 필요성들에 관한 문제들을 볼수있다. 내가 충분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서술하지 못한것은 물론 나의보고의 결점이다.

그러나 까쯔동지가 제국주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새현상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새 문제를 제기할만한 용기가 없었다고 그들을 비난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가 『자본주의의 자동적 붕괴론』의 일종에서 표현되는 자기의 옳지 못한 구상을 얼마쯤 낯을 감추는 형태에 지나지 못하는것이다.

경제방면에 있어서 과학연구 사업의, 모든 결점을 까쯔동지는 용기가 없었다는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새 문제들을 제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과학연구사업 전개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로 되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용기든지 다 성공을 초래하는 그런 용기로 되는것은 아니다. 용기에는 여러가지가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므·루빈쓰떼인 동지가 과연 옳게 말하였다. 『당신의 새것으로부터 나에게는 낡은것이 들린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유감스럽게도 첫 차례로 까쯔동지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까쯔동지는 자가가 처음에는 『경제 제문제』 잡지에 보내였고 그 다음에는 『볼쉐위크』 잡지에 보낸 『자본주의의 와해에 대하여』 라는 자기의 론문에서 자기의 개념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는 종래의 저명한 자본주의적 재 생산 법칙의 완전한 파탄이며 거대하고 강화되는 그의 잠재 세력이 장성하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물질적 복리의 불가피적 감소를 초래하는 직접으로 대립되는 법칙성에로의 변화이다. 즉 (一)가변자본의 절대적 감소, (二)농업생산의 대략적 상품화 행정의 정지(결국 만성적 농업공황을 조성하던 이전의 현상과 관련하여), (三)생산수단 생산이 소비수단 생산보다 락후되는 현상의 필연적 발생과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소비로 부터의 생산의 온갖 『독립성』의 소멸, (四)고정자본 총 가치량의 절대 불가피적인 무진적 감소, (五)가치 및 사회적 생산의 축적과 증대의 필연적 자체감소와 사회적 재생산의 범위 축소의 경향에로의 이행, (六)자본주의적 재 생산의 순환 행정의 근본적 변형 즉 평화적 장성의 토대가 완전히 말리되는것, (七)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의 첨예화가 자본주의 강대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동시에 호경기에 이를수 없게하며, (八)자본수출의 감소, (九)세계시장의 붕괴—이것이 독점자본주의의 존재와 새 계단의 중대한 경제적 징후인것이며 사회적 생산체계로서 그의 와해단계인 것이다. 이 와해상태가 경제적 견지로부터 볼때에 자본주의적 일반적 위기의 현대적 기본특성으로 되는것이다.』

이상에 지적된 모든것이 벌써 우리 과학계에서 오래전에 비난받은 『자본주의의 자동적 붕괴론』의 일종이 아니고 무엇인가? 까쯔동지의 자본주의의 붕괴에 대한 저작에서의 근본적 오유는 현대자본주의 연구에다가 옳지못한 비 맑쓰주의적 방법을 채용한데 있는것이다.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새 현상에 대한 자기의 리론적 분석에 있어서 그는 근본적으로 추상화되고 말았다.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체계의 투쟁으로부터 분리되였으며 장성되는 쏘베트국가와 인민민주주의 제국의 장성되는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였다. 이를 모르고는 현대자본주의를 리해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까쯔동지는 사실에 있어서 빠르가동지가 마지막 자기저작에 있어서 범한 그와같은 큰 과오를 중복하는것이나. 비록 그들은 다른 형식으로 이 과오를 범하였으나 역시 그 과오의 근본에 있어서는 두 체계의 투쟁을 무시한다는 결론에 이르는것이다.

까쯔동지는 우리가 그의 론문 『자본주의의 와해』를 게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의 론증을 반박할 힘이 없는 까닭이라는 전설을 널리 강조하면서 그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에 있어 그의 론문을 그에대한 대답과 함께 모두 게재하려고 준비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원고를 도로 우리에게로 부터 찾아서 『볼쉐위크』 잡지사로 보냈던 것이다.

넴치노브동지는 자기의 오유를 자백하면서 연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오유의 근거가 자본주의적 의식의 잔재 가운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아는바와 같이 넴치노브동지는 모든 웨이쓰만 추종자들 가운데서 비록 그가 생물학에 관하여는 가장 소원(疎遠)한 관계를 가졌지마는 생물학 토론회의 석상에서 가장 정통적인 웨이쓰마니스트로써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늘 자기의 과오를 용감하게 고치려는 이상 넴치노브동지가 범한 자기의 오유를 자백하는 그런길에 들어선것을 우리는 축하하여야 될것이다。

보는바에 의하면 자아비판의 전형을 시사(示唆)하려는 훌륭한 기도로써 침투된 넴치노브동지는 자기의 토론의 초두에서 자기에게 과오가 나의 보고에 지적된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성명하였다。 그러나、그에게는 자기의 이 훌륭한 기도를 실천할만한 용기가 부족하였음으로 실제에 있어서 그는 자기가 범하게된 오유에 대한 비판을 그 오유의 제이의적(第二義的) 모멘트에만 집중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그에게는 그 자기자신으로써 모순이 있는것이며 그의『농작물과 축산업 분야의 배포의 표준에 대하여』라는 저서는 오직 그가 실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 방조도 주지 못하는 결점만이 내포된것이라고 하였다。 통계부 지도관계에 있어서도 넴치노브동지는 그가 부르죠아 통계학에 대한 비판이 없었으며 실제로부터 고립되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넴치노브동지가 범한 오유는 그가 표시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훨씬 과중한것이다。 그의『농작물과 축산업 분야의 배포의 표준에 대하여』라는 저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생물학적 개념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조잡한 오유를 내포하고 있다。 넴치노브동지가 이 저서에서 다만 농산물의 깔로리、담백질、탄소、지방등의 생산저수법을 제외한 이 한가지 사실에만 의거하여 그를 분석하여 보더라도 이와같은 중대한 생명성을 가진 문제에 관한 통계적、생물학 방법은 만일에 그를 계획화에 실시한다면 그는 결국 악결과 이외에는 초래할것이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화의 중요과업들 가운데 하나는 장성하여가는 쏘련공민들의 욕구를 가급적으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과제의 해결는 생산하는 산물의 량적 증가만 요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정한 류별(類別)까지도 요하는 것이며 결코 어떠한 추상적 깔로리나、담백질이나、탄소등을 요하는 바는 아닌것이다。

농작물과 각개 부문들을 분포함에 관한 계획화에서 그의 합성(合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대신에 넴치노브동지는 어떤 구조형성력(構造形成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의 분포에 있어서 특수성에 대하여 말할 대신에 그는 구분형성력(區分形成力)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구조형성력과 구분형성력의 기초위에서 그는 대응(對應)하는 최상(最上)의 표준을 제정한다。 이 구조형성력과 구분형성력은 자본주의적 통계학자들이 통계학 대상물로 생각하는 자연적 변량과 현상을 퍽 방불하게 상기시킨다。 환언(換言)하면 넴치노브동지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서 비판한 그 개념은 즉 이장에 서술한바를 상기시키는것이다。

이와같이、넴치노브동지의『자기비판』은 여러경우에 있어서 그의 저서 가운데 있게되는 중대한 과오를 엄폐하려는데 지나지 못하는것이다。

마쓸로브동지의 연설은 나에게 통계학 분야에서 맑쓰주의적 방법론의 기본을 습득한데 대한 시험을 하려는 시험적 강연을 상기시킨다。 재능있는 학도로써 그는 단적으로 형식적이나마 파악하였고 정치경제학과 통계학간의 관계에 대하여서와 통계학은 "반드시 정치경제학의 무기가 되어야 하며 통계학 방법은 반드시 경제학 리론의 다음 자리에서야 한다는 등에 대한 기초적 론제들을 다소간 옳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쓸로브동지의 연설을 만족하다고 시인하지 못할것이다。 마쓸로브동지는 자기의 시험적 강연으로써 그의 저서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란포한 오유에 집중된 이 대회의 주의를 흐터버리기 위한 피뢰침一(避雷針)으로 그를 리용하려는 인상을 조성하였다。

마쓸로브동지는 아무 허물없는 듯이 뻔뻔스럽게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어떤 리론가―통계가들 가운데 그의 대부분이 아직도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에 침투되어 그들은 아직도 부르죠아통계학의 영향하에 있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이 모든것이 우선 자기자체에 관계됨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잊어버렸다。

자기의 연설의 마지막에 가서 마쓸로브동지는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과오를 비판하기 위하여 한것이 아니라 엄폐하며 그를 유야무야로 만들기 위하여 말하였던것이다。

마쓸로보동지는 자기의 오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보고자는 나의 저서「경제적 계등방법」의 발행이 중지되었음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는 옳은 말이다。 나 자체가 이 책의 간행을 중지시킴에 협력하였다。 그 책은 그 대부분이 一九四五년도에 서술되었는바 물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스다노브동지의 연설이 있은 이후에 더우기 명백하여진 많은 오유들이 내포된것이다。 우리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은 오유를 범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기비판인것이 아니라 허위인 것이다。 마쓸로브동지가 자기의 오유의 비판으로부터 무엇을 시인하였는가? 오직 자기의 저서의 발행을 중지하였다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 저서의 발행중지의 원인으로 되는 그의 오유의 특성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묵과하였다。 따라서 마치 마쓸로브동지가 직접 이 저서의 발행중지에 노력하듯이 말하는 그 언명도 옳지못한것이다。 그것은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의 지망에 반하여、그 저서가 정간되였던 것이다。 마쓸로브동지는 자기의 저서가 대개 一九四五년도에 서술되였고 그 당시에는 이 책가운데 리용된 그릇된 비맑쓰주의 방법론이 마치 명백지 않았으며 많은 통계학자들이 그와같은 과오를 범하듯한 그로써 자기의 오유를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구실은 쏘베트학자를 훼손하는 것이다。 쏘베트학자는 용감하게 또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자기의 과오를 자백하고、그를 고칠줄아는 용기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마쓸로브동지는 아직 자기의 자역으로써 이러한 자기용기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이제 특별히 빠르가동지의 토론에 주의를 돌려야 될것이다。—

빠르가동지는 이전과 한모양으로 우리의 당출판물들에서 그의 오유를 개량주의적 특성을 포함한 과오라고 규정한 자기의 단포한 원칙적 오유에 대한 부정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는 자기의 과오를 승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부인으로써 교태(嬌態)를 주미어서 그를 자기의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빠르가동

저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므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도 새로운 문제들을 용감스럽게 제기하는 바이며 자기는 당앞에서 위조(僞造)하기를 원하지 않기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바는 그대로 다말하노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의 진의는 파르가동지가 볼쉐위크적으로 자기의 과오를 정직하게 승인하기를 원하지, 않으려함에 있는것이다.

이는 즉 파르가동지가 과학연구에 있어서 볼쉐위크적 당성의 초보적 기본도 소유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서와 자기비판이 『우리발전의 기본적 동력이며 당의 수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된다』(아.아.스다노브)는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는것이다.

파르가동지여! 누구든지 당신이 형식적으로 체면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과오를 거짓으로 승인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과학에서 모욕당한 고관(高官)의 립장을 버리고 당신이 범한 과오에 대하여 성실하게 분석하려고 의도하면서 주로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에 해당한 새저서를 내놓음으로써 그 모든 과오를 고치라는 것이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력사 가운데서 자기의 오유를 고집하는자들이 어떤 불행한 결과에 봉착되었던가를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다. 당신은 자기의 오유를 실패된 방식화에 돌리려고 시도한다. 당신은 국가에 관한 문제를 념두에 두고, 말하기를 『나는 언구(言句)에 대하여 론쟁하려고 하지 않는다—결정적 역활이라거나 거대한 역활이라거나 장성하는 역활이라거나 모두 한가지다—그중에서 어느 언구(言句)든지 원한다면 그를 취하라』고 하였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직속 신문강습소 실내에서 …한 구호를 보았다 『언구(言句)』 이것은 역서 사업이다』 현하의 조건에 있어서 당신은 당신의 사상을 개량주의적 사업으로, 이끄는 언구로 밖에는 달리정, 자할수 없는 그러한 언구로써 규정하는것이다.

파르가동지는 아직 또한가지 과오를 범하고있다. 즉 전시의 정세로써 초래된 자기저서의 온전한 음조를 승인하며 고 하였다. 물론 음조는 음악을 형성하는것이다. 특히 저급 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량주의적 음악을 주는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음조에 있는것이 아니다.

파르가동지여—현하시기에 와서 당신은 문제가 음조에 대하여서나 언구에 대하여서나 또는 어떤 개별적으로 실제된 하리적 방식화에 관하여 론난되는것이 아니라 개량주의적 특정을 가진 당신의 오유체계에 대하여 론난되는것을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다. 당신은 『용감』『정직』—『성심(誠心)』등 언구로써 자만하며 자기의 오유를 창력히 고집하고 있지마는 우리당은 오유를 범한 자기의 당원에게로부터 그가 용감하고 정직하고 성심(誠心)있게 그의 과오를 승인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스다노브동지는 자아비판을 두려워하는 인자들을 인민의 존경을 받을수없는 졸렬한 비겁한(卑怯漢)이라고 규정하였다.』

과연 그러하다. 당신의 『성심』은 나에게 가장 의문으로 추상된다. 사실에 있어서 자기의 연설에서 당신은 부차적 의의를 가진 문제에만 관하여 말하였고 당신에게관한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비난에 대하여서는 강력히 그들 묵과우회(默過迂廻)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행동을 당신의 『성심』의 표현으로써 간주할수 있겠는가?

당신의 저작의 비판에 있어서 당신이 옳다고 겨우 신인한 옳지못한 그 조건들로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관료주의적 대답으로는 상기되지마는 볼쉐위크적 자아비판은 아닌것으로 생각된다.

당신은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경제를 국가자본주의적 경제라고 말한 그릇된 규정을 시인하고 있지마는 당신은 이 자리에서 一九四五년도에 그 책을 쓸때에는 그 론조(論條)가 정당하였다는 언명으로써 즉시에 이 시인을 효지부지하게 만들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서 진행한 로지개혁의 의의를 당신은 오직 농촌에 있어 소생산앞에서 대생산의 우월성에 대한 문제의 추상적 제기에 돌리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이 오유의 근거가 더 깊이 박힌것이다—그는 즉 우리가 인민민주주의 제국에서의 경제개혁의 특성을 정당히 평가하지못한데 있는것이며 농촌경제의 생산력 발전을 제지하고 있는 대규모적 지주농업의 반동성에 대한 레닌주의의 학설을 멸시함에 있는것이다.

당신은 미국에 있어서 공황폭발의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또 과오를 범하였다고 시인하지마는 이 시인의 뒤를 이어 그 오유는 원칙적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고 언명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저서들 한책은 경제에만 관하여 서술하고 다른 한책은 정치에만 관하여 서술한 두책으로 분리시키는것을 과오라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이 형식적 모멘트에 있는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문제들을 취급하는 본질에 있는것이다. 만일에 당신이 이 옳지못한 두책의 저서를 한책으로 합편(合編)한다면 그때에는 이 합편으로 틀림없이 정당한 개념을 당신이 얻을수 있었겠는가? 내생각에는 이와같은 산수적(算數的) 또는 기계적 방법이 아무리 보아도 정당하다고 시인될것 같지 않다.

이상에 서술한바와 같은 립장은 옳지못한것이며 근본적으로 비당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더 그와같은 오유를 다만 더심각하게 함에만 이르게 할것이다.

반드시 간단하게나마 기본문제에 착안하여야 될것이다. 이 기본문제를 토의하려함에서 파르가동지는 어느때든지 거절하였다. 그는 즉 파르가동지의 개념의 개량주의적 특성을 띠였음에 관한 문제인것이다. 그 책의 서언에서 파르가동지는 벌써 불피코 개량주의적 결론에로 이르게될 근저(根底)를 시사하였다. 파르가동지는 전후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작용하는 림시적이며 과도적(過渡的)인 동인에 대하여 썼으며 또는 최근十년동안에 림시적 동인이 우세를 점유하게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직 빈궁화된 국가들의 생산능력이—약 十년간에—또다시 전쟁전수준에 도달된 이후에라야…그때에 이르러야만 완전하게 전쟁에서 초래된 자본주의의 「결정적」 변화가 로골적으로 들어날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제도의 근본적 모순의 첨예화에서 자기의 표현을 얻게될것이다. 다시말하면 사회적 생산과 개인적 소유와의 간의 모순에서 우선 판매문제의 첨예화—달리말한다면 시장문제에서 표현될것이다.』(『제二차세계대전의 종화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계에서의 변화』 에·바르가 저 국영정치서적 출판부 一九四六년판 제十二페지)

여기에서 전쟁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의 작용을 지킨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림시적으로 작용하는 동인을 산생하였다(빈궁화, 가난해진 국가들에서의 생산 부족의 위기, 미국에서의 생산과잉의 위기등) 이 동인은 전쟁이 종결된 이후 경

十년간에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규정하게 될것이며 오직 十년후에라야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의 첨예화와 판매문제의 첨예화가 나타날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맑쓰주의적 학설의 과학정도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던 이와같은 문제의 제기의 몰상식성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미국에서의 공황에 대하여 예언(豫言)하지 못할것이며 이와동시에 전쟁당시나 또는 전쟁 이후 시기에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의 작용의 중지에 대한 테제를 제기하지못할것이다。

따라서 봐르가동지의 다른 문제에도 역시 주의를 돌려야한다。즉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의 작용이 렴시적으로 중지된다는데 대한 이 테제는 봐르가동지의 『자본주의국가의 결정적역활』에 대하여서와 전쟁당시에있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계획화』등에 대한 개량주의적 개념의 리론적 기초로 되는것이다。

전쟁당시에 부르죠아국가의 역활에 대한 문제에서 자기의 립장을 봐르가동지는 전쟁진행의 리해관계와 전체독점자본가들과 전체 부르죠아들의 일반적 리해관계에서 국가는 부득이 일부의 개별적 독점자본을 반대하여 항상 진출하게된다는 론증에 결부시켰다。

봐르가동지의 립장이 진실로 이런데 이르렀다면 우리에게서 론쟁이 발생되었을것이다。봐르가동지는 여기에서도 자기의 『용기』와 『정직』에 변절하면서 자기의 개념을 엄폐하며 가리우려고 시도한다。

사실에있어서 봐르가동지는 확증하기를 전쟁시기에 국가가 독점자본에게의 예속이 강화되는것이 아니라 약화된다고하였다。만일에 평화시기에 국가가 독점 자본의 수중에서 무기로 된다면 전쟁시기에 와서는 그가 전체 부르죠아들의 리해관계를 전체적으로 옹호하며 독점을 제한한다 비록 그렇다하나 실제에 있어서 전쟁시기에 독점자본과 국가기구의 결합 행정과 국가에대한 독점자본의 영향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대한 정도로 장성되어 국가는 퍽 더 큰 범위에서 독점자본의 무기로 되는것이다。

경제의 전시 조절(調節)은 첫차례로 독점자본의 리해관계에서 실시되는것이다。국가가 일부 독점자본의 기업소를 제한하는 그 사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국가가 독점자본의 무기로 되는 본질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독점자본의 리해관계에서 동작하는 국가는 파업이나 또는 혁명적 폭동의 위협하에서 부득이 로동계급에게 양여하는 태도를 취하는때가 있다。그렇게하는 원인은 다음에 로동계급을 자기의 독재권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함인 것이다。이 모든것은 오직 그가、모순이 되지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부르죠아 국가가、독점자본의 무기로 된다는 본질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이다。

전쟁시기에 자본주의적 경제의 계획화의 가능에 대한 문제에 관한 오유들 봐르가동지는 여기에서 자기의 저서 제二권에 의거하면서 그를 표현 부족으로인한 실패인것처럼 묘사하려고 시도하고있다。그러나 자기의 연설에서 봐르가동지는 이 론증의 뒤를 이어 또다시 전시 조건하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계획화에 관한 가능성과 필연성을 력설하였다。그는 언명하기를 전쟁은 비행기、전차등을 요구한다。국가는 반드시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한다。이렇게 하기위하여서는 국가는 반드시 『계획화』하여야 된다。환언하면 각개 기업소들에게 원료와 축적등을 분배하여야된다고한다。

봐르가동지의 이와같은 조잡한 오유는 그가 부르죠아 국가가 경제의 전시 조절을 인민경제의 계획화와 동일시함에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계획화의 가능성을 자본주의적 무정부성의 근원자체의 청산으로부터 분리시킬수없는것이다。다시말하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생산의 사회적 성질과 생산수단의 사유간의 모순으로부터 탈리시키지못한다。만일에 이 모순만이 남아있다면 어떤 계획화에 대하여서든지 말할수 없는것이다。봐르가동지가 자기의 저서의 서언에 전시와 전후시기에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의 작용정지에 대하여 쓰는 원인은 『계획화』에 대한 자기의 테제를 창설하려고 함이 아닌가? 맑쓰—레닌주의학설은 자본주의국가가 정치적 상부 구조로써 경제에 주는 반작용을 부정하지않는것이다。그러나 이 반작용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경제의 『계획화』가 되지않는것이다。이는 원칙적으로 순전히 다른 범주이다。부르죠아 국가의 경제적 역활과 경제에관한 그의 영향은 국상의 경우에라야 국가가 경제의 자연적 발전을 조장하거나 혹은 그를 제지(制止)함으로써 국한되는것이다。

제국주의의 단계에 있어서 경제에대한 국가의 간섭은 생산력 발전을 조해하고 있다。전시적 조절은 자본주의적 근본모순을 제거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를 더 첨예화시킴에 이르게한다。그는 독점자본의 리해관계에서 진행되며 각종 부르죠아 그루빠들 사이에 모순의 첨예화를 더욱 강화할뿐이다。그는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을 진압할 과제를 추궁하며 전쟁의 모든 중하를 그들의 어깨에 넘겨 씌우면서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이에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킨다。그는 경제발전에 편파적 방향을 부여하며 각개부문과 기업소간의 불균형성을 강화하는것이다。그는 금융자본의 소수과두들에게 거대한 리윤을 초래하며 근로자들의 수요를 더할수없는 최소한도에 이르게까지 축소시킨다。

이러한 모든 정세는 생산과잉의 공황을 불가피적 힘으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더욱 첨예화한다。그럼으로써 평화시기에나 또는 전쟁시기에있어서 자본주의경제에의 어떤 계획화든지 불가능한것이다。이런 반론(反論)을 지지하는것은 즉 개량주의적 립장에 서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봐르가동지는 이러한 비맑쓰주의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전쟁후 로동운동의 앞에 순수한 개량주의적 전망을 묘사하고있다。그는 쓰기를 『국가의 역활은 미래에가서 전쟁전보다 더욱더 깊은의의를 가질것이다。국가관리에 있어서 크게나 혹은 적게 참가하는데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적 사회의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두개 기본 계급간에서 정치적투쟁의 기본적 내용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제二차 세계대전 총화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계에서의 변화』三一八페지)

이 개량주의적 테제가 봐르가동지의 『三十년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론문에서 더한층 발전을 가져게 되었던것이다。봐르가동지는 썼다。『자본주의의 조국인 구라파의 부르죠아들은 지금에 와서 자본주의적 사회제도가 스스로 그 자체의 기본적 개조를 필요로 하고있다는 것으로 시인한다。중대한 생산분야를 국유화하거나 경제의 국가적 통제、『경제의 계획화』등 이런 대책이 없이는 촌보(寸步)도、나갈수 없다고 그들은 시인한다。..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 승리 이후 三十년을 경과한 오늘날에와서 구라파

에서 무정은 그의 력사적 발전에 있어서 점점 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속도와 형태를 위한 투쟁으로되고 있다。』(『세계 경제와 세계정치』 잡지 一九四七년 제十호)

여기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트가 모두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바 그들의 진지간의 차이는 이 투쟁의 속도와 형태에만 있는것으로 된다。 바르가동지여! 이를 어떻게 부를수 있겠는가? 이 투쟁은 연구에 대하여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된 방식화에 대하여서인가, 혹은 그렇지 않으면 개량주의적인, 정확히 말하면 메이보르당적 테제인가? 출판물에서 당신에게 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경제 제문제』 잡지 제一호에 출판된 나의 보고중에서 특히 나는 당신의 주의를 이 점에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무슨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여 버렸으며 당신이 이테제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지지한다든가 함에대한 하마디말도 없는가? 당신의 앞에 날카롭게 제기된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대답을 회피하려는 이와같은 당신의 행실에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세심하게 살펴도 당신이 말하는 『용감성』이나 『성의』나 또는 『정직』의 표현을 찾아볼수 없다。

개량주의적 특성을 가진 이 모든 조잡한 오유는 벌써 그의 저서에 관한 토의가 있은 이후에 바르가동지가 중복한 과오이다。 이 모든 사실은 매우 정확하게 바르가동지가 그의 오유에 관한 비판에 대한 문제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비당적 립장의 결과에 그는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여 퇴치하는 길에 나서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매개의 론문으로써와 매개의 연설로써 그 오유를 더 하여줄뿐이다。 이는 바르 금번회의에서의 그의 연설이 잘 증명하여 주는바이다。 바르가동지는 새로운 과오를 또 범하였다。 그에 대하여서는 여러동지들이 그가 연설한후에 자기 토론에서 잘 지적하였던것이다。

바르가동지는 미래에 있어서 제국주의 제국간에 무력충돌이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물론 머지않은 앞날에 제국주의 진영 가운데서 가지게될 모순의 구체적형태에 대하여서는 다소간 미리 말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 모순의 의의와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제패로 향하여서와 서부 구라파제국을 노예화 하려함에 다름박질함과 관련하여 그 모순들이 불피코 첨예화되는 의의를 과소평가한다면 그는 조잡한 오유에 빠지게 되는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의 시기에 자본주의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성의 첨예화로부터 발생되는 전쟁이 제국주의 제국사이에 불가피의 산물로 됨에 대한 레닌—쓰딸린적 제국주의에관한 리론의 기본적 론제를 재심의하려는 의도를 바르가동지에게서 결정적으로 배격하여야 될것이다。

따라서 역시 『마샬안』으로부터 받게되는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국의 노예화가 마치 그들의 『빈궁』으로써 해석되는것처럼 말하는 바르가동지의 변증은 오유이며 또한 해독적인것이다。 바르가동지는 이러한 변증으로써 서구라파 부르죠아들의 민족적 반역성과 미국제국주의자들 앞에서의 자기들의 아첨을 자기 나라의 『빈궁』으로써 변명하는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수차(水車)에 물을 부어준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내가 그에게 대하여 지은 결론을 충분하게 확증하여준다。 만일에 바르가동지가 자기의 개량주의적 오유의 주장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그는 장래의

자기의 모든 사업에서 아무러한 성과도 거두지 못할것이다。」

그의 장래 학술연구사업의 성과를위한 필수조건은 그가 자기의 개량주의적 견해를 용감하게 결정적으로 성실히 재심사하며 맑쓰—레닌주의적 방법론으로써 제국주의 제문제를 연구하는것이다。

라우뜨바르드동지는 우리계획의 개별적 제목들의 바로되지못한 방식화에 관하여 특히 부분적으로 뜨랑호텐베르그동지의 테마에 관하여 여러가지 결점을 옳게 지적하였다。 그는 역시 『경제 제문제』 잡지자가 반드시 각 지방동지들과 긴밀한 련락을 가져야하며 거대한 중앙도시들에서 많은 기자들을 이 잡지간행에 참가하도록 인입하여야 되겠다고 매우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뻬트신동지는 퍽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그는 쏘베트동맹 과학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와 우크라이나과학 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의 사업에서 얼마마한 류사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에 불리하점은 조금도 없다。 독립채산제에 관한 제목을 여러연구소에서 각방면으로 각종재료에 의하여 연구할수 있는것이다。 쏘로낀동지는 꼴호즈들에서 토력조직과 보수에 대한 제목의 거대한 의의를 지적하였다— 이도 또한 그러한 문제이다。 그는 모쓰크바에서만 연구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나 기타 다른지방에서 역시 연구할수 있는 테마이다。—

아제르바이쟌에서도 여러가지 제목들이 쏘베트동맹 과학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의 제목들과 합치되는 그런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이있다。 문제는 이상에 지적한 제목들을 개별적 공화국 연구소들의 계획에서 제외하려함에 있는것이 아니라 협동적 기초위에서와 분업의 기초위에서 작업을 조절함에 있는것이다。」

두레쯔끼동지는 말하기를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과학연구사업이 락후되는 주요원인은 리론과 실제의 통일을 리해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나의 보고에서도 역시 리론과 실제의 분리에 대하여 말하게되였다。 그러나 이 원인을 유일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리 부분적 론문들이 서술되지 않는때까지는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을 저작할수 없다는 두레쯔끼동지의 테제를 나는 동의할수 없다。 만일에 이 길로 나아간다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저작사업을 전쟁이후 五개년계획 이후에도 더 오랜 시일로 끌고가야 될것이다。 물론 이 정책을 각방면으로부터 공략(攻略)하여야 될것이다。 개별적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도 추진시키고 또는 이를 계층적 저술로써 창작하는 방법으로도 추진시켜 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정치경제학 저서창작에 대학강좌의 경제학자들을 인입참가시키는 일을 반드시 각방면으로 장려하여야 될것이다。 첫째로 경쟁하는 방법으로써 병행적으로 여러동지들에게 이런 책의 개별적 장(章)들을 서술할것을 위임하여야 되며 둘째로는 이런 책의 부분적 장(章)이나 또는 전체 저서를 토의하며 평론하는 사업에로 광범한 층의 경제학자들을 이끌어 들여야한다。—

사회과학 필요시간에 관한 론술에 대하여서는 이에대한 무레조끄동지의 견해를 나는 요지음에와서야 알게되였다。 두레쯔끼동지는 우리앞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잡지사편집부에 아무 론문도 주지 않았던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이 문제가 토의되지않은 책임

온 절수없는것이다. 그리고 나는 대학들에서도 역시 매우 거대한 학술연구사업이 진행되는 두메프끼동지의 론조를 지인하는바이며 어떤 범위에서든지 이 자업에 무관심한 관계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들이 과학연구자업에 상당한 주의를 돌리지않는 사실만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매개 강사마다 반드시 과학연구자업을 꼭 진행하여야 되더라는것을 예정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과학연구사업계획은 자개 강사들의 후차적인것으로 서고있는것이다. 만일에 당선들이 과학연구자업계획을 실행하지 않는다하여도 그는 당신들에게 아무책벌도 가져오지 않는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현재에 실시되는 강사들의 모여보수와 조직체계를 열마쯤 개정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되는것이다.

다다세브동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많은 자미있고 중요한 문제들이 연구된다는데 대하여 우리에게 보드하였다. 우리는 혁명전야에 아제르바이잔의 사회-경제제도의 모사에 대한 저서를 퍽 만족히 읽었다. 우리에게 근동에 관한 재료이 없다는 그것은 다 옳은바가 아니다. 전체 아까데미야 계획에는 그가 없지마는 연구소 내부계획에는 이 재료이 있는것이다.

봐슈쩬동지의 연설은 나의 보고에 값있는 보충재료로 된다. 봐슈쩬동지는 나의 보고가운데서 아무반영도 얻지못한 경제 지리분야에서의 리론적 사업형편의 성격모사를 우리에게 주었던것이다. 봐슈쩬동지가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주의를 요구하는바이며 반드시 광범한 층의 경제지리학자들을 인입할 전문적 토의를 받아야 할것이다.

암라호베르쨔ㄴ동지는 여러가지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였다. 그는 경제대학이 직장과 작업반의 독립채산제문제를 연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실만은 오직 쏘련 과학아까데미야 경제연구소와 경제대학들 사이에 분업적 견지로 보아 환영할뿐이다. 경제연구소는 독립채산제문제를 가장 일만적인 성질을 가진 문제들만을 연구하는것이다.

그·루빈스떼인동지는 우리에게 쏘베트상업에 관한 문제가 적다고 옳게 지적하였다. 이는 경제연구소내에 해당한 간부들이 적음으로써 해석된다. 물론 여기에대한 출로는 대학들의 강좌들과의 친선협조하는 로선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것이니 그곳에는 이러한 간부들이 없는것이다. 、그들을 계약에의하여 이 사업에 인입시켜야 할것이다.

까료나우호봐동저는 사회주의적 농촌경리문제의 연구와 평산력배치에 관한 문제연구와 기타 연구사업전선에서 그 정제의 옳은 분석을 주었으며 경제연구소사업에서 그의 결점들에대하여 공정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녀자의 몇가지의 지적은 역시 시인할수 없는것이다. 까르나우호봐동지는 마치 그가 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그루지야에서나 까자흐쓰딴에서 온사람 같다. 이 녀자는 무슨 까닭에 우리가 끌호즈로력조직과 보수에 관한 문제에 의한 전원회의를 가지지 못하게 된 원인을 잘아는바이며 이것이 결코 우리때문이 아닌줄을 잘아는바이다. 까르나우호봐동지는 역시 무슨 까닭에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문집이 三년동안이나 정치서적출판자에 아무 움직임도없이 쌓여있다가, 한개의 지적도 없이 그를 개정하기위하여 도로 우리에게 그가 돌아온줄을 잘알고 있는것이다. 이 녀자는 여기에 우리의 과실이 없는줄을 잘알면서도 우리를 비판타는것이다. 그렇지않아도 경제연구소 사업가운

데 이밖에도 결점들이 더 많은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문제되지않는 그런 조건까지 거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그를 더 중대할 아무러한 필요성이 없는것이다.

데민동지는 바르가동지의 연설을 아주 정당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나는 우리에게 학술연구자업에 관한 필요되는 한도까지의 지도사업이 없었다는것을 동의하는바이다.

우리는 아직 각개의 개별적 일군들의· 사업을 잘하는데까지 이르지못하였다. 이와같은 결점을 제거함에 전노력을 다하겠다.

모델데브동지는 학술 연구자업에대한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훌륭한 의견을 재의하였다 이 회의를 물론 고등교육성과 함께 조직하여야 될것이다. 이와 역시 한가지로 광범한 층의 경제학자들을 지금준비되는 작품들에관한 학술적비관사업에 인입함과 동시에 그런 비관사업조직에 대한 그의 의견이 퍽 상당한것이다.

므·루빈스떼인동지는 많은 훌륭한 의견들을 표시하였다. 특별히 그는 경제연구소가 과학 아까데미야 다른 연구소들과의 련락관계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이 의견들을 반드시 상고하여야 될것이다.

구두위츠동지의 연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문제에 관한것이였다. 리론적 문제에서나 또는 조직적문제에 관하여 녀자는 자기의 토론에 있어서 자기의 개인문제로부터 추상화하려는 경우가 없었던것이다. 구르위츠동지는 자기의 저작을 가장 저명한것으로 평가하여 자본주의적 세계경제 제문제 연구방면에서는 다만 자기를 유일한 리론가가 아닌가고 평가한다. 그러나 크게 유감스러운바는 우리가 그의 저서를 열람한 결과 자기에게 대하여서와 자기의 작품에 대한 녀자의 생각을 조금도 확인하여 주지못한다.

두개의 연구소를 련합한 이후에 우리는 이 연구소들로부터 유물로 받은 모든 원고들을 재심사함에의한 거대한 공작을 진행하였다. 모든 이 원고들을 심사한 결과 우리는 앞으로 출판하려고 선출하여 내어놓은 그 원고를 수에다가 구르위츠의 작품원고를 편입시킬수 없었다.

구르위츠동지는 자기의 원고가 출판되지 못하는 원인을 자기의 결점에서 찾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마치 결시기를 통하여 바르가동지가 그를 박해함으로써 자기저서가 출판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지도부가 교대된 이후에는 구르위츠를 『박해』하는 기능이 유전되어서 나에게로 넘어왔다라고 한다. 이와같은 비관으로써 진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확실히 어리석은 박해망상병에 걸려 우리의 학술연구자업과 쏘베트사회에대한 퍽 유치한 생각을 가져야 할것이다. 쏘베트사회제도의 조건하에서 좋은 저작을·출관하지 못한다는것은 상상하지도 못할일이다.

구르위츠동두는 내가 젊은 과학자들의 등용을 방해한다는 구실로 나를 몹지 질책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대한 하나의 실례도 들지, 못하였으며 한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였다. 이런 사실은 그가 지금 경우에서 념두에 자기를 두고 말한다는것을 나로하여금 생각할수있는 근거를 나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구르위츠동지는 자기의 작품에대한 주관적표현을 젊은청년이라는데 대하여서도 역시 나타내고 있는것이다.

에웬또브동지는 자기의 오유를 비판하면서 정당하게 연설하였던것이다. 그에게 그가 범한 조잡한 오유를 맑쓰-레닌주의적 정신으로 침투된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실제에서

고치기를 그에게 바라고 원하는것이다.

쓰로껀동지는 우리 사업가운데 있는 모든 결점들을 공정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중에서 오직 한가지만은 시인할수 없다. 쓰로껀동지는 인증하기를 만일에 저자가 자기의 작품을 一九四八년에 시작하였다면 우리는 그를 꼭 一九四八년도에 출판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주 명백히 실행할수 없는 요구인것이다. 한해동안에 어떤 문제에 관한 토문을 연구제작하여 그를 발행하기는 여간 곤난한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 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소내에서 과학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작성의 큰 결점으로는 그 계획를 가운데서 많은 시일과 로력을 요하는 원고작성의 시간이 예견되지못한 일이다.

류비모브동지는 과학문제의 대담한 제기, 맑쓰주의의 낡아진 부분의 재심사와 새사실들을 종합하는 기초위에서 맑쓰주의 경제리론의 발전등에로 모든 경제학자들을 옳게 불렀다. 이와같은 선량한 지망을 열렬하게 축하할것이다.—그러나 류비모브동지의 의견에 의한다면 비판적 재심사가 요구된다는 맑쓰의 경제적 리론의 대상—즉 상품에대한 맑쓰와 엥겔쓰의 학설——은 그 동지에게서 가장 옳지못하게 선택된것이다. 더우기 이외에도 류비모브동지는 이번 자기의 연설에서 말한다면 상품에 대한 맑쓰주의 학설의 훌륭한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류비모브동지는 엥겔쓰가 『반듀링』론에서 지은 상품의 정의(定義)에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엥겔쓰는 말하기를 상품은 그 자체가 사회적—유용품으로 표현되는것이다. 류비모브동지는 언명하기를 『저로하여금 물을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 전차、폭격기、원자탄등이 「사회적—유용품(有用品)」이라는 상품에대한 정의에 적합한가?』고한다. 그렇다. 류비모브동지여! 이는 적합한것이다. 엥겔쓰는 상품을 어떤 의미로써 사회적—유용품이라고 일컫었는가? 그는 상품이 사람의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있는 사용가치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맑쓰는 지적하기를 『이 요구들의 본질이 례로써 그 요구들이 위(胃)—로부터나 또는 공상으로써 발생된다하더라도 사실에있어서는 아무것도 변동시키지않는다』고하였다(『자본론』 제一권 一九三七년판 三七페지)

상품생산의 견지로서 본다면 성경은 인민에게 대하여 종교적 마취제로 되지마는 꼭 필요되는 빵과 같은 범위의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 맑쓰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어기부적 문제는 어떤 재심사든지 요구하지 않는것이다.

이제 더나아가서 류비모브동지는 상품을 『개인들의 손으로 그들의 계산에의하여 생산되는것이다. 그는 개인적 로력의 결과로 되면서 동시에 생산자의 지시가 없이 그의 의사에 불관하고 사회적 로력의 결과로 되는것이며 따라서 그는 교환을 경유하여 사회적 방법으로 제정되는 그 로력의 일정한 수량으로 되는것이다』(『반 듀링그』 一九四八년판 二九一페지)라는 엥겔쓰의 론제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류비모브동지는 언명하기를 이 론제는 독점자본주의적 단계에 와서는 벌써 낡은길이다라고 한다. 지금에 와서는 개인상업가 대신에 독점자본가가 진출하여 가격은 시장기구를 경유하여 제정되는것이 아니며 시장류통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수다한 수량의 대량물품은 자기의 내용에 의하

여 그 자체가 순전히 제국주의시대에 와서 상품생산 파괴의 사실로써 제약되게되는 상품의 다른 관념을 표시하는것이다.』

그러나 레닌이 지지한바와같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독점적 단계가 자본주의의 상품적、기본과 자본주의적 경리의 기본법칙을 폐지하지못하는것이며 그는 오히려 상품경리는 그가 가지고있는 법칙의 근거위에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꼭 같은 모양으로 독점자본은 자본주의경리의 자연성 경쟁등을 폐지하지못하고 현대 자본주의경리계에서 깊은 모순을 발생하면서 경쟁과함께 존재하고있다. 그럼으로써 제국주의 단계에대하여서는 자본주의적 법칙의 일반적 자연성의 발휘에 대하여서와 가치법칙—특히 생산자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가치법칙의 본질적 특징에관한 맑쓰와 엥겔쓰의 론제는 그 힘을 원만하게 보유하고 있는것이다.

류비모브동지는 맑쓰주의의 창조적발전을 위하여서도 그가 맑쓰—레닌주의 경제학설을 불충분하게 깊이 파악한것을 보여주면서 적당치못한 대상을 선택하였다.

많은동지들은 토론에서 경제연구소 계획가운데는 많은 중대한 문제들이 없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적 재생산、인민경제의 발란쓰、자본주의경제체계보다 사회주의경제체계의 우월성등과 그 외에 다른 제목들이 없다고한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그런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앞에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계통적 개론을 저술하려함과 같은 이러한 거대한 과제를 제기하는바이다. 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기본적이며 가장 기술화된 간부들을 이 사업에 인입하여야 될것이다. 이 가운데서 사회주의적 재생산에 대한 문제나 인민경제의 발란쓰문제、—공산주의로 향하여 나아가는 운동의 길들에 관한 문제들이 자리를 차지하게될 것이다.』 그밖에도 일부의 제목 그가운데는 자본주의경리 체계보다 사회주의체계의 우월성에 대한 문제들은 연구소내부계획에 편입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나타나지않는것이다.

이제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우리는 독립채산제를 각방면으로 연구한다. 독립채산제를 정치경제학의 범주로 보아 연구하며 독립채산제를 개별적 부문에서와 산업、운수、쏩호즈등에서 실시함을 연구하는것이다. 이 방면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에 관한 문제의 연구소를 차지한 과학 경제연구기관들과 강좌들 사이에 있는 분업과 그의 성과있는 친선적협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것이다.—

우리가 경제적 공간에로 가치형성문제를 배속시키는 그것이 어떤 범위에서든지 이 문제의 의의를 적게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로 향하는 우리운동의 길에대한 문제나 또는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성의 폐절에 관한 문제나 기타 도· 두번쓰떼인동지가 여기에서 말한 다른 제목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 문제들은 모두 퍽 중요한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제목들의 일정한 제한된 수에 립각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전망적 제목가운데는 전기화、로력행정의 기계화、석탄산업의 발전、농촌꼴호즈 경제발전의 방법등—이 모든 문제에 대한 제목들이 연구된다. 까르나우호와동무는 보충적으로 이 방면에서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들 예정하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것이다. 농촌경리에 있어서 재생산문제가 퍽 중대하다. 그러나 이 제목도 알뗄리 농촌경리 경제발전의 길에 대한 문제의 부분으로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것이다.

계획가운데 경제통계학문제도 퍽 미약하게 반영되었다.』

반드시 이 부면에 있어서 우리 계획을 확장함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관계되는 제목과 부분적으로 때온제브동지의 『자본주의의 독점적단계는 제국주의이다』라는 제목에 관하여 우리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주해가 없이 제목의 목록을 나누어준것으로써 많은 지적들을 환기하였다. 때온제브동지의 제목 목록으로부터 이 과학적 부문론문 가운데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공황의 특성이 퍽 많은 자리를 차지한것을 우리는 볼수있다.

이와동시에 우리의 계획가운데는 많은 결점들이 있는것을 부인할수없는 사실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간부부족으로써 해석된다. 우리는 우리계획에 관하여 말한 모든 지적을 참작하기에 노력할것이며, 가급적으로 그가운데있는 결점을 제거하기에 노력할것이다.

경제연구소안에 비록 얼마의 량호한 성과와 진취가 있다하더라도 그안에는 모든 사업이 아직 큰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쏘베트사회는 이 성과에대하여 우리의 선언에 의하여 관단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행하는 작품에 의하여 관결할것이다.

『경제제문제』잡지에 관하여서는 그의 비판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토론가운데서 이잡지에 많은 주의를 집중하지않은 사실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전문적 독자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석상에서 이 잡지의 미래사업에 대하여 로의하여야 할것이다. 이 잡지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도 외국경제에대한 문제들에 충분한 주의를 집중하지못하였으며 역시 그와 한가지로 쏘베트경제의 리론문제들에 주의를 집중하지못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새해초기부터 이 잡지발행의 지연을 시정하려고 노력할것이다.

이 회의 석상에서 전개된 우리 연구소의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경제전선정세에 관한 비판은 물론 커다란 효력과 리익을 가져올것이며, 경제방면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그에게 당과 정부와 직접 쓰딸린동지가 전제로 내세우는 요구조건의 수준에로 제고할수 있는것이다.

보고는 (『경제제문제』一九四八년八호에서)
결론은(『경제제문제』一九四八년九호에서)—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九차대회에서 진술한 크·끄트왈드의 보고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위원장 크레멘트·끄트왈드는 제九차대회 첫날인 五월二十五일에 一九四六년 三월의 제三차대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의 사업과 당의 당면과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

끄트왈드는 두시간에 걸친 자기 보고의 시초에서 최근 三년동안에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이 수행한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다. 그는 체코슬로바키야가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독일파시스트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정책과 체코슬로바키야의 정치적 발전을 분석하였다.

끄트왈드는 체코슬로바키야의 인민민주제도를 창건하고 강화함에 있어서와 중요산업 및 은행등을 국유화 함에 있어서와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있어서와 새로운 인민적 주권기관 및 기타를 창설함에 있어서 공산당이 수행한 지도적이며 선봉적인 역활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및 사회적 개혁의 실시는 시초부터 반동분자들의 흉악한 반항을 받았는바 반동분자들은 一九四八년 二월까지는 민족전선의 이전 정부 제정당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끄트왈드는 지적하였다. 끄트왈드는 공산당은 체코슬로바키야가 해방된 직후에 민주주의제도의 긴요한 토대로써 중요산업 은행 탄광 및 광산의 국유화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반동분자들은 새로운 공화국의 건설을 온갖 힘을 다하여 태공하였으며 그들에게 유리한 시기에 변혁을 단행할것을 준비하였었다고 끄트왈드는 말하였다. 반동들은 一九四六년 五월에 진행된 립법 민족회의 선거에 있어서 공산당이 패배하리라고 기대하였었다. 선거진행이 그들에게 유리하게되는 경우에 그들은 주권을 장악하고 중요 산업 및 은행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취소하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반동들의

거대는 어근났다。一九四六년 五월에 인민들은 공산당을 지지하였다。즉 공산당은 四〇%의 투표를 받음으로써 체코슬로바키야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되었다。반동들의 모든 기도는 좌절되고말았다。

끄트왈드는 인민의 신임을 받는 체코슬로바키야공산당은 인민민주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체코슬로바키야에 자본주의가 재생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체코슬로바키야가 사회주의의 길로 발전하는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방책을 다하였다 라고 지적하였다。

공산당의 중요한 과업들중의 하나는 二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었다고 끄트왈드는 말하였다。공산당이 그의 선두에 서있는 정부의 정강은 새로운 민주주의적 헌법을 채택하며 제一차 토지개혁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며 국유화된 기업소들 및 재정기관들의 사업을 강화하며 더욱더 많은 사회―정치적 방책들을 실시하는것등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과업들을 실시할것을 예견하였었다。동시에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야인들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낡은 관료주의제도와 잔재들을 청산하며 민족위원회들을 강화하며 그리고 민족위원회들과 함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외정책 방면에 있어서의 과업은 국제무대에서 공화국의 안전을 보장하여주며 새로운 문헌의 원첩을 밟지않고 자기의 해방된 조국의 복리를 위하여 로력할수 있는 평화로운 조건을 우리들에게 지어주는 쏘련과 신민주주의 제국가와의 동맹과 우호의 철저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었다。

끄트왈드는 자기의 대외 친우들에게 의거하고있는 국내반동이 민족전선정부의 창조적 계획을 실시하는것을 어떻게 흉악하게 반대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국내반동은 한발로 인한 경제적 곤난을 자기의 파괴적 목적을 위하여 인민민주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공산당과 인민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하여 리용하려고 애썼다。

한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있어 식량공급이 곤난하게 되었을 그때에 반동은 자기의 진정한 면모를 명백히 하였다。그때에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민들에게 특히 로동계급과 도시주민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빵을 공급하는데 있었다。이와같은 곤난한 정세하에서 매개 진정한 애국자들은 량심적으로 모든 불화를 잊어버리며 모든 힘을 다하여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보장하여 주는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간주하였었다。그때에 우리들에게는 두개의 원천이 있었으니 우리들은 이 두개의 원천에 기대할수 있었었다。

첫째는 대내적 원천이다。이것은 농촌이 모든것

을 제공할것을 의미하는데 농촌은 도시에 대한 식량공급을 보장할수 있었었다。

둘째는 대외적 원천이다。이것은 생산품을 특히 빵과 식료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함을 의미한다。

우리들에 적대되는 반동들은 될쑤록 적게 생산품을 제공하는것을 자기들의 스로―간으로 선택하였었다。우리 주민들을 굶겨죽이려는 반동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외국으로부터 생산품을 받는 과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二개년계획을 해결하는것을 도와주었다。우리들은 외국으로부터 반입(搬入)한 식량품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기 위한 상품을 기한전에 생산하였다。우리들은 누구에게서나를 물론하고 무료로 아무것이나를 받을것을 원하지않았다。서부국가들은 우리들이 모든것에 대하여 더우기 금 또는 딸라로써 전불(前拂)할 준비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빵을 공급하는것을 거절하였다。국외반동과 동맹한 서부 제국가는 우리들이 아사하는것을 희망하였었다。그러나 쏘베트동맹이 이것을 조지(阻止)하였다。자기 자신도 한발로 말미암아 곤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쏘베트동맹은 우리들에게 빵 및 식량들을 팔아주었다。그것도 가격 크레지트 기한 및 지불방법들에 관한 아주 너그러운 조건가운데서였었다。이것은 우리들이 一九四七―一九四八년의 곤난한 식량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끄트왈드는 一九四八년 二월사건을 자세히 말하였다。그때 국내 및 국외반동은 체코슬로바키야에 자본주의 제도를 재생시키려고 기도하였으며 민족전선에 들어있는 반동적 정당들은 정부정강의 실시, 새로운 헌법의 채택 및 새로운 민주개혁들의 실시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정부위기를 선동하였다。二월사건에 있서 공산당은 반동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 도시와 농촌의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을 동원할수있었다。끄트왈드는 一九四八년五월 二十五일에 조직된 새로운 정부가 민족회의의 완전한 신임을 받았다는것을 상기시켰다。반동적 음모가들에 의하여 선동된 정부위기는 민주주의적 및 헌법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一九四八년 二월 이후에 있어서의 체코슬로바키야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관하여 말하면서 끄트왈드는 이 기간에 있어서 인민민주제도의 경제적 및 정치적 토대가 확대되었고 공고화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끄트왈드는 대회 대표자들에게 一九四八년 二월사건 이후에 실시된 중요한 정치적 및 경제적 방책들에 관하여 상기시켰다。

기타의 중요한 사실들을 강조함과 동시에 끄트왈드는 맑쓰―레닌주의의 기초 위에서의 로동계급

의 통일을 강조하였다。이 통일은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의 합동으로되는 체코슬로바키야 유일 공산당의 창건의 결과로 긴행되었다。 끄트왈드의 말에 의하면 이 통일은 국가관리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였다。 부흥된 민족전선은 완전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국가기관들을 민주주의화하며 개선함에 있어·커다란 사업이 진행되었다。二월사건의 결과로 체코슬로바키야의 대외적 립장은 강화되였고 쏘베트동맹에 대한 관계에 있어 체코슬로바키야 반동이 수행한 불성실과 위선적인 정책은 종말을 고하였다。

현재 우리 공화국과 쏘베트동맹 사이에는 우리들의 안전의 근본적인 전제로 되는 성실한 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끄트왈드는 말하였다。그는 계속하여 우리들의 안전의 중요한 조건은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와 체결한 조약들이다。우리들은 쏘베트동맹과 성실한 동맹을 견지하면서 또한 우리의 인민민주제도를 강화하면서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볼수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끄트왈드는 내가 생각하는바에 의하면 우리당과 그의 지도부는 제八차 당대회에서 지적된 당의 전반적 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우리들은 우리 국가에 로동계급을 선두로한 근로자들의 주권을 강화하였고 공고화하였다。 우리들은 대외 및 대내의 침해자들로부터 우리들의 안전을 튼튼히 하였다。우리들은 우리들의 인민민주제도를 강화하였고 사회주의의 길로의 새로운 걸음을 내어디뎠다。

끄트왈드는 체코슬로바키야공산당의 당면과업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一、우리들은 五개년 경제계획을 량적면에 있어서만 아니라 질적면에 있어서도 수행하여야 한다。문제는 우리들의 국유화된 산업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보다 더욱 많은、더욱 품질이 좋은、더욱 값싼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기에 있는것이다。우리들의 국가기업소들의 건설은 개인 기업가들이 건설 하였던 것보다 더욱 급속하고 값싸게 건설되어야 할것이다。우리들의 국가수송은 자본주의제도하에 있어서보다 더욱 민활하고 정확하여야 할것이다。우리들의 국유화된 금융경리는 개인 은행 당시보다 더욱 좋아야 하며 합리적이어야할것이다。 우리들의 국가상업은 개인상업이 일하는것보다 더욱 우수하게 일하여야·할것이다。우리들은 정권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지배의 재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경리를 자본가들이 처리하던것보다 더욱 좋게 처리하여야 한다는것을 체코슬로바키야 근로자들에게 계통적으로 깊이 해석하여야 할것이다。사회주의로의 길에 관하여 짓거

디며 또 이의 진리를 잊어버리는것은 무책임한 분자들만이 할수있는 것이다。

二、생산수준의 제고와 생산원가의 저하와 동시에 주민들에 대한 영양있는 식료품 및 일용품의 공급을 개선함이 필요하다。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인민민주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이다。자본주의에 있어서 생산은 공황과 실업을 겪을수있다。그때에 우리국가에 있어서 생산의 증가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다。식량、견직상품 및 신발들의 배급제도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임에 불과한것이다。앞으로 우리들은 전표제도를 폐지할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있다。그러나 전표제도의 폐지는 공업생산수준 여하였、우리농민들이 농산물납부를 수행하는 여하에、대외무역발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앞으로 우리들은 전표제도를 폐지하는 길로、물가를 저하시키는 길로 나아갈것이다。작일 정부는 이 방면에 있어 획기적 걸음을 의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三、우리들은 우리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부문을 발전시키며 강화하여야하며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하며 제한하여야 할것이다。국유화된 기업소 및 사회화된 기업소들은 우리들의 사회생활에 있어 또한 상업 및 공급계통 방면에 있어서도 더욱 커다란 역할을 놀아야 할것이다。이 정책은 소기업가、소상인、소수공업자들을 반대함은 아니다。그러나 소기업가、상인、수공업자들 자신은 생산의 더욱 높은 형태에 대하여 확고하게 대하며 국유화된 공공기업소와 협동조합기업소들과、협력하거나 협동조합에 자신이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것이다。

四、우리들은 소농 및 중농을 사회주의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농촌 부호들을 고립시켜야 할것이다。우리들의 국가적 공공적 및 사회적 경리는 또한 우리들의 목장들은 농촌에 있어 뚜렷한 모범으로 되어야 하며 사실에 있어 사회주의적 대농업이 유리하다는것을 소농 및 중농들에게 뚜드러지게 보여주어야 할것이다。국가 기계뜨락똘 지정소망을 비상히 확장하며 여기에 필요한 기계를 조달하는것이 필요하다。국가 기계뜨락똘에 의하여 경작되는 경작면적은 농민들의 곤난한 로력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확장되어야 할것이다。우리들의 농촌협동조합들은 식량의 매매에 있어 소 및 중 토지소유자들에게 자기의 주목을 집중시켜야 할것이다。그리고 끝으로 유일농업협동조합의 매개 맹원들로 하여금 실제적 리익을 가지겠금 하기위한 그곳으로 지향시키면서 유일농업협동조합에 관한 법칙을 점차적으로 실천화하는것이 필요한것이다。

농촌에 있어서의 모든 우리들의 정책의 근본 방법은 소농 및 중농(中農)의 광범한 층을 우리

들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사업을 똑똑히 인식케하는 방법인 것이다。 로동계급의 기본적 농민대중과의 동맹은 농촌이 사회주의로 이행함에 있어 필요할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일군들은 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일군들은 이것을 항상 고려에 넣어두어야 할것이다。 최근 수년간에 있어서 농촌에서의 사업은 더욱더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서는것이다。 즉 우리농촌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없이는 사회주의는 우리들에게 있어 건설될수없으며 사회주의로의 농촌의 이행은 소 및 중농의 기본적 대중과의 로동계급의 동맹 없이는 있을수 없는것이다。

五、사회주의로의 길위에 놓여있는 모든 자기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국가기관을 가일층 강화하며 개선함이 필요하다。

六、경험은 우리들에게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의 인테리겐차를 만들며 교양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앞으로도 로동자와 농민의 자제들이 인민경제、사회기관、보안기관、군대 및 일체 사회단체에서 책임적 지위를 차지할수있겠금 교육하는 학교 및 강습소들을 더욱 확장할것이다。 우리들은 국가、및 인민의 돈으로 너무나도 많은 반국가적 및 반인민적 분자들이 계속하여 교육을 받는것에 대하여 결코 타협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들 학교들 특히 중등학교들과 고등학교들은 인민과 국가에게 충실하며 헌신할 사람들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할것이다。 반동들이 우리들의 학교에 있게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교수들의 교육을 집요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청년을 교양하여야하며 우리들의 새로운 인테리겐차들을 진보적 세계관의 정신으로、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정신으로、맑쓰―레닌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할것이다。

七、부흥된 민족전선은 앞으로는 사회주의로의 우리들의 로정(路程)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의 동맹의 정치적 조직체로 될것이다。 이것은 물론 두말할나위도 없이 부흥된 민족전선과 과거의 민족전선의 성격을 구별할수 있는것이다。 새로운 민족전선은 자본주의를 부흥시키는 여하한 정책이건 그를 조지하여야 하며 우리들의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사회주의로 인도하여야할것이다。 부흥된 민족전선은 오늘날까지 완전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흥된 민족전선은 만일 우리들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것에 대하여 고려한다면 즉 첫째로 만일 우리들이 민족전선의 성원의 어느 하나에도 반동이 기어들지、못하게 하기위하여 엄격히 주시하며、둘째로 만일 우리들이 부흥된 민족전선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혁명적 직업동맹들、농맹단체、협동조합운동、체코슬로바키야 청년동맹、「쏘콜」협회、평화를 위한 투사들의 단체 및 기타들―을 앞으로도 통일적이며 적극적인 조직으로 되어있게 한다면 민족전선은 장래에 있어서도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것이다。 부흥된 민족전선의 지도적 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의 각급당단체들과 매개 당원들은 민족전선의 매개 성원의 모든 순진한 일군들이 민족전선의 정책을 실지에 있어 실시하는것을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이와같이하여 우리들은 부흥된 민족전선을 강화할수 있으며 반동을 고립시킬수 있는것이다。

八、우리들은 사회주의로의 길과 二월승리 이후에 있어서는 계급투쟁의 길이라는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반동은 二월에 있어 분쇄되었다고는 하나 결정적으로 분쇄되며 청산되지는 않았으며 또 그렇게할수없었다。 반동은 단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만을 변경하였다。 작년에 있어서 반동은 정부에 참가함으로써 은폐되었으며 그는 적으나 크나 합법적으로 자기의 반국가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는 지금 지하로 들어갔다。 반동의 두목과 그의 졸도들의 일부분은 외국으로 도망갔으며 다른 일부분은 국내에 남았다。 현 시기에 있어서 반도의 기본적 활동은 탐정、태공、지하선전、테로행위 및 각종의 반동적 음모들이다。 선량한 모든 사람들、부흥된 민족전선의 모든 구성원들 앞에는 반동을 고립시키며 그가 아무러한 해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오직 행정기관만이 할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과오일것이다。 반동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를 재생시키는 자기의 계획을 단념하지는 않고있다。 이것은 그네들이 은행、탄광、회사 및 공장들을 자본가들에게 반환하여 줄것을 바라며、또 토지를 지주에게 반환하여줄것을 희망하며、공화국을 파국의 길로 떠밀던 대부르죠아지의 주권부흥을 희망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결국 반동의 정책은 체코슬로바키야로부터 자유와 국가적 독립을 박탈하며 그를 어떤 새로운 오지리―항가리제국에 포함시키려는 거기에 있는것이다。 반동의 계획들은 불합리한것이다。 그러나 우리인민들은 반드시 반동의 계획들을 알아야할것이다。 반동적 음모가들로 하여금 우리들은 공화국의 해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하라! 우리들은 그네들이 정부에 들어있었을 때 반동과 그의 지도자들과 상대할수있었다。 우리들은 그들의 내막의 내막까지도 알수있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二월에 있어서와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또 미래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의 대다수의 근로자들과 함께 반동을 타파할것이라는

것을 확신할수 있을것이다。

九、우리들의 대외정책은 평화를 고수하며 우리 공화국의 안전과 독립을 고수하는데 지향되어있다。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의 정책의 로선은 명백하며 애매한 점이 조금도 없다。우리들은 우리 물의 벗을 알고있으며 그들을 항상신뢰할수 있는것이다。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위대한 해방자이며 동맹자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동맹과 우리들의 위대한 친우인 쓰딸린대원수이시다。(우뢰같은 박수가 오래 계속되었다。대표들은 충기립하였다。「쏘베트동맹만세! 쓰딸린동지만세!」의 구호를 불렀다)

우리들은 그 무엇때문에 쏘베트동맹에 감사하여야 하는가를 알고있다。우리들은 문헌의 시기와 一九三九년의 류혈적인 三월에 그리고 또한 강점과 전쟁의 암담한 시기에 누가 우리들을 지지하였는가를 알고있다。우리들은 一九四五년에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위하여 누가 더욱 많은 피를 흘렸는가를 알고있다。우리들은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와 전후의 곤난을 극복함에 있어 공명정대한 원조를 주데 대하여 누구에게 감사하여야 되는가들 알고있다。그리하여 우리들은 이 모든것으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우리들이 쏘베트동맹으로부터 떠나는것을 강요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고있다。쏘베트동맹은 우리들에게 민족적 자유와 국가독립만을 보장하여준것이 아니다。세계평화를 보지하며 강화하는 모든 투사들의 선두에는 쏘베트동맹이 서있는바 평화의 보지는 사회주의로의 우리들의 전진의 조건의 하나이다。그럼으로해서 쏘베트동맹을 선두로하는 국제 평화전선의 모든 성공은 우리 사업의 성공인것이다。우리들은 또한 우리들이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쏘베트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었으며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과의 정치적 련결을 발전시키며 우리들의 친선을 강화할것이다。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내저에 간섭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지향과 합치되는 국가들과만 동등권의 원칙위에서 통상관계와 경제관계를 발전시킬것이다。이것이 우리들의 대외정책인바 이것이 전반적인 평화를 고수하며 강화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기여로 되는것이다。

十、끝으로 우리들은 우리당—체코슬로바키야공산당의 위력과 적극성을 발전시키어야 할것이다。당의 의의에 관하여서는 별로 말하려하지 않는다。당없이는 인민민주공화국이 없었을것이며、승리의 二월이 없었을것이며、우리들이 사회주의의 길로부터 후퇴하지않는 담보가 없었을것이다。지금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은 우리 로동계급의 통일의 권화이다。」

그는 우리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있어서 기묘적 역활을 하고있다。따라서 당과 매개 당원들에게는 커다란 책임이 놓여있는것이다。계급적 원수들은 감자고있지 않는다。그럼으로 우리들은 계급적 원쑤들이 우리당내에 침입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우리 정책에 영향을 주입하며 옳은 길로부터 당을 딴길로 몰아세우려고 하고있다는것을 일상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이다。당은 한가한 환경속에 존재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포위된 환경의 영향하에 놓여있는것이다。

계급적 원수들의 지하활동을 어떻게 방지할수있는가? 이것은 공산당원들의 사상적 수준을 일상적으로 제고시키는것으로서 할수있는것이다。이 방면에 있어서는 검열시기에 이미 많은 일을 하였다。그러나 우리당의 대중적 성격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이 항상 그리고 어데서를 물론하고 높아야 한다는것을 간주케 하는것이다。우리들의 정책에 대한 다른 영향의 대립은 당원들을 당의 정책을 위한 적극적 투쟁에와 실제에 있어 그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로 준비시킨다면 문제가 되지않는것이다。당의 정책을 옹호하지않으며 모든 해로운 소문들을 반박하지않는 그런자는 의식적 당원이 될수 없는것이다。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지하는것을 우리들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당내 민주주의 비판과 자아비판의 볼쉐위끼적 원칙들을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할수있는것이다。비판을 억제하며 자아비판을 거부하며 민주주의적 회신을 기계적인 지시로 교체하는것은 당에 해독을 끼치며 당 대렬에 적대적 분자들이 잠입할수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끝으로 매개 당원들은 우리들은 결코 모든 것을 당을 위하여 바치고 있지못하다는 진심에서부터 출발하는 특유한 볼쉐위끼적 겸손을 소유하여야 할것이다。우리들이 당을 위하여 모두것을 바쳤다고는 하나 전체 당단체의 참가없이는 모든것을 당을 위하여 이바지할수 없었을것이다。당은 매개 당원도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에 도취하거나 실패에 락심하거나 하는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동무들 그러면 나는 나의 보고의 종말로 넘어가려 하는바이다。만일 우리들이 제八차대회로부터 제九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당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우리들은 이 활동의 결과가 만족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제八차대회에서 지적된 로동계급의 주권과 인민민주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당의 총로선은 수행되었다。우리들은 당신들과함께 또는 전체 근로자들과함께 二월의 준엄한 시련을 겪었다。그리하여 이 시련은 나쁘지않게 견디어냈다。二월이후 우

리들은 괄장을 끼고 앉아있지않았다。우리들은 二월승리의 결과를 강화하였고 발전시켰다。현 제九차대회는 우리당의 발전의 다음 단계를 위한 총로선을 수립할것이다。나는 이 총로선이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로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바이다。(우뢰같은 박수)이 고상한 목적의 달성은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들은 사회주의로의 로정에 있어 과거에 우리들이 당하였던것보다 더욱 심한 곤난을 극복하여야 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다。그러나 우리들은 이 곤난도 극복할것이며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로동계급과함께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것여다。그러므로 체코슬로바키야 로동계급만세!

우리들은 우리들의 근로농민들과함께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것이다。그러므로 체코슬로바키야 근로농민만세!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진적 새로운 인테리겐챠들과함께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것이다。그러므로 체코슬로바키야의 선진적인 새로운 인테리겐챠 만세!

우리들은 우리들의 청년들과함께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직할것이다。그러므로 체코슬로바키야의 젊은 후세 만세!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흥된 민족전선과함께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직할것이다。그러므로 체코슬로바키야의 부흥된 민족전선만세!

우리들은 우리들의 위대한 공산당과 함께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직할것이다。그러므로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만세!

우리들은 우리들의 강력한 동맹자인 쏘베트동맹에 의거하면서 상기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것이다。그러므로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동맹 만세!

쓰딸린동지만세!

(오래 계속되는 우뢰와같은 박수、대표들은 총기립하여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의 영예를 위하여 그의 지도자 크레멘트・꼬트왈드의 영예를 위하여、쏘베트동맹과 쓰딸린대원수의 영예를 위하여 오래 힘찬 박수를 보냈다。)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연구자료 (二〇)

외국무장간섭과 쏘베트국가가 이를 격파 승리한 원인

박 정 호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로씨야에서 지주자본가들을 전복하고 새로운 형태인 쏘베트공화국을 수립하였다。전복된 계급들은 인류 력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탄생된 로동자와 농민의 주권을 전복하려는 목적하에 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과 련결지어 국내전쟁을 조직 진행하였다。

一九一七년 十월혁명이 승리적으로 진행된 결과에 탄생한 쏘베트국가는 모든 곤난과 희생을 무릅쓰면서 혁명에서 얻은 성과 특히 청소한 자기자체를 공고히 하기위하여 부득이 一九一八년 三월에 독일과 브레스트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강화로써 휴식을 전취한 쏘베트국가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쏘베트정권을 강화함에、사회주의적 건설을 전개함에、붉은군대를 창설강화함에 최대한도로 이 휴식기를 리용할수 있었다。

그러나 전세계 근로인민들의 지지와 동경을 받아가면서 그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국내적으로 혁명적인 경제적 제대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쏘베트주권이 공고하여 지는것은 결코 세계 제국주의자들 특히 교전 련합국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커다란 위험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그뿐만 아니라、十월혁명의 영향은 전세계 근로인민들 특히 교전국간의 전선과 그 국가들의 후방에서 로동자 농민 병사들간에 평화와 휴식에 대한 동경이 높아지게 하였으며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들의 혁명적 세력의 장성을 촉진시켰다。

브레스트 강화조약은 또한 련합국 진영의 군사적 정세를 불리케한 다른 위구(危惧)에서 련합국 진

영제국주의자들의 반감을 일으켰다。

세계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에서 장성 강화되어가는 혁명세력을 억제하며 제一차 제국주의 전쟁을 승리적으로 종결지으며 자기들의 지배권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세계혁명의 등대로 되어있는 쏘베트정권을 타도할 목적을 세웠던 것이다。 쏘베트국가에 대한 외국제국주의자들의 반쏘적 침공세력은 국내의 타도된 반 혁명계급과 계층들과의 련합으로서 실천되었다。 十월혁명에서 자기의 주권을 정복 당한 로씨야·지주 자본가 및 그들의 군관들이 쏘베트주권을 전복하고 자기들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발악적 책동은 더욱 심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쏘베트정부는 사회주의 조국이 위험중에 처하였음을 선포하고 전 인민을 투쟁에로 불렀다。 볼쉐위크당은 로동자와 농민들을 외국 침략자와 부르죠아—지주적 백파들에 반대하는 조국전쟁에 궐기시키었다。

급속한 시일내에 외국무력 간섭자들—영국 불란서 일본 미국은 쏘베트국가의 四분지三의 지역을 선전포고도 없이 비밀리에 강점하였다。

一九一八년 四월四일밤 일본침략자들은 쏘베트 원동 우라지워스또크에서 야수적 음모(중국인 거리에서 악한(惡漢)에 보수를 주어 일본인 二명을 죽이다)를 조직하였다。 이 책임 추궁을 구실로 十만의 대군을 상륙시켜 쏘베트를 해산시키고 이 지대를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계획하였다。

一九一八년 중시기 영국—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북부 로씨야의 아르한겔쓰크와 무르만쓰크를 점령한후 쏘베르정권을 타도하고 소위「북로씨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 영—불 제국주의자들의 언론기관이나 국회에서의 토론은 표면상으로는 로씨야를 방조해야된다는듯이 떠들었으나 실상은 독일과의 전쟁에 로씨야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 밑에서 많은 장교들을 로씨야지역에 파견시켜 공작시켰다。

이러한 진상임에도 불구하고 뜨로쯔끼파는 영국제국주의자들이 독일의 략탈적 요구에서 쏘베트국가를 구원하여 준다고 하면서 그들은 무르만쓰크에 영국군대의 상륙을 허가하였던 것이다。 무르만쓰크 쏘베트 부위원장 유리예브는 영국밀정이 였으며 그는 또한 뜨로쯔끼의 지시 밑에서 공작하였다。

북깝까즈에서는 끌르닐로브 알렉쎄예브 데니낀이 영—불의 방조하에 반동「의용군」을 조직하였으며 까사끄 상층 분자들의 반란을 일으켰고 쏘베트를 반대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불가강의 중류 지방과 씨비리야에서는 제一차 세계대전중에 포로로 되었다가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체코슬로바키아군단(六만명)이 영—불 제

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쏘베트 정권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반란군대를 위하여 불란서는 一九一八년 三월부터 五월말까지 一、一〇〇만 루블리를 지출하였으며 영국은 二五〇만 루블리를 지출하였던것이다。

이렇게하여 대규모적 반혁명 무장반란은 체코군단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은 도처에서 쏘베트를 해산하고 볼쉐위크들을 학살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동서에서 협격(挾擊)하여 볼가강 연안에 집결하려는 것이었다。

외국군단이 일시적으로 이와같이 승세를 차지한 원인은 첫째로 볼가강 연안과 우랄지역에서는 一九一七년말부터 반란을 일으킨 두또브장군과의 투쟁에 주력을 돌렸고、원동변강에서는 쎄묘노브장군과의 투쟁에 주력을 돌린 관계로 적위병사들의 력량이 분산되어있었다。

둘째로 체코군단에 비하여 장교가 쏘베트측에 부족하였다。

셋째로 체코군단들에게 대하여 전체 로씨야의 반혁명들이 특히 씨비리야 꾸락크들이 방조해준데 있다。

넷째로 뜨로쯔끼파 멘쉐위크들이 붉은군대 지도부에 많이 있었으므로 고의적인 파괴사업을 조직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대비밀을 체코군단에게 제공하였다。 뜨로쯔끼가 임명한 우파의 붉은군대 총사령、마끼(에쓰·얼)는 우파 방위계획을 체코군단에게 변절적으로 넘겨주었다。 뜨로쯔끼는 체코군단의 반란 위험성을 예기하고 그 군단을 무장해제시켜서 분산적으로 수송하자는 쓰딸린의 제의를 거부하고 무장시킨채 집단적으로 수송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뜨로쯔끼는 체코군단을 반대하는 붉은군대·총사령관 마스니꼬부를 五일간이나 볼려다 놓고 브내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체코군단이 씨비리야의 각도시를 용이하게 점령케 하였다。

돈강 지구 일대에서는 반동장군 끄라스노브와 마몬또브가 독일 제국주의자들의 음밀한 방조하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돈강지역 일대를 점령하고 쏘베트정권을 반대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독일제국주의자들은 영—불 무력간섭자들의 대립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따로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반혁명 우크라이나•라다를 승인하면서 략탈적으로 五〇만대군을 쏘베트국가 지역에 침공시켰던 것이다。

아후가니스탄、낄샤지방으로부터 영국군대는 뚜루께스탄、중앙아세아에 진격하여 여기에도 반혁명괴뢰정부를 수립하였던것이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쏘베트국가는 외국무력간섭자들에 의하여 림시로나마 우크라이나 깝까즈 시비리 원동 우랄과 중앙아세아를 상실하였으며 쏘

베트국가의 중앙지대에서는 토호들의 반란이 폭발되였다。

쏘베트는 외국무력간섭자들로서 봉쇄되였으니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은 큰 위기에 부닥치게 되였다。그러나 쏘베트국가의 로동계급과 볼쉐위크당은 의기를 상실하지 않았으며 보다 더 힘차게 조국 방위투쟁에 전체인민을 총궐기시켰다。

볼쉐위크당은 전국을 전진(戰陣)으로 선언하고 외국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백파군대와의 투쟁에 모든 힘을 경주할것을 대중에게 호소하였으며 사회주의적 조국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영웅적 공훈에 로동자들을 고무하면서 『모든것을 전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당은 전체인민을 외국무력간섭군을 반대하며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격멸하는 조국전쟁의 체제하에 쏘베트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들은 제때에 조직동원시켰다。쏘베트정권과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방력 조직강화에 힘을 돌렸다。

붉은군대 조직은 지방、군、도、주들에서 처음 자원적 원칙하에 조직되어 갔다。레닌이 조직한 로농국방쏘베트는 전선에 대한 병사、량식、피복、무기의 공급사업을 위하여 후방에서 거대한 사업을 조직하였다。병사에 대한 공급을 확보하며 군사훈련을 후방의 각지에서 조직하여 군대내에 야체이까들을 조직하여 당적 지도를 집중히 돌리었으며 낡은 병사와 장교들을 재교양하여 그들을 검열하기 위하여 매개 련대내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청소한 붉은군대는 실지 전투속에서 장성강화되어 갔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강대한 적을 구축할수 없었다。붉은군대는 프로레타리아트조국을 방위하는 군대로서 량적 질적으로 구비되어야 할것이였다。그리하여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一九一八년五월二十九일 의무병제도 실시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국가는 의용병제도를 의무병제도에로 전환시킴으로써 강철같은 규률을 가진 정규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로동자와 농민들 속에서 새로운 타입의 많은 군사간부를 양성함으로써 붉은군대는 단기간에 백만 대군으로 장성 강화되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세계에서 해방된 로동자와 농민의 첫군대、쏘베트국가의 각민족들사이의 형제적 군대、국제주의 사상으로써 교양된 붉은군대의 전투력을 백배로 강화하게 하였으며 적들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었으며 장성 강화되어가는 붉은군대의 승리적 성과는 현저히 나타났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적 진공으로 말미암아 당시 가장 긴급히 제기되었던 곡물전취문제도 쓰딸린의 지도밑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곡물전취를 위한

쓰딸린의 투쟁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곡물지대의 중심지인 짜리찐을 확보케하였다。

이러한 초보적 최초의 승리를 거둔 붉은군대는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의 장기적 전투에 대하기에 만반의 대책이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볼쉐위크당과 쏘베트정부는 총후의 모든것을 전선에 복종시킴으로써 장기전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니 모든 힘과 자원을 승리적 전쟁조직에 집중하였다。

一九一八년 五월九일 정부는 식량인민위원부에 곡물거래의 국가독점을 지시하였으며 六월二十八일에는 중소산업까지 국가통치하에 넣을데 대한 법령을 내리었다。정부는 전반적 의무로동제를 실시함으로써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말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공민전쟁의 곤난한 시기에 국가방위상 조건하에서 취한 림시적 성질을 가진 이러한 제방책 즉 잉여량곡수집제、의무병제실시、전반적 의무로동제실시、전체산업의 국유화의 전체계를 전시공산주의라고 이름지였다。

전시공산주의는 국가방위상 특별히 곤난한 제조건때문에 환기되였고 또 림시적인 성질을 가진 제방책이였으나 쏘베트국가가, 만일 공민전쟁의 불길속에서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특히 식량정책에 대한 쏘베트주권의 시책에 대하여 농민들은 이를 옳게 인식하였다。농민들은 쏘베트주권을 지주와 자본가들의 공격으로부터 고수하며 十월혁명에서 받은 토지를 영원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잉여곡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는것을 리해하였던것이다。농민들은 곡물의 풍부한 저축이 없이는 붉은군대가 강력할수 없으며 한걸음도 적을 격퇴할수 없다는것을 인식하였으며 또한 붉은군대를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자들의 혁명적 방위투쟁을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였다。농민들은 잉여곡물을 국가에 바침으로써 혁명을 구원하였던것이다。따라서 공민전쟁의 곤난한 시기에 로써야 로동계급과 농민들간에 굳은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로농동맹의 강화는 쏘베트국가가 공민전쟁에서 승리한 가장 결정적 조건으로 되었다。

× × ×

쏘베트국가가 외국의 무력간섭을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있던 당시 一九一八년 제二반기 초에 이르러 세계제국주의전쟁 행정에서 전쟁은 련합국에 유리하게 전화되었다。독일제국주의의 력량은 몹씨 쇠약하여졌으며 독일군대는 와해하였다。또한 독일내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분격은 날로 비등되었으며 드디어 一九一八년 十一

월초에는 독일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으니 독일은 할수없이 전패국으로 자인하고 련합국에 평화를 요청하였다.

독일의 패전은 반쏘 무력간섭을 진행하고 있는 련합국이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지배적 세력을 차지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의 반쏘 무력간섭을 가강시키는 방면에서 쏘베트국가에는 불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쏘베트국가에 더큰 유리한 조건을 주었다. 첫째로 략탈적인 브레스트 강화조약을 폐기할수 있었던것이며 둘째로는 비록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었지만 독일 및 오지리에서 혁명의 결과 공화정체가 수립된 사실과 웽그리야에서 쏘베트공화정체가 수립된 사실은 구라파에서 무력간섭자들을 지역적으로 쏘베트국가에서 격리시켰으며 구라파에서 혁명을 유발시킴으로써 쏘베트국가의 방위와 공고화의 용이성을 보장하여주었다.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一九一八년十一월十三일 조성된 정치적 형편을 타산하고 략탈적 브레스트 강화조약의 철폐를 선언하였으며 브레스트 강화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적으로 독일이 강점하였면 쏘베트로씨야의 지역으로부터 붉은군대는 독일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하였으며 붉은군대 정규군과 빨찌산의 활동으로 一九一九년 一월까지 독일군들은 일부잔재를 제외하고 도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쏘베트인민들은 독일강도들을 승리한 것으로써 공민전쟁이 종말된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독일을 타승한 렬강 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여 그들의 무력을 총집중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얼마후에 쏘베트국가에 대한 봉쇄를 정면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쏘베트국가는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이나 약품이나 식량등을 수입할수 없게되었다. 또한 렬강 제국주의자들은 붉은군대를 전멸하며 쏘베트공화국을 파괴시킬 계획을 작성하고 로씨야 국내의 반동파들에게 각종 무기와 전쟁자재를 공급하여 주어 반동군을 무장시켜 반쏘베트적 진격을 개시하였다.

처음 련합국은 꼴챠크에게 커다란 희망을 부치고 그를「로씨야의 최고 통치자」라고 까지 선언하였다. 꼴챠크는 시베리야의 군소 반혁명괴뢰정부들을 규합하여 한개의 통일적 괴뢰정부를 세우고 그 수위에 앉았다. 이와같이 위급한 정세가 생겼을때 레닌은 국방쏘베트의 명의로써 쓰딸린과 드제르신쓰끼를 파견할것을 제의하였다.

전선에 파견된 쓰딸린은 우선 다음과 같은 실패원인을 적발하였다.

(1) 붉은군대 성분이 좋지못하였고(지주, 자본가들의 자식이 많았다) 뜨로쯔끼의 시도에 의하여 낡은 군대장교들이 수다히 있었다.

(2) 군대내에서 선전사업, 정치교양사업이 없었다.

(3) 반혁명음모가 군대내에 차있었다.

(4) 참모부에는 전략적 계획이 없었고.

(5) 군대와 후방과의 련결을 보전못하고 있었다.

(세납과중으로 빈농층에까지 반감을 일으켰다)

쓰딸린은 이 모든 결함을 급속히 제거하였으므로 꼴챠크의 지시에 움직이는 체코장군 가이다 군대를 격멸시켰다.

一九一九년초 백로씨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군대에 대하여 붉은군대는 승리적 성과를 전취하였다.

외국군대가 이렇게 패망한것은 그들 군대내에서 사상통일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적의 군대내에서 혁명적 투사들의 무장간섭반대, 폭동조직, 귀국선전등의 사업이 큰 역활을 놀았던 까닭이다.

서부와 남부에서 붉은군대가 투쟁하는 동안 동부에서 반혁명 군력이 장성하여 갔다.

쏘베트군대가 분산되어 있는것을 리용하여 꼴챠크에게 가장 큰 희망을 걸었던 련합국무력간섭자들은 동부로부터의 공격 즉 꼴챠크의 진격을 주력으로 삼고 서부 북부 남부 반혁명부대의 호응으로서 진공을 개시할것을 계획하였다. 련합국 무력간섭자들의 본격적 진격 즉 안딴트의 첫 진격이 시작되었다.

국내에는 이 시기부터 완전히 전선이 형성되고 혁명과 반혁명과의 전선에는 수백만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공민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여기에 관하여 쓰딸린은「첫 진공은 一九一九년 봄에 진행되었다. 이 진공은 련쇄적 진공이었다. 왜냐하면 꼴챠크, 데니낀, 파란지주, 유제니츠, 뚜루께스딴과 알한겔스크에서 영국-불란서 부대들이 유일한 진공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진공의 중앙점은 꼴챠크에게 있었다」라고 하였다.

레닌은 꼴챠크진공을 격파하는것이 가장 중심임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꼴챠크가 광대한 지역과 주민을 관활한것과 우랄 산업지대를 소유한것이며 거대한 시비리야철도를 소유함으로써 외국 특히 일본과의 련결을 그가 긴밀히 취할 조건을 가지었던 등등에 기인한다.

그렇기때문에 당시「로씨야공산당중앙위원회테제」에 지적하기를「반혁명의 사등이뼈 산맥」인 꼴챠크진격을 격파하는데 모든것을 돌리라고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꼴챠크의 진공이 시작되었을때 벌써 꼴챠크와 데니낀의 련결을 예견하고 그 련결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끼로브를 그 임무에 임명하였다. 끼로브는 아스트다한을 방어하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꼴챠크를 격멸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一九一九년 三월三일 꼴챠크는 붉은군대 제五군

단을 타격하면서 진공하여 볼가강에 도달하였고 이와 호응하여 데니낀은 루간스크시와 두바스일부를, 유제니츠는 五월十四일 진격을 개시함으로부터 붉은군대는 에스또니야, 라트비야에서 퇴각하게 되었다。

• 쏘베트국가는 그 당시 적의 근본적 힘인 꼴차크진격을 격파하기 위하여 분산된 붉은군대의 힘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당시 동부전선 붉은군대는 十二만에 불과하였다。

국가와 당은 결정적 대책을 강구하였다。一만명 이상의 공산당원들과 三,○○○명 이상의 공청원들과 직맹의 모집에 응모한 三만명의 직맹원들이 동부전선에 파견되었다。 동부전선 총지휘관에는 프룬제가 임명되었다。 강화된 붉은군대는 붕괴한 전선을 회복시켜갔다。 프룬제는 二만五천명의 붉은 진격대를 조직하여 우파를 점령하면서 적의 후방을 습격하였다。 꼴차크는 이것이 부분적 저선에서의 진격인줄로 착오함으로써 붉은군대의 총진격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동부전선에서 붉은군대가 우랄에 당도하였을때 반역자 뜨로쯔끼는 우랄산에서 진군을 멈추며 군대를 동부전선에서 남부전선으로 이동시키라는 변절적 계획을 제의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꼴차크군을 종결적으로 파멸시킬것을 요구하면서 이 계획을 결정적으로 반격하였다。 만일 이때에 뜨로쯔끼의 계획대로 하였다면 꼴차크는 씨비리에서 일본 영국등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로써 군세를 회복하여 또다시 쏘베트공화국을 위협하였을것이다。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는 뜨로쯔끼를 동부전선의 작전지도로부터 떠날것을 명령하였다。붉은군대는 우랄에서 꼴차크군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으며 그를 씨비리야로 구축하였다。년말에 이르러 볼쉐위크들의 지도하에 조직된 빨찌산의 원조를 받은 붉은군대는 꼴차크군대의 잔재를 끝까지 용이하게 소탕하였다。

一九一九년 五월에 동부전선에서 붉은군대의 공세를 약하게 하여 꼴차크를 원조할 목적과 붉은군대로 하여금 두개의 전선을 가지게 할 흉악한 목적밑에 렬강 제국주의자들은 반동두목 유제니츠에게 뻬뜨로그라드를 진공할것을 지시하였다。과연 유제니츠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발원지인 뻬뜨로그라드의 문전에 박도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뻬뜨로그라드를 구원하기 위하여 레닌의 제의로 쓰딸린을 파견하였으며 쓰딸린은 붉은 병사들을 격려하며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一九一九년 五월十七일 쓰딸린은 뻬뜨로그라드에 도착하였다。그는 우선 병사들을 조직하여 시내의 부르죠아 가옥들을 수색하였다。결과 七,○○○개의 단총과 수백개의 장총을 발각하였으며 루

마니야 대사관에서는 큰 대포를 얻어보았다。 적이 얼마나 주밀한 계획을 세웠는가 알수있다。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적이 가까운것을 보니 음모가 있을듯하다』라는 당시의 레닌의 편지에 대답하면서 쓰딸린은 『당신이 리론적으로 말한것을 나는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렇게하여 후방의 안전을 미연에 도모하면서 륙, 해, 공군내에 볼쉐위크들을 파견하여 완전히 틀이쥐었다。

이럼으로써 영국군대의 방조로 일으킨 크라스나야·볼까 요색지와 쎄라야·로-샤지 요색지의 반란을 진압하고 유제니츠와 만네르게임을 패배시켰다。

꼴차크를 격멸시키고 유제니츠를 패배시킴으로써 렬강 제국주의자들의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제一차 행군은 실패당하고 말았다。

당시 레닌은 『꼴차크에대한 승리에관하여 로동자와 농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뿌라우다』 신문에 발표하였다。레닌은 꼴차크와의 초보적 승리에, 자만하지말것을 쏘베트인민에게 주의시키면서 대략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첫째로 지주 자본가의 진격으로부터 로동자와 농민들의 주권을 옹호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붉은군대가 필요한것이다。 쏘베트인민들은 그를 조직하였으며 그를 적극 원조하여 짜리자군을 전승하였을뿐만아니라 희를 방조한 영 불 미등 세계자본국가의 자교들에게 까지도 승리하였다。그러나 앞으로의 적들을 계속 격파하기 위하여 각자는 모든 수단 모든 지능을 붉은군대 강화사업에 바쳐야 할것이다。이것이 자각한 로동자 농민들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이다。…누구든지 붉은군대를 헌신적으로 방조하지 않거나 붉은군대에 복무한다 할찌라도 그가 군대의 질서와 규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혁명의 변절자이며 반동을 방조하는 자인것이다。그런까닭에 레닌선생은 이런 분자들을 무자비하게 또는 신속히 퇴치할것을 로동자와 농민과 붉은군대 병사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붉은군대는 풍부한 식량 저축이 없이는 강력할수 없으며 적을 격파할수 없다。왜냐하면 식량이 없이는 군대를 자유로 이동하여 전투작전을 세울수 없으며 군대를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자들을 보장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지주 자본가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원하는 농민들은 다량의 곡물을 생산하여 잉여곡물을 신속히 쏘베트국가에 제공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것이다。

셋째로 꼴차크 및 데니낀등의 적들을 철저히 소탕하기 위하여 쏘베트인민들은 엄격한 혁명적 질서를 준수하여야한다고 하였다。쏘베트질서에 대한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나 아무리 사소한 태만이라 할찌라도 그것을 적들은 곧 리용하는 것이다。타도된 지주 자본가는 아직 철저히 소탕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가면을 쓰고 쏘베트주권을 파괴하기위하여 좋은 기회만 바라면서 범죄행위를 하는것이다。

이럼으로써 레닌은 쏘베트인민들에게 쏘베트정부의 법령과 명령을 준수하여 지주 자본가 태업자 배신자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격파할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넷째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은 꼴챠크로 하여금 반동세력을 규합하여 활동하도록 원조하였으며 실지에 있어서 백파들의 방조자인것이다。그들은 께렌쓰끼활동기나 꼴챠크 활동기에 말로서는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 실지에는 백파군 방조자의 역활을 하였었다。

다섯째로 국가의 엄중한 시기에「자본가들의 약속에 유혹되어 자본주의를 방조하는 구령에 타락된 무원칙한 자들과 동요분자들을 철저히 타도하라! 자본주의와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로력자동맹、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이 마지막것이 꼴챠크군과의 투쟁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레닌은 이 마지막 로동자와 농민간의 공고한 동맹이 꼴챠크의 반동을 철저히 소탕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된다고 하였다。여기에서 말하는 로농동맹은 중농까지 포함한 농민과의 로동계급의 동맹인것이다。

레닌은 一九一九년 三월에 있은 볼쉐위크당 제八차당대회에서 농촌사업에 대한 보고에 一九一八년 가을부터 쏘베트정권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중농문제를 제기하였다。그리하여 레닌은 그후「농촌에서 당사업의 과업은 삼위일체(三位一体)다」(쓰딸린)란 한개의 일반적 원칙에 결합시킨 구호를 제기하였나니 그것은 즉「부농들과의 투쟁을 잠시도 정지하지 말며、다만 빈농에만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타협에 도달할줄 알아야 한다」라는 원칙인것이다。

레닌은 이 원칙으로써 농촌에 있어서의 당정책의 무기고를 더 풍부하게 하였으며 계급투쟁의 새경험의 총결에 기초하여 새구호로써 농민문제에 관한 맑쓰주의적 학설을 풍부하게하였다。이것은 중농에 관한 볼쉐위크당 정책의 전환이며 중농의 중립정책으로부터 그들과의 공고한 동맹정책에로의 이행이다。

제八차당대회 이전에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중농의 중립정책을 실시하였다。이 정책은 중농이 부농편에 가지못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부르죠아지의 편에 서지않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백파군 및 외국 무력 간섭자들과의 투쟁을 위해서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위해서 중농의 중립정책으로부터 공고한 동맹정책으로 넘어가야 할것이였다。

토지법령의 이후에 쏘베트농민들은 점점 중농화하여갔고 따라서 중농은 농촌주민의 대다수를 점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중농의 동태 여하는 즉 어면 계급이 중농을 자기편으로 인입하느냐—프로레타리아트나 부르죠아지냐 하는문제는 공민전쟁의 결말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되는것이다。

볼쉐위크당의 중농민에 대한 정책의 전환은 무력간섭자들과 백파군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에서와 쏘베트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결정적 역활을 놀게 하였다。

× × ×

동부에서와 뻬뜨로그라드에서 결정적 타격을 받아 계속 패배하게된 외국무력간섭자들과 백파군대는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점을 남쪽에 옮겼다。즉 그들은 데니낀에게 최대의 희망을 걸었다。그리하여 련합국은 노보로시스크항구를 경유하여 데니낀에게 무장을 적극 공급하였다。一九一九년 七월이후 수개월간에 총 二十五만자루、대포 二백문、땅크 三十대、수다한 포탄을 공급하였고 많은 장교들을 파송하였다。

一、쓰딸린이 지적한 바와같이、이 두번째 진공도 렬쇄적 진공인 것이다。그것은 결정적으로 패망당한 꼴챠크를 제외하고도 데니낀、파란지주、유제니츠의 공동적 진격이였기때문이다。뿐만아니라 혁명결과에 민족자결권을 받은 파란、리트바、라트비야、구루지야、필란지야、아제루바이쟌、아루메니야등 군소 국가들이 데니낀을 방조하여 나섰다。

오늘 반쏘선동자의 가장 원흉이며 그 시기 영국군무상이였던 쳐칠은 당시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여 十四개국가 진격을 조직하였다고 떠들어대였다。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이 두번째 행군은 一九一九년 여름부터 시작된 주력군 데니낀 군대는 일시적 우세를 가지게 되었다。총면적 八十一만평방볼스트의 지역과 四、二〇〇만 인구를 그의 관활하에 두었다。그 지대는 석탄、광석、산업의 중심지로서 모쓰크바에서 머지않은 지대였다。이럼으로써 온갖 반혁명들이 데니낀에게 최대의 희망을 걸고 집결하여 갔다。그리하여 데니낀은 강점지역에 이전 지주、자본가、귀족이 지배하는 국가주권을 조직하였다。

一九一九년 가을까지 데니낀은 일로 세력을 확장하여갔다。그러나 데니낀의 기본적 약점은 그의 우세를 오래 둘수 없었다。그의 대 로씨야 민족정책은 그를 지지하던 군소국가들의 반의를 초

대하였고 광대한 전선에 총당키 위하여 로동자 농민으로서 강제로 조직한 그의 군대는 유일성은 보전못하게 되였다。 머지않아 데니낀이 패망당할것은 정확한 일이였다。

그러나 뜨로쯔끼는 남방전선에서 사업을 변절적으로 와해시킨 까닭으로 붉은군대는 일시적으로 전패를 당하였다。

데니낀의 근본목적은 쏘베트주권의 심장인 모쓰크바를 탈취하는데 있었다。 그것을 위하여 三개 진로를 계획세웠던바 一九一九년七월三十일 데니낀은 모쓰크바 진공의 지령을 내리였다。

제三군(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왼쪽전선)의 총지휘관 마이·마예브스끼는 모쓰크바에 선착할것을 맹약하였고 철갑차에는 "모쓰크바에로" 표어를 쓰는등 광태를 부리였다。 이때 돈바스의 재벌들은 모쓰크바에 선착하는 자에게 一〇〇만루블리의 상금을 걸었다고 광포하고 있었다。

八월十일 붉은군대를 박멸할 목적으로 데니낀은 붉은군대의 후방깊이 마몬또부의 기병대를 침공시켜 땀보브、피즈로부、아레츠등지를 점령하고 농촌에서 략탈을 마음대로 감행하였다。

데니낀의 모든 계획을 통찰한 레닌은 전선의 붉은군대 주력군은 조금도 삭감시키지말고 지방적 힘으로 이 마몬또브의 기병대를 격멸시킬것을 지시하였다。

데니낀군대는 十월六일 워로네즈를 점령하고 十월十三일에는 오룔을 점령하였다。

한편 붉은군대 력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반혁명들은 다른 전선에서 진공을 조직하였다。 계속적으로 패주하여가던 꼴차크가 마지막 힘을 수습하여 수일간 진격을 시도하였고 북방에서 길렌이 진격을 하였으며 유제니츠가 뻬뜨로그라드에 재차 진격하여왔다。 파란지주들이 백로시야에 침범하였다。

국제 및 국내의 모든 반혁명자들은 이때 쏘베트정권은 필연적으로 멸망하리라고 간주하면서 기뻐날뛰었다。

레닌은 전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적 혁명의 비상한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또다시 선언하면서 『일체를 데니낀과의 투쟁에』라는 구호로써 호소하였다。

볼쉐위크당 대오에는 쏘베트정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에 준비된 수천명의 로동자 농민 붉은군인들이 들어왔다。 우수한 볼쉐위크들과 선진 로동자들은 전선으로 파견되었다。 二五、〇〇〇명의 공산당원과 一六、〇〇〇명의 공청원이 남부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五、〇〇〇명의 당원이 유제니츠를 반대하여 파견되였고 一〇%의 직업동맹 맹원들이 응모되어 전선에 파견되였다。

새 력량의 계속적 장성、로동자 농민들의 애국적 영

웅심、무궁 무진한 후비는 적을 승리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던것이다。

볼쉐위크당중앙위원회는 데니낀을 섬멸하기 위하여 쓰딸린 워로실로브、오르드존깃드제、브죤늬 등 여러동지들을 남부전선에 파견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구조건을 당에서 승인받은다음 전선에 부임하였다。 즉 뜨로쯔끼가 남부전선에 간섭말것、남방 전선간부들중 쓰딸린의 제의에 의하여 파면시킬수 있게할것、 전선에 새일군을 파견할것 등이다。

쓰딸린은 반원형으로된 장거리에 걸친 복잡한 전선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뜨로쯔끼가 작성한 작전계획을 철폐하고 새 계획을 세웠다。 뜨로쯔끼의 계획은 짜리찐—돈 초원—노보로시스크를 경유하여 데니낀의 후방을 돈다는것이였다。 이것은 필연코 붉은군대를 패배케 하는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그 진공로의 연도(沿道)에는 반혁명 까사끄들이 많이 사는곳이다。 대문에 붉은군대가 적대지역을 통과하게 되며 작전상 몹시 불리한 것이다。

둘째로 광활한 초원지대이므로 교통망이 불편하다。 이것은 붉은군대의 수송력을 억제한다。

셋째로 데니낀군대가 이미 오룔까지 들어와서 모쓰크바에 박도한 때에 붉은군대가 우회작전을 쓴다는 것은 적에게 시간을 허용하여주는것이다。

넷째로 적이 점령한 산업과 곡물의 중심지를 장시간 적의 손에 둠으로써 그들에게 리용시키는것으로 된다。

쓰딸린이 변경한 작전 계획은 하리꼬브—돈바스—로스또브의 진로이다。

이 작전계획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유리한 조건은

첫째로 진로의 연도(沿道)가(오룔、뚤—라등)로동자의 지역이다。 때문에 붉은군대는 주민의 긴밀한 지지밑에 행동을 취할수있다。

둘째로 데니낀이 점령하고있던 철도 즉 보로네즈—로스또브철도를 탈취할수 있으며 붉은군대의 수송력을 강대히 할수있다。

셋째로 적을 동서양쪽으로 분렬시킨다。

넷째로 적 진영내에서 충돌을 조장한다。 례로서 마흐노와 데니낀간의 대립、까사끄와 데니낀간의 대립등이다。

다섯째로 다량의 석탄을 얻을수 있으므로 붉은군대의 전력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모쓰크바에 대한 적의 위혁을 정면으로 분쇄하는 길인것이다。

쓰딸린은 오르드존깃제를 수위로 하는 진격대를 조직하여 데니낀의 『지원병』을 청산할 과업을 맡겼다。 十월十一일—十월二十일간 맹렬한 혈전의

끝에 붉은군대는 크로마ㅡ오룰지방에서 적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면서 오룰을 탈회하였다。브죤늬의 기병대는 보로네즈 부근에서 마몬또프의 기병대를 분쇄하고 十월二十四일 보로네즈를 점령하였다。브죤늬 기병대는 계속 진공하여 까스똘나야 부근에서 데니낀 기병대에게 최후적 타격을 주었다。영웅스러운 붉은 군대의 첫 기병대는 이러한 승리적 격전속에서 탄생하였다。十一월十一일 쓰딸린의 지도하에 붉은군대 첫 독립적 기병군단이 형성되어 정치지도자로서 워로실로브、사령관으로 브죤늬가 임명되었다。

데니낀은 퇴각하여갔다。우크라이나 인민들은 데니낀의 후방에서 볼쉐위크들의 지도밑에 영웅적 투쟁을 하였다。이때 마흐노는 데니낀을 반대했으나 그는 마음대로 략탈하면서 자기배를 채우고 있었다。

쓰딸린의 지휘하에 一九一九년하순 오룰부근과 보로네즈부근 결전에서 데니낀은 섬멸되었다。一九二〇년 초에는 전 우크라이나와 북 깝까즈가 백위군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남부전선에서 결전이 거의 종결지은 때에 유제니츠 군단도 뻬뜨로그라드부근에서 격파되었다。영웅적 프로레타리아트는 이 혁명성취의 제일도시를 방어하기 위하여 몸을 바쳐 궐기하였다。공산당원들은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제일선에 섰다。十一월七일 그도부를 탈회하고 十一월十四일 얀부르그를 탈회하였다。격렬한 투쟁의 결과 백위군은 분쇄되었으며 다시 국의(에스토니야)로 구축되었다。

이렇게하여 붉은군대는 데니낀과 유제니츠군을 격파하였으며 무력간섭자들의 제二행군을 승리하였다。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남방에서 쓰딸린의 공훈을 찬양하여 첫 적기훈장을 수여하였던것이다。

련합국의 제二차 진공은 제一차 진공과는 다른 외부적 환경밑에서 진행되었던것이다。

첫째로 끌챠크 세력이 재기할수 없게 되었으며 둘째로 련합국 인민들이 쏘베트에서 손을 떼라는 강경한 요구를 내 들었고 그들 국회내에서도 평화체결 문제가 강경히 제기되는 시기였다。셋째로 진공에 참가한 十四개국가중 군소국가들이 데니낀과 유제니츠 정책을 체험한후 동요한 그것이다。

련합국의 제二차 진군의 파탄은 다만 쏘베트공화국의 군사적 승리로서만 되는것이 아니었다。이것은 쏘베트공화국의 대외정책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련합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에스토니야 라트비야 및 빨찌해 연안의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쏘베트국가를 반대하여 진출시키려고 전력을 다하였다。그러나 이 모든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레닌의 지도하에서 쏘베트 외교정책은 이 국가들과 강대한 야만적 제국주의국가들간의 모순을 훌륭하게 리용하였다。이 적은 국가들중에서 어느 국가를 물론하고 약소국가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적 독립을 유린하는 강대한 제국주의국가들의 정책을 실지에서 체험하였다。이와동시에 이 국가들은 끌챠크、유제니츠、데니낀 등의 승리는 자기들의 독립의 종말을 의미하며 옛날의 로씨야ㅡ인민의 감옥을 복구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았다。제국주의의 략탈과 강압의 대외정책에 레닌은 평화와 제민족의 독립을 존중하는 쏘베트국가의 대외 정책으로써 대립시켰다。一九一九년 十二월 빨찌연안 三국과의 간에 평화가 체결되었다。그리하여 쏘베트국가는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긴장한 이 투쟁에서 또한 승리하였다。

야수와같이 흉악한 제국주의자들은 백파군이 분쇄되며 무력간섭이 성공되지못하며 또는 쏘베트정권이 전국적으로 공고화 하여가는 한편 서구라파에서는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간섭자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격분이 날로 증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주하자 그들은 쏘베트국가에 대한 자기들의 태도를 고치기 시작하였다。一九二〇년 一월에、영국、불란서、이태리는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봉쇄를 정지한다는 결의를 접수하였다。이것은 그들이 쏘베트국가를 동정하여서 취한 정책이 아니다。그들은 언제까지나 쏘베트국가에 대하여 공포증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제二진공의 결정적 파탄이 명백한 시기 쏘베트국가와 당은 동부、남부、북부의 전체전선을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처에서 쏘베트주권을 회복하였다。

× × ×

一九二〇년 봄 국내경제형편은 몹시 파탄되었던것이다。석탄생산이 전전의 四분지一이었으며 주철은 一九一三년의 三%에 불과하였으며 직조는 전전의 五%、차량은 전체의 六〇%가 쓰지못하게 되었다。때문에 끌챠크 및 데니낀의 섬멸후 잠시동안 소휴기를 얻은 쏘베트국가는 보다더 큰 힘을 경제전설 방면으로 돌렸던 것이다。

레닌은 쏘베트주권수립의 첫날부터 벌써 전기화 문제에 큰 관심을 돌렸으므로 많은 발전소와 전기공사가 一九一八ㅡ一九二〇년간에 시작되었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적 토지경작에 또한 큰 관심을 돌렸다。一九一九년 二월十四일 사회주의 토지경작 법령이 발포되었다。쏘베트가 수립된 二년간 九〇〇개의 쏩호즈와 五、九六〇개의 골호즈(꼼무나·알쩨리)가 조직된 성과를 보였다。물론 이 시기의 꼼무나는 림시적 형태였다。

곤난한 공민전쟁 시기에서도 당과 쏘베트는 문화사업을 게을리 하지않았으며 또한 로력자들의 공산주의적 로력의 모범이 「공산주의적 토요일」이란 형

청으로서 실시되었다.
경제복구를 위하여 투쟁할것을 불쉐위크당과 로동계급에게 호소하면서 레닌은 적들이 힘을 저축하며 또한번 무기를 쥔 손으로써 쏘베트정권을 정복하려고 시도할것이라는것을 경고하였다.

실제에서 파란지주정권은 쏘베트국가의 二차에 걸친 평화체결제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침공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쏘베트정부는 붉은군대를 제대 못시키고 그냥 건설사업에 동원시켰다. 로농국방 쏘베트는 로력 및 방어 쏘베트로 전화시켰으며 그것을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꼼미샤를 조직하였다.

一九二〇년二월 전반적 로력임무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체로력자를 동원하여 소휴기를 완전히 리용하여 갔다.

레닌의 예견은 과연 정확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여 무력간섭의 새 시도를 결의하였으며 그리하여 쏘베트국가에 대한 제三진격을 시작하였다.

一九二〇년四월에 그들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여 조급히 지주의 앞잡이 파란(그 당시 반혁명 부르죠아 민족주의자이며 파란국가의 사실상의 원수(元首)였던 삘숫쓰끼)과 끄리미야로부터 진공을 개시한 백파 우랑겔 군을 진출시켰다. 레닌의 표현에 의하면 지주적 파란과 우랑겔은 쏘베트국가의 교살을 기도하고있던 국제 제국주의의 두팔이었다.

제三차진공에 대하여 쓰딸린은 「로농로씨야를 반대한 지주적 파란진공은 내용상 련합국의 진공이다. ::왜냐하면 련합국의 방조없이 파란이 로씨야를 반대하여 진격을 조직할수 없으며 첫째로 불란서 다음으로 영국, 미국들이 파란진격을 각 방면에서, 의복으로서, 금전으로서, 고문의 역활로써 방조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파란지주들은 우크라이나와 백로시야의 거대한 지역을 요구하면서 쏘베트군대와 전체국가가 기진맥진한줄 알고 진격하였다.

파란은 쏘베트 우크라이나의 드니에뿔강 우안지방과 쏘베트 백로씨야를 점령하여 이 지방들에 파란지주의 정권을 부활하며 파란국가의 령토를 「바다로부터 바다에까지」 즉 딴찌히로부터 오뎃샤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고 『위대한 파란국가』를 형성할 몽상이었으며 또 우랑겔의 파란인 원조에 대한 보상으로는 우랑겔을 원조해서 붉은군대를 분쇄하게 하며 쏘베트로씨야에 지주와 자본가의 정권을 부활시키려는것이었다. 이와같은 그들의 침략적 계획은 련합국의 찬동을 얻지않을수 없었다. 전쟁은 또다시 회생과 손실과 전국의 대규모로 긴장된 힘을 요구하였다.

一九二〇년 五월六일 삘숫쓰끼는 끼예브를 점령하였으며 五월중 드네쁘르강 서부 우크라이나 지대전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로농계급과 로력농민들은 자기위업의 정의를 인식하고 용감하게 난관을 향하여 나아갔으며 대담하게 이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승리를 확신하였다.

一九二〇년 五월에 당중앙위원회는 쓰딸린을 남부전선으로 파견하였다. 쓰딸린의 관할하에 있는 기병군단은 브죤니, 워로실로브 지도하에 삘숫쓰끼군대를 격퇴하였다. 이때에 련합군은 어떠한 태도로 나왔는가?

파란군이 퇴각을 계속하는때에 왈샤와에서는 불란서장군 웨이곤이 작전을 지도하고 있었다.

영국은 패망하여가는 삘숫쓰끼에게 휴식을 주기 위하여 一九二〇년六월 十二일 외무상 켈존의 명의로서 소위 「켈존선」 五〇키로메터 밖에 붉은군대를 정지시키라는것을 요구하여왔다. 『켈존선』이란것은 그로드노-야로브까-네미로부-부레스트-리똡스크-그루웨 쉐브의 동쪽-뻬레의쉬리-깔빠트를 통한 선이다. 이미 련합국 수뇌들간에 이 선을 쏘베트국가와 파란간의 국경으로 만들자는 협정이 있었던 것이다. 켈존의 각서는 만일 이 선을 국경으로 삼을것을 승낙하고 평화를 체결치 않는다면 련합국은 파란과 우랑겔을 더욱 방조할것이라고 위협하여 왔다. 이 각서에 쏘베트국가는 대답하기를 영국이 동방의 평화를 요구하는데 대하여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나 유감스러운것은 파란이 직접 평화를 청하지않고 영국이 중개를 선다는 것이라고 비웃어 주었다. 이런후에도 파란으로부터 직접적인 평화제의는 없었다.

붉은군대는 계속 진공하였다. 그러나 붉은군대의 지도부내의 변절자들 즉 뜨로쯔끼 뚜하쳅스끼등의 비행으로 붉은군대에게 불리한 조건을 지어놓았다.

즉 서부전선에서 후방과의 련결을 고려치않고 一개월간 五〇〇키로메터의 진출을 시킨 결과 선견대는 공급을 못 받았으며 후방과의 련결을 짓지못하였다. 병사들이 피로하고 군사규률이 약하여졌다.

이것을 리용하여 파란군은 반항을 준비하였다.

이런때에 뜨로쯔끼는 서부전선을 원조하라는 명목하에 서남전선 기병군단을 서부전선에 이동하라고 강요하였다. 워로실로브는 리보브점령을 강조하다못해 이동하게되었다. 이럼으로써 서남 전선에서도 파란군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워로실로브 기병군단은 도중에서 포위되었다. 이렇게함으로써 뜨로쯔끼파는 서부와 서남 량전선에서 실패를 가져왔던것이다.

수일후 붉은군대는 재차 진공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파란은 승리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평화를 제의하였다. 一九二一년 三월 리가에서 평

격적인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이 조약에 의하여 파탄은 까리치야와 백로씨야의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파란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쏘베트국가는 우랑겔의 격멸에 붉은군대를 동원시켰다。 당시 우랑겔 반동군대는 영국、불란서로부터 최신 무기 장갑차 전차、대포등의 군수품을 공급받아 훌륭하게 무장하였다。우랑겔군은 도망하였던 데니낀군단의 잔당들과 一차대전당시 불란서에 있던 로씨야군대를 규합한것이다。 一九二○년 레닌은 벌써 군사지도위원회에 백파잔당들이 크림반도에 집결한다는것을 경고하였다。그러나 군사지도위원회의 무관심은 우랑겔력량을 강화시켰다。

우랑겔은 一九二○년 七월七일 드디어 크림에서 나와 따부리야에 까지 왔다。이것은 붉은군대의 후방을 위협하는것으로 된다。당은 서남전선에 있는 쓰딸린에게 우랑겔을 방비할 책임을 주었다。

쓰딸린은 전체인민의 지지밑에 작전하여 갔다。一九二○년八월 우랑겔은 원조대를 파견하였다。붉은군대는 까흡까 즈를 점령하고 요색화하였다。이것은 돈바스지대에 나온 우랑겔의 후방을 위협하는것이었다。때문에 우랑겔은 이것을 탈취코자 애썼으나 성공 못하였다。

十월二十八일 붉은군대는 전반적 진공을 시작하였다。따부리야에서의 혈전은 十一월七일까지 계속된 결과 우랑겔은 패배하고 二만명의 병사를 포로로하였다。

우랑겔군대의 가장 우수한 부분은 도망하여 크림반도에 롱성하여가지고 소위 력사에서 말하는「크림의 가시」를。이루었던것이다。十一월八일 쓰딸린의 지시에 의하여 프룬제는 시와쉬를 건너 크림의 리똡스크반도를 공격하고 한편 十一월十六일 크림은 완전히 점령되었다。

우랑겔의 분쇄는 외국무력과 공민전쟁의 시기가 근본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 × ×

외국무장간섭과 공민전쟁은 기본적으로 종결된후에도 원동에서는 일본군대와 그의 방조를 받는 반혁명분자들이 계속 준동하고 있었다。

일본군대는 一九一八년 우라지워스또크에 침입한후 계속하여 약 一○만의 군대를 침입시켰고 쎄묘노브、깔믜꼬브、가모브등을 원조하여 그놈의 부대를 조직하여주었다。

쎄묘노브는 一九一八년 八월二十六일 일본군대 원조밑에 치따를 점령하고 쎄묘노브주권을 수립하였다。깔믜꼬브도 一九一八년 九월四일 하바로브스크를 점령하고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였고 가모브도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였다。

이 모든 군소주권을 수립하게 한것은 일본이 원동

침탈을 용이케할 책동에 근거한것이다。 원동에는 일본군대외에 미국군대도 약一만명 있었다。

원동인민들은 볼쉐위크들의 지도하에 빨찌산을 조직하여가지고 강경한 해방투쟁을 진행하였다。

원동빨찌산들이 중앙과 련락을 취하는데서 가장 강대한 장애물로 된것은 치따의 쎄묘노브였다。치따에는 꼴챠크잔당들이 집결하였던것이다。

일본군은 이런 정세하에서 혁명을 진압하는데 주력을 돌렸다。미국군은 이 시기 귀국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귀국을 선언하면서도 一九二○년四월四일 돌연히 빨찌산들이 해방시킨 도시들을 점령하였다。우라지워스또크에서는 악독하게 빨찌산들을 학살하였다。젤게이—라조도 체포하여 기관차 화통속에 태워버리는 악독한 행동을 취하였던것이다。

一九二○년四월 비로소 붉은군대가 꼴차크를 격과하면서 원동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당시 파란지수들이 진공하여오는 시기였으므로 레닌의 제의대로 원동에 부르죠아민주주의 공화국(원동변강공화국)을 수립하는것을 승인하였다。이 정권의 헌법제정회의에는 볼쉐위크、에쓰·엘、반혁명당들이 혼입되어 있었다。

쏘베트국가의 이러한 대책은 일본파의 직접충돌을 시간적으로 연장시켰는데 있었다。

一九二一년五월二十六일 일본군대는 우라지워스또크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주권을 멜꾸로위 형제에게 주었다。

이렇게하여 원동은 공화국과 일본괴뢰정부로서 량분되었다。일본은 계속하여 중국에 패주한 꼴챠크잔당 까뻬리부대를 추겨서 진군시키었다。一九二一년 十二월二十二일 백파들은 일본원조하에 다시 하바로브스크를 점령하였다。

이 시기 빨찌산들은 원동의 첫 붉은군대인 인민혁명군을 조직하였으며 레닌은 중앙으로부터 여기에 군사간부와 정치일군들을 파견하였다。인민혁명군과 붉은군대는 진격을 개시하여 각 도시들을 해방시키고 원동쏘베트정권을 회복시켰다。

전개되어가는 정세를 타산하고 일본군은 퇴각하여 귀국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하여 一九二二년말 원동에서도 외국무장간섭과 공민전쟁은 종결되었다。체코군단의 반란、제一차、제二차、제三차에 걸친 련합국과 국내반동의 진공、원동에서의 일본군대와 그의 주구들에 대한 쏘베트국가와 쏘베트인민들의 투쟁은 승리로써 종결되었다。

× × ×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승리의 조직자인 레닌—쓰딸린은 공민전쟁의 곤난한 시기를 극복하였는데 어

린 쏘베트는 수많은 적들의 습격에서 패망하리라고 떠들던 자본수의 국가들의 모든 학자 군사전문가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되였다。

사실상 그들이 확신한 바와같이 붉은군대는 백파군보다 그 수효상으로나 무장력으로나 미약하였던것은 사실이였다。그뿐만 아니라 붉은군대에는 식량 군기의 공급이 원만하지 못하였다。그러면 무장적으로나 수효상으로 불충분한 붉은군대의 승리를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는가。「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력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붉은군대는 정의의 전쟁을 함으로써 전체인민들의 절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쏘베트인민들은 쏘베트정권을 타도하려는 반동적 침략에 대하여 그의 비정의성 반인민성을 옳게 인식하고 레닌 쓰딸린의 주위에 굳게 뭉치어 조국해방전쟁을 진행하였다。승리는 언제나 단결된 인민들의 편에 있으며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야 마는 것이다。

둘째로 붉은군대와 쏘베트인민들이 통일적인 투쟁녹표를 가지고 적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붉은군대는 十월혁명의 승리로서 탄생된 로동자와 농민의 군대이므로 인민들과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또한 붉은 군대는 해방된 제민족들의 자제들로 편성되였으며 국제주의적 정신으로 교양된 군대인것이다。이와같은 조건들은 적들과의 투쟁에서 붉은군대로 하여금 영웅성을 발휘케 하였던 것이다。

또한 붉은군대는 공고한 후방과 굳은 련계를 가지고 있었다。피로써 쟁취한 쏘베트주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로동자와 농민은 전투적 동맹을 강화하고 모든 경제적 곤난을 무릅써 가면서 무기、전쟁자재、피복、식량、보충대를 전선으로 보내였던것이다。쏘베트인민들은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붉은군대에게 위임하였으며 그들은 혈연적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을 반대하였기때문에 승리하였다。

셋째로 백파와 무장간섭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헌신적 투쟁은 강철같은 규률을 가졌으며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지도되고 쏘베트인민을 승리에로 조직 동원한 볼쉐위크당의 지도적 역활은 승리를 얻게 하였다。

볼쉐위크당원들은 사회주의혁명의 위대한 사상으로써 인민들과 붉은군대 병사들을 격려하여 그들에게 규률의 정신과 전투적 용감성을 배양하였다。

당과 당의 수령인 위대한 레닌 쓰딸린의 호소로써 수천만의 쏘베트인민들은 적을 반대하여 궐기하였다。

백파군의 배후에서는 당원들은 로동자와 농민들

을 조직하여 빨찌산운동을 전개하여 붉은군대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넷째로 쏘베트국가내의 모든 민족들의 형제적 전투적 우의(友誼)가 공민전쟁을 승리하게 하였다。쏘베트국가의 모든 민족들은 十월혁명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와 평등과 독립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였다。붉은군대의 대오에서 여러 민족들의 아들 딸들이 용감하게 투쟁하였으며 공민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적 친선은 더욱 굳어졌다。

다섯째로 쏘베트인민들은 백파군과 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고립된것이 아니라 전세계 근로자들의 방조와 동정을 받았다。제국주의자들이 무력간섭과 봉쇄로써 쏘베트국가를 교살하려고 기도하고 있을때 제국주의국가들 내에서는 쏘베트주권을 원조하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해서 로동자들은 싸운것이다。

영국 불란서등 제국가의 로동자들은 파업을 조직하였으며 백파에게 보내는 전쟁 자재를 배에 실을것을 거절하면서 그들은「로씨야로부터 손을떼라!」는 구호밑에 투쟁을 전개하였다。

쏘베트정권의 승리의 원인을 해석하면서 레닌선생은 쏘베트국가가 백파의 반혁명과 외국무력간섭배와의 투쟁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는것을 한두번만 지적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처음 로동자와 농민이 정권을 잡은 쏘베트주권은 레닌 쓰딸린의 지도하에 로씨야 로동계급을 선봉으로한 전체 근로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쏘베트주권과 사회주의 조국의 독립을 고수하였다。

국제보도

불가리아공산당내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와의 투쟁

一九四四년九월九일 이후 즉 왕당파시스또 독재정권이 전복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된후 불가리아공산당내에 민족주의의 개별적 현상들이 보이었다.

첫째 그것은 때로는 출판물을 통하여 또는 몇몇 동지들의 연설속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리아의 사회정치적 기구를 변혁시킨 「九월九일」 이후의 제반 사건의 발전에 있어서의 쏘베트동맹과• 쏘베트군대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데서 나타났던것이다.

둘째로는 불가리아인민이 자기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보존하고 극소의 손실로써 왕당파시스트들에게 떠밀리였던 멸망적 그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있어서 쏘베트동맹과 영웅적 쏘베트군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된데 있다.

왕당파시스트독재정치를 반대하여 싸운 불가리아인민의 十년간의 장시일에 걸친 헌신적 투쟁, 제국주의자들의 침해를 반대하고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발휘한 인민의 억제할수 없는 정열은 히틀러군세에대한 쏘베트군대의 장엄한 제 승리와 쏘베트동맹의 불패의 위력 및 그의 국제적 위신의 장성과 관련하여서만 완전히 평가될수 있으며 또한 정당하게 해명될수 있는 것이다.

九월이후 시기의 민족주의적 과오들은 제때에 적발되어 시정되였으며 지금도 당내에서는 이와같은 력사적 진실의 위험스러운 외곡(歪曲)에 대한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드라이쵸•꼬스또브를 위시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은 아주 중대한 위험성을 조성하고 있다. 첫째로 이 경향이 나타난 것이 바로 불가리아공산당이 「九월九일」 사건의 평가에 있어서 허용되였던 민족주의적 과오들을 근절시킨 이후였기때문이며 둘째로는 이 경향이 그 어떤 개별적으로 취급된 사건의 평가에서가 아니라 불가리아공산당 정치로선의 기본적 제문제중의 한문제 즉 쏘련 및 전동맹볼쉐위크공산당에 대한 불가리아공산당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드라이쵸•꼬스또브가 정시(呈示)한 민족주의적 경향의 위

협성이 일층더 강화되고 있는것은 즉 —분명히 반쏘적인 언행과 기분들에 대하여 꼬스또브자신이 취하는 관용(寬容)과 고무(鼓舞)가 바로 당을 지도하고 국가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그릇되고 맑쓰—레닌주의의 조직적 제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들의 실천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데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그 과오가 여하히 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과오들 인식하고 또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제 조건하에서는 시정될수 있는 그런 뜨라이쵸•꼬스또브의 개별적인 어떤 과오가 문제로 되어 있지 않다고 불가리아 공산당중앙위원회는 확인한 이상 공개적 심의와 뜨라이쵸•꼬스또브의 소행(所行)의 심의는 불가피의 것으로 되었다.

—

그러나 꼬스또브가 실시한 로선은 명백히 표현된 민족주의적 경향과 당과 국가에 위험한 지도방법에 대한 반볼쉐위크적 태도들 기초로한 정치적 과오의 계렬(系列)인 것이다. 다수의 반박할수없는 사실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립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자료 및 정보들을 영미 및 기타 첩들이 입수치 못하도록 방지할것을 고려한 국가비밀에 관한 법령이 불가리아에서 효력을 발생한 이후 내각부수상으로서의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이 법령의 작용을 쏘베트대표자들에게 확대시킬것을 개인적으로 명령하였다. 이로써 그는 국가기구 및 량국간의 호상관계의 사회주의적 본질을 표명하는 정치적 경제적 제관계를 긴밀히 맺고 있는 쏘련에 대하여 명백히 불신임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심지어 정치국 또는 불가리아 공산당중앙위원회에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결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쏘련과 불가리아간의 통상 관계가 하등의 「비밀」이 없이 또한 하등의 리기(利己)적 간계(奸計)도 없이 완전한 호상 신임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뜨라이쵸•꼬스또브는 불가리아가 자본주의 국가들에 팔고있는 몇몇 상품에 대한 물가를 쏘베트상업대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폐하였다. 비로소 이 사실은 어떤 정치국 위원이 꼬스또브의 다년간에 걸쳐 존재하여온 이같은 지령의 실재(實在)를 확인한 후에야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 지령의 실재는 뜨라이쵸•꼬스또브의 쏘베트동맹에 대한 범죄가 일찍부터 그 기초를 잡고 있었고 보다 깊은 뿌리를 박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이 사실들의 정치적 평가는 현하의 국제정세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관련하여 지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그 광포(狂暴)한데 있어서 전대미문인 제국주의진영의 반쏘적 운동에 대한 증인들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즉 쏘련에 대한 인민들의 신임을 동요시키려고하는 것이다. 또한 쏘련의 국제적 위신을 저하시키려고하는 것이며 쏘련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며 쏘련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진영과 반제국주의적 진영을 가르고 있는 경계선은 바로 쏘베트동맹에 대한 관계로써 시작된다. 이 관계는 당해국가 당해정부 또는 사회—정치적 소그루빠가 어떤 진영에 속하여 있는가를 어김없이 판정하는것이다.

이 제국주의자들의 운동은 쏘베트동맹의 벗들—즉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반대하여서도 조직되고 있는것이다. 독시(毒矢)는 현재 쏘베트동맹과 성실한 친선을 지키고 있는 불가리아공화국으로 향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불가리아

공화국을 위협하려고 시도한다. 동시에 그들은 찌또의 뜨로쯔끼적 모때를 로골적으로 비호하면서 이 모때들에게 각종 원조를 약속하며 이로써 우리에게 또 오직 쏘련에 대한 배신의 길만이 불가리아를 제국주의자들의 복수로부터 구원할수 있다는듯이 고취(鼓吹)하려고 애쓰는것이다.

이 사실들로보아 쏘련에 대한 뜨라이쵸•꼬스또브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지미뜨로브동지는 一월十八일 불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석상에서 정확하게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행동을 가리켜 반쏘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꼬스또브자신도 본질에 있어서 인정하였다) 불가리아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것으로된 이 국가비밀에 관한 법령이 어느정도 불가리아와 쏘베트동맹간의 관계에 저촉될수 있다는 못한 추측은 반쏘적인 것이다. 즉 이 불신임 또한 쏘련이 불가리아의 국가적 리익에 어떤 손해를 끼쳐줄수 있다는 수치스러운 이 추측은 아주 쏘련에 대한 적대적 태도인 것이다.

꼬스또브는 불가리아의 몽상적 리익을 때문에 쏘련과 회담할때 몇몇가지의 우리상품에 대한 가격을 감수였던 것이라고 리유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 제국가와의 무역에서와 같은 제 기초위에서 쏘베트동맹과의 무역을 설정한다면 극복할수 없는 곤난에 봉착할것이며 우리는 경제적 파멸에 이르리라는것을 모를자 어데 있겠는가?

오직 쏘베트동맹의 튼튼한 방조의 덕택으로 우리는 위기에 싸였던 다년간을 무사히 지나왔고 오늘날도 우리 경제의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서 사회주의의 제 기초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쏘련과 불가리아의 호상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쏘련에 대하여서는 그 어떠한 국가적 비밀들을 제거하는것이다.

뜨라이쵸•꼬스또브의 로선과 찌또도배의 현 정책간의 완전한 유사(類似)점을 인용치 않고도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것은 쏘련과의 동맹으로부터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리반(離反)은 바로 경제적및 기타 유고슬라비아 생활의 제문제에 관하여 쏘련에 통고할것을 거부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뜨라이쵸•꼬스또브는 다른 일군들이 범한 당지도에 있어서의 집단적 원칙의 위반들에 대하여서는 가장 신랄하게 (사실상 필요 이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현직에 있던 꼬스또브자체가 바로 집단적 지도를 허구(虛構)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가장 중대한 당적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는 이같은 『자기식』 방법들로서 당내에 독특한 보나파르티즘 (인기있는 수명 대다수는 군인수명의 독재를 선포함으로써 혁명을 말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운동—주) 을 침투시켰다.

뜨라이쵸•꼬스또브의 민족주의적 과오들은 그의 좌익종파주의적 과거의 잔재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볼쉐위즘과 하등의 공통한것도 없는 리기적인 텔러—적 출세주의의 강청(强請)-행위에서 나오는것이다.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중앙위원회정치국 및 지미뜨로브 동지에 대하여 二중의 표리(表裏) 부동의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일방으로 자기의 지령들에 대하여 의의를 보치기위하여 정치국과 지미뜨로브 동지의 위신을 리용하였고 타방으

로는 정치국을 더욱더 무시하면서 이로써 자기자신의 진지를 확고히 하며 실제적인 당의『령도자』로서 진출하려고 시도 하였다. 그는 라이프치히 공판 이후 좌익 종파주의자들이 취하였던바와 꼭 같이 행동하였다. 즉 그들도 말로는 지미뜨로브 동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에 대한 지도를 자기 수중에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라이프치히 공판당시 뜨라이쵸•꼬스또브자신은 당지도에 있어 림시로 상층부를 차지하였던 좌익분파주의자들의 일원이였다. 한편 전세계로동계급 전체 국가의 진보적 인간들이 지미뜨로브 동지에 감탄하여 자기의 정식적인 지지의 힘으로써 그를 파시스트 형리들의 수중으로부터 탈환하려고 노력하였을때 지미뜨로브 동지는 오직 좌익분파주의자들 한테서만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뜨라이쵸•꼬스또브는 그때 좌익분파주의자들의 지도부를 수호하였다. 一九三四년五월에 좌익종파주의적 뜨로쯔끼적 진로가 완전히 파탄될때까지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이를 당출판물상에서 주장하여왔던 것이다. 그가 중대한 정치적 과오들을 범한데 관련하여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어떠자인가? 하는 질문이 갑짜기 일어나는 이때 그의 과거 속에 있는 이 사실을 침묵하고 있을수는 없다.

뜨라이쵸•꼬스또브의 행동이 폭로된 이후 그는 맨 처음으로 자기 과오에 대한 형식적인『자아비판』으로서 도피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후 분명히 그는 자기는『자아비판』에 있어서 너무 지나쳤던 것이며 정치국에 보내는 자기 서한에 있어서는 당지도부를 반대하는 전체 전선에 결쳐서 공세로 옮겨갔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꼬스또브는 자기 서한이 일으킨 한결같은 비난을 알고 금년 三월七일 정치국회의 석상에서 그 서한을 돌려달라고 성명하였다.

그리고 사기는『흥분된 순간에 또 병적인 신경질의 결과로』이와같은 성명을 썼다고 유감의 뜻을 말하였다.

전체 당과 당지도부를 중상한 다음 꼬스또브는 자기는『자아비판』에 있어서 일보전진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아비판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즉 당에 대한 성실이 없기때문에 실패하였다.

중앙위원회총회석상에서 뜨라이쵸•꼬스또브는 또다시 전술을 바꾸었다. 여기서 그는 자기 명예만 회복시킨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할 각오를 가진 종파주의자로서 등장하였다. 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과오를 어물적하여 피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치국을 비방하며 중앙위원회총회를 분렬시키려고 하며 심지어는 불가리아공산당과 전동맹볼쉐위크공산당간의 불신임을 부식하려는 모험적 시도로 나왔다.

그러나 꼬스또브는 엉터리 없이 오산(誤算) 하였던 것이다. 당적 통일을 동요시키며 당지도부 내의 분렬책을 쓰는등 모든 시도들은 무익한 것으로 되였다. 총회는 뜨라이쵸•꼬스또브의 모든 종파주의적 폭행을 론박하고 전동맹볼쉐위크공산당 및 쓰딸린동지에 대한 올바른 볼쉐위크적 확고한 신임정책의 기초위에서 지미뜨로브 동지를 위시한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완전하고도 확고한 당적 통일을 실증하였다.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자기의 종파주의적 시모

들이 아주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것을 느낀 뒤에야 비로소 무조건하고 자기과오들과 자기에 대한 조직적 결론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불가피한것에 대한 굴복일 따름이다. 총회참석자들에게는 뜨라이쵸·꼬스또브의 문제가 제기된 시초부터 그는 앞으로 당에서나 정부에서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여졌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직위에서 그는 가장 중대한 범죄들을 감행하였다. 꼬스또브는 자기를 지도당부 보다 높이 세우려고 시도하며 당지도부를 교대시키면서 정치국 권내를 벗어나 있었다. 그 때문에 결국 그는 앞으로 정치국 성원으로서도 남아 있을수 없을것이 총회에서 명백하여졌다. 조성된 제조건으로보아 그가 정치국 밖에 머물어 있다는것은 당에 대하여 유해할 뿐이다. 만장 일치로 가결된 중앙위원회 총회의 결정은 이러하였다. 이와 아울러 중앙위원회 총회는 뜨라이쵸·꼬스또브의 과오들에 대하여 당에 완전히 통고(通告)할것과 당으로 하여금 ·민족주의 경향의 이 졸렬한 형식인 일체 반쏘적 독설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경각심과 결정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할것을 결정하였다.

당열성자들 및 초급당단체들은 중앙위원회 총회에 뒤이어 자기들의 회의석상에서 뜨라이쵸·꼬스또브의 란포한 정치적 과오들과 이에서 표현된 민족주의 경향을 준렬히 비판하였다. 당원들은 고도의 자각성을 표현하여 위대한 쏘베트동맹이 령도하는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전선을 파괴하려는 시토와 불가리아의 민족적 독립에 타격을 주며 이를 제국주의 진영에 끌어넣는데 있어서 가장 교묘하고 급속한 방법으로될 쐐기(楔)를 불가리아와 쏘베트 동맹간에 또한 불가리아와 기타 인민민주주의 제국가 간에 처박으려고 시도함에 있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외 제국주의자들및 국내의 계급적 원쑤들의 무기인 민족주의를 비판하였다.

뜨라이쵸·꼬스또브는 원불원(願不願)을 불문하고 여하튼 전체 반동분자 복구주의 분자들의 기치로 되리라고 지미뜨로브 동지가 말한 경고는 예언으로 되였다. 반동은 벌써 꼬스또브를 민족적 영웅이라고 큰 소리치며 자기 지지자들에게 향하여 불가리아공산당과 조국전선의 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또한 불가리아를 쏘련 및 전체 반제국주의 진영에서 떼어 내기위하여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당의 중심로선과 지미뜨로브 동지를 수반으로하는 불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위에 뭉친 전체당의 확고부동한 일치단결은 뜨라이쵸·꼬스또브 사건에 관련한 비방 운동에 있어서 불가리아 공산당과 불가리아 인민의 원수들에게 주는 훌륭한 답변으로된다.

일체 민족주의 및 종파주의의 표현을 반대하는 무자비한 투쟁은 불가리아 공산당 대렬의 사상적 조직적 단결을 더욱더 강화할것이다.

(수개국공산당보도국기관지 "공고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五월十五일부에서)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

로씨야에 있어서의 「토지공동체」

독자 송창운동지(평북도당 당원도서실)는 로씨야에 있어서의 「토지공동체」란 무엇인가고 물어왔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편집국은 다음과 같이 해답한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토지공동체(옵씨나)란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발전 변천하여 왔는가.

공동체(옵씨나)란 말은 본래 온갖 사회적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수로 원시사회에 있은 형태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후 계급사회로 넘어온 후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일반적 공동체의 특징으로 볼수있는것은 먼저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적 소유이며 (례하면 토지의 공유) 다음으로는 때로는 완전한 혹은 불완전한 부분적인 자치적 관리인것이다.

공동체의 내용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인류력사발전과 함께 특수적으로는 생산력발전과 함께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사회에 있던 공동체와 계급사회에서의 공동체와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로씨야력사에서 찾아볼수있는 공동체의 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로씨야에서 볼수있는 공동체의 가장 오랜 첫 형태는 씨족적 공동체이다. 이것은 원시사회가 낳은 첫 공동체의 형태이었다. 원시인들은 아직 단순한 생활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산이나 들에서 자연적으로 맺힌 나무열매나 기타 풀뿌리같은것을 채식하며 짐승들을 잡아 먹으며 살아갔다. 이들은 짐승을 잡는데서나 또는 사람을 해하려는 맹수의 습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생활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이 원시인들의 집단생활이 즉 공동체의 첫 형태였던것이다.

공동체의 둘째번 형태로서 볼수있는것은 씨족공동체

였다。생산의 발전으로 인한 원시인들의 남녀간의 성생활의 진화는 아주 무질서한 란혼적 성생활에서 차차 일정한 제한이 규정되었다。이것으로써 먼저 적계 혈족간 부모와 자식간의 성생활이 금지되고 동일한 세대에 속한 혈족이나 그 외의 성생활만이 허락되었다。그러나 이 원시인들의 성생활은 일부 다처 또는 일처 다부식이었으며 군혼(群婚)이었다。따라서 직계자손의 관경은 다만 모친을 중심으로 하여서 결정되었다。이때 원시인의 경제생활에서 지도적 역활을 녀자가 놀았고 이것은 녀자를 중심으로한 모권제도를 가져왔다。이것은 그후 발전되어 차차 성생활이 변천하면서 부친을 수위로한 씨족 즉 가부장제(家父長制)가족으로 넘어갔다。부친은 가부장제 가족을 통솔하였으나 그러나 이 공동생활 형태는 퍽 자유스러운 집단 생활이었다。이러한 가부장적 씨족적 공동체는 원시사회에서의 또는 씨족 공동체의 마지막 형태였다。

쓰딸린선생은 다음과같이 말씀하였다。「원시공산제도하에서는 생산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이다。이것은 기본상 이 시기에서의 생산력의 성격에 적합한다。석기와 그 후에 나타난 궁시는 자연력과 맹수와 단독적으로 싸울만한 가능성을 주지못한다。만일 인간이 기아와 맹수와 린접한 집단의 침해에 희생되기를 원치않는다면 산림에서 과실을 주으며 하천에서 어류를 잡아내며 주택을 제우기 위해서는 그들은 공동적으로 일하지않을수 없게되었다。공동로동은 생산품과 함께 생산수단의 공유를 가져온다。만일 맹수를 방어하는 무기이기도 한 모종의 생산도구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제외한다면 여기에서는 아직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의 관념은 보이지않는다。여기에서는 착취도 없고 계급도 없다」(「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력사」당출판사판 二一四-二一五페지)

공동체의 셋째번 형태로서 볼수있는것은 지대적 공동체이다。가부장적 씨족적 공동체에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은 말이나 소같은 가축을 개인소유화하는 현상이었다。이들은 개인소유의 가축을 증가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부요하여졌고 그들은 장성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배도 강하여졌다。이들은 씨족이나 종족의 추장으로 선거받게 되었다。가축의 개인소유화는 가축증가를 촉진시키었다。드디어 가축의 증가는 그 소유자의 로동력의 증가보다 앞서게 되었고 로동력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이 부족한 로동력은 전쟁에서의 포로병 기타가 보충되었다。노예를 얻기위한 략탈전이 일상사로 되게되었다。이것은 더욱 씨족사회내의 빈부의 차와 계층의 분렬을 격화시키었다。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령관을 선출하게 되었고 점점 그들의 권세가 높

아졌다。

일편 가부장적 씨족사회의 마지막 시기로부터 생산도구가 일정한 정도에까지 발전됨으로써 각자가 독립적으로 경작할수있게 되었다。이것은 동시에 생산도구의 개인 소유화를 가져왔다。이와같이 하여서 우선 토지가 분활되어 매 가족으로 넘어왔다。이와같은 사실은 七세기로부터 八세기간에 걸쳐서 흔히 진행되었으며 가부장적 씨족적 읍씨나가 지대 공동체로 넘어가는것을 보여준다。이러한 지대공동체는 동슬라비얀에 있어서는「베르비」「미르」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지대적 공동체의 특징은 다음과같다。우선 그것은 일정한 지대를 차지하였다。공동체의 한부분 즉 어떤 지대는 공동체 리용대로 남아 있었다」이러한 것으로서는 초원、밀림、수렵림、호수、강등이었다。토지는 첫 시기에는 공동사용이었지만 개인경리의 발전에 따라 또는 농업발전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개인소유화하여져 가고 있었다。

이와같이 지대적 공동성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체는 그들의 행정적 중앙으로서 토벽 기타로 둘러싸인 대부락 또는 소도시였다。엥겔쓰는 이러한 로씨야의 첫 베르비(공동체)를 깊이 연구한 결과 그것이 고대 게르마니야의 마르크 공동체와 아주 같은 점에 있어서 근사하다는것을 지적하였다。또는 이 베르비(공동체)와 서 구라파나 동남 구라파의 공동체와도 많은 점에서 근사하다고 말하였다。베르비(공동체)안에는 오랫동안 씨족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례를 들면 습격하여온 적에 대한 복수전같은것이 그것이었다。공동체의 수위에는 자유농민(스메르드)들의 선거한 추장이 섰다。모든 옵씨나에 관한 문제들은「미르」회의(옵씨나의 회의)에서 처결하였다。이「미르」회의는 추장의 지휘밑에 공동체내의 농민들을 실지에 관리하였고 새로운 이주민을 받아들이었으며 토지를 균등하게 매개 가족수에 따라서 분배해 주었다。뿐만아니라「미르」회의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소속된 왕을 위한 재납을 징수하였으며 그것을 왕에게 전하는 정세의 임무까지 수행하였다。만일 이러한 재금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동체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야할 풍습 규률 기타에 위반하는자가 생기면「미르」회의는 재판을 열어 그 범인을 처단하였다。이러한 지대의 공동체는 흔히 대왕의 소유토지나 큰 사원소유의 토지나 왕족 기타 귀족들의 소유토지 또는 기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서 찾아볼수 있었다。

이와같이 첫 시기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된 스메르드들은 왕에게만 재납을 바치는 자유농민들이었다。

둘째 시기에 있어서의 [illegible] 공동체에 있어서는

거의 매년에 걸쳐 공동체원들의 토지를 재분활하였다。이것은 매개 공동체원들 사이에 불평등이 없도록 하기위한것이였다。그러나 차차 공동체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재분활은 점점 더디게 진행되였다。이것은 토지 경작 기술의 발전에 의한것이였다。즉 비료를 많이 냄으로써 토지의 수확고를 올리거나, 二, 三년휴경을 시켜 지질을 향상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은 그 토지를 매년 교대시키는것 보다 개인의 소유로서 수년간을 계속 사용시킴에 비로소 그 성과를 볼수있는 것이였다。이것은 즉 매개 공동체원들에게 어떠한 토지를 고정적으로 리용하게하는 동기로 된것이였다。이것은 더욱 발전되어 토지를 개인 소유처럼 관리하겠금 만들었고 나중에는 자기가 경작하던 토지를 자손에게 상속까지 하게되었다。

이와같은 상태는 매타 十一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즉 봉건적 토지소유 관계가 발지되기 시작할때까지의 대개의 농민들은 이와같은 공동체격 구성을 가지고 생산하였으며 생활하였다。

十一세기 중엽으로부터 공동체원들의 토지사유화는 더욱 급속히 자라났다。그중에서도 왕은 그 권세를 리용하여 많은 공동체의 토지를 점령하고 그것을 자기 개인소유의 토지로 편입시키였다。왕은 이렇게해서 풍부하여진 토지를 사원에 선사도 하고 또는 그가 신임하는 신하들이나 왕족에게도 선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착취하도록 만들어주었다。이러한 착취를 당한것은 예속된「스메르드」「호로쁘(노예)」「자꾸브(스메르드와 노예간에 있는 중간층)」등이였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은 그것이 고대 로마 희랍의 노예제도나 공동체와는 다른점이 많다。즉 로씨야에 있어서는「호로쁘(노예)」들은 일정한 토지에 토착시켜 가지고 농노처럼 사용한일이 많았다。례를 들면 一〇三一년에 야로스랍스크와 그의 동생 무시스랍가라스크는 토지를 탈취하여 가지고 그 자리에 많은 농민을 토착시키였고 그를 노예화시키였다。이와같이 하여서 많은「호로쁘」들은 봉건 경리에서 대체로 주인의 창고직이나, 상업에서의 통신, 련락, 안내의 역활이나, 기타를 담당하였다。그리고 이들 노예는 위산지야 방면에 많이 팔리어 다니었다。

이와같은「호로쁘」를 노예적 착취로부터 봉건적 착취에로 전확시키는데 큰 역활을 논것은 교회 사원이었다。본래 교회나 사원의 물질적 기초는 농업생산물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로동에 의한 적은 수확보다 봉건적 예속으로서 많은 수확고를 올리는것이 유리하였던 까닭이다。이것은 자유스럽던 옵써나「스메르드」들 까지도 점차적으로 봉건적 예속하에 집어넣게되었다。봉건령주들의 공동체

점령은 더욱 심하여졌으니 이러한「경제외적 압박」은 놀랄만큼 빠르게 공동체원들을 예속시키었고 봉건적 착취로 전변시키었다。

이러한 강압적 방법에 의한 외에도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압박으로서 공동체 농민들을 예속시킬수 있었다。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공동체원들은 경제적으로 약한 공동체원들을 항상 예속시키며 복종시키려고 애썼다。경제적으로 약한 공동체원들은 다른 경제적으로 풍부한 개인에게 원조를 청하지 않고는 독립적 경제를 취하기 곤난하였다。그들은 씨앗 가축 농구등을 마련하는데 할수없이 봉건적 착취자들에게 의뢰하며 그 경제력을 빌지 않으면 아니되었다。이러한 사정으로 불가피적으로 빚을 지게되고 봉건령주나 기타 지배계급들에게 예속되게된 농민들은 자기의 경작지 보다도 우선적으로 봉건령주의 토지를 경작해주지 않으면 아니되었다。이것은 벌써 자유농민으로부터 농노로의 이행이었다。이와같이 하여서「스메르드」들은 봉건 착취계급에게 점차적으로 예속되게 되었다。이 문제에 대하여 레닌은「제二차국회에서의 토지문제에 관한 초안」에서 다음과같이 썼다。「十一세기에「스메르드」(「뿌라우다」가 그렇게 명칭하였다)들이 지주의 예속으로 들어가며 또「등록」된것과 같이 二十세기에 있어서 로씨야「자유적」농민이 련접되어있는 지주에게 할수없이 경제적으로 얽매이게 되었다。」(전집十一권 九十八페지)

이것은 레닌이 끼예브 로씨야의「스메르드」농민의 처지를 봉건사회에 와서 농노화되는 농민과같이 보고있으며「스메르드」들이 어떻게예속화 하는가를 밝한것이었다。

이러한 봉건적 경리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노예적 예속상태에 들어서는 농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그 반면에 공동체회원들이 급속히 축소되어갔다。례를 들면 특히 에까쩨리나 二세 (一七六二년—一七九六년)때에는 三十四년간에 八十만이상의 농민을 지주의 소유로 분배하였고 빠벨一세(一七九六년—一八〇一년)는 五년간에 四十만 농민을 지주에 예속시키었다。이와같이하여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새로운 지방에 광범하게 전파되었다。즉 불가강 하류, 우크라이나초원, 북깝까즈, 기타등등의 지역들이다。

다른 일면으로서 공동체 자체내의 계급분렬은 점점 가하여졌다。공동체내의 경제적 우월권을 가진 가족들은 자기손에 더욱 재물을 축적하면서 이들은 여려가지의 교묘한 수단(고리대금 부역 기타)으로써 빈농민을 착취하였다。이들은 점차적으로 부유하여져서 꾸라크 고리대업자로 로골적으로 나타나게되었다。

이러한데서 더욱 내려와 十九세기 중엽에 이르면 로씨야 공동체내에도 발써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생 발전하기 시작함을 보게된다。 그러나 이 사실은 로씨야가 경제적으로 락후되었던 사실로 인하여 이 현상이 표면에 뚜렷이는 나타나지않고 은폐되었으며 아주 더디게 진행되었다。

一八六一년에 로씨야에서는 농노제의 철폐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개혁전에 여러 지방에 존재하고있던 공동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한것은 아니었다。一八六一년개혁은 개혁전에 존재하여 내려온 공동체를(비록 변경은 있었으나)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토지공동체 관리하에 토지를 시시로 재분할하였으며 정체 기타에 대한 련대책임제가 존재하였으며 공동체의 허가없이 농민은 자기에게 활당된 토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수없었다。 따라서 그때에 농민들은 농민증을 일년이상 가지지 못하였다。

이와같이 짜리전제정치는 농민생활에 옛 시대의 착취형식을 리용하면서 농민을 토지에 고착시키었고 련대책임제로써 될수록 세납을 많이 받으려 하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주 귀족 기타 착취계급의 리익에 달큼히 들어맞는 시책이었으며 그들에게 농노적 로동력을 용이하게 획득하도록 하여주었던 것이다。

옵찌나적 토지소유관계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발전에 지장을 주었고 그들이 아주 토지를 상실해 버리고 떨어져 나오는것을 조해하였다。 옵찌나토지를 림시적으로 대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때때로 있는 토지 재분할은 또한 농민들로 하여금 지질향상과 생산력제고에 노력치않게 하였으며 토지생산물을 저하시키었다。 뿐만아니라 련대책임제는 농민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케하였으며 자유류통을 방해하였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에 지장을 주었다。

로씨야의 인민파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연시키며, 피할수있으며, 농민옵찌나는 그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피할수 있으리라고 하고 옵찌나는 사회주의의 맹아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오유이었다。 레닌은 이 인민파들의 오유를 지적하면서 자본주의는 농민경제, 지주경제, 옵찌나의 밖에서 피할수없이 자라난다고 말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허위적인 사회주의적 형태를 가진 부르죠아 착취를 내용으로 하는것이 토지공동체였다。 토지공동체는 부농의 횡포와 략탈을 감추어 주기위한 아주 훌륭한 장식물이었으며 농민들에게서 세납을 많이, 그리고 빨리 받기위해서 아주 편리한 기관이었다。 토지공동체 내에서는 부농이 전 권한을 가졌으며 그들은 빈농민뿐만 아니라 머슴군, 일부 중농까지도 착취하였다。 이것이 一八六一년 개혁후의 로씨야의 토지공동체의 내부의 실정이었다。

로씨야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그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 존재하는 반농노적 경제체제와 모순되었다。 따라서 짜리정부는 이 반농노적인 농촌경리제도를 깨뜨려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경제적 정책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수 없게되었다。 이리하여 一九〇六년十一월九일에 소위 쓰똘리삔토지개혁이 시작되었다。 그에 의하면 옵찌나에서 리용하던 경작지를 자기에게 해당하리만치 각개 농민이 개인소유로 하여가지고 독립적으로 옵찌나에서 나갈수 있다는것이었다。 이 옵찌나토지의 개인으로의 활당은 옵찌나 다수군중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그 해결이 곤난한 경우에는 그 옵찌나의 구장이 그것을 종결적 해결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실뿐이었고 사실상에 있어서 쓰똘리삔의 이 반동적 토지정책은 빈농민들의 처지를 조금도 개선시켜 주지못하였다。 이것은 빈농민들에게 그 토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준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농에게 그 개인소유 토지를 증대시킬 가능성을 확보하여주었고 빈농민들을 여러가지 수단으로 략탈할 가능성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 빈농민의 토지는 농촌부르죠아의 략탈에 맡겨졌다。

一九一〇년 짜리정부는 一九〇六년十一월九일 법령의 보충인 새 법령을 발포하였다。 이 새법령에 의하면 마지막 시기 二十四년간에 전체 재분할이 없는 옵찌나들에서는 옵찌나회원들이 토지를 자기의 개인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옵찌나에서 리탈하여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령은 대다수의 당시의 옵찌나에서 토지 재분할을 실시하지않고 있었기때문에 거의 전부의 옵찌나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옵찌나를 해체시키는 정책이었다。 이 외에도 一九〇六년十一월九일 법령의 보충으로서 되는 一九一一년五월의 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토지관리위원회가 여러가지 임무를 가지게된다。 그중에서도 오트루부, 후또르(사유농장) 등을 될수록 많이 설치할것이며 그를 장려할것이었다。

레닌은 쓰똘리삔의 토지정책을 「토지적 보나빠르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이러한 정책이 전제정치가 농촌에 있어서의 옛날부터의 가부장적 씨족적인 공유제에서 지지를 받을수 없게되었기 때문에 새 지지를 구하려한것이었다。

이와같이 실지에 있어서 쓰똘리삔토지정책은 다만 부농이나 착취자들에게만 유리한것으로 되었다。 쓰똘리삔은 그가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부요하여지라」「옵찌나를 타도하라」 등의 표어를 농민들에게 선전하면서 농민들에게 행복스러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효과도 없었다。 도리어 그와는 반대로 농촌 부르죠아들은 좋은 때는

왔다고 즐겨서 열광적으로 옵씨나를 락탈하였으며 빈농민들에게 강압적으로 군림하였다。그들은 이 개혁을 통하여 부요하여졌고 토지를 독점하였다。당연한 리치로 위해서 이렇게 부요하여진 략탈자들 즉 농촌 꾸라크들은 자기자신을 부요하여지게 조건을 지어준 짜리전제정권에 사배(謝拜)하였고 그를 마음껏 지지하였다。동시에 악독한 짜리정부나 쓰똘리뻰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략탈자들 즉 부농만이 요구되었고 그들의 지지와 찬동이 있으면 그뿐이였던것이다。쓰똘리뻰에게는 지주나 부농들의 토지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수탈되지않고 농민문제에서 말썽거리가 없게、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실증하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숨길수 없는 숫자들이다。즉 쓰똘리삔의 토지개혁의 결과로서 一九〇七—一九一二년간에 옵씨나에서 몰려나온 농민의 수는 一七四만六천명에 달한다。쓰똘리삔자신의 말에 의하면 이 수많은 농민들은 토지를 자기개인 소유로 받은『행복스러운 농민』이였다。그런데 실지에・있어서는 이 숫자중에서 六十一만二천명이 토지를 팔고 쫓겨나왔으며 一九一三—一九一四년간에 四十만호가 역시 토지를 팔고 몰려나왔다。이들은 즉 옵씨나에서 몰려나온 토지없는 농촌 프로레타리아트들이였다。쓰똘리삔 토지정책에 의한 소위『행복스러운 농민』은 이러하였다。

짜리전제정권의 이 토지정책은 농민들의 결정적 반항을 보게되였다。펜사(縣)의 농민들은 이 정책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이 정책은 지주들의 한가지 목적 즉 개인소유자들을 더많이 복종시키자는 것이며 또는 토지 적은 농민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더많은 동지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자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것으로 된다』 또 다른 농민들은 회의에서의 지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十一월九일 법령으로써 농민들이 량반계급들의 토지에 대하여 말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다만 자기들끼리 토지를 위하여 물고 뜯고 하라고 하였다。』

농민들의 쓰똘리삔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은 외견상으로 보면 마치 농민들이 옵씨나의 해산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같다。따라서 이를 옳게 인식하지못한 멘쉐위크들은 농민들의 이 투쟁을 반동적 성격을 가진것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十一월九일 법령을 반대하여 나서면서 농민들은 동시에 뿌로써야 발전의 길을 반대하여 나서는것이였다。즉 지주방식으로써 옵씨나를 해산하는것을 반대하여 나서는 것이였으며 자기의 농민적 혁명적 방식으로써 토지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한것이며 지주토지 소유의 청산을 위한 투쟁인 것이

었고 이것은 진보적인 투쟁이였던것이다。

이와같이 인민파들이 사회주의의 맹아로 보았던 옵씨나는 인민파들의 욕망 여하에 불구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의하여 불가피적으로・해산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였으며 실지에 있어서 해산되였던 것이다。

쓰딸린선생은 인민파들의 이러한 오유들을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썼다。『인민파는 로씨야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회주의의 태아이며 기초라고 생각하고있는 농민의 토지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토지공동체는 사회주의의 태아나 기초가 아니였으며 또 그렇게 될수도 없었다。왜 그러냐하면 토지공동체는 빈농 머슴 경제적으로 미력한 중농을 착취하는 부농 즉「기생충」들이 지배하고있는 때문이였다。형식상으로 존재한 토지공동체의 토지소유제와 시기마다 시행되는 인구수에 의한 토지재분할은・조금도 사정을 개변시키지 못하였다。공동체내에서 토지를 리용하는 자는 축력과 농구와 종자를 가진자 즉 부유한 중농과 부농이였다。땅이 없는 농민、빈농 및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농민은 그들의 토지를 부농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품팔이를 하거나 머슴살이를 하지않으면 안되었다。농민의 토지공동체는 실지에 있어서 부농의 압박을 은폐하는데 편리한 형태였으며 련대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수집하기위한 짜리제의 수중에 있는 편리한 도구였다。이것이 짜리제가 토지공동체를 건드리지않고 그대로 둔 리유이였다。이와같은 토지공동체를 사회주의의 태아라거나 기초라고 말하는것은 우습기 짝이없는 일이였다』『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력사』당출판사판 二四폐지)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옵씨나 즉 토지공동체는 오랜 력사를 가지었다。즉 원시사회의 씨족전 공동체로부터 씨족공동체를 거쳐 지대적 공동체 또는 토지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는 항상 생산력의 발전과 같이 발전하여 내려왔다。그러나 위에서 이미 본바와같이 그 외견상 형태는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며 로씨야에서의 토지공동체는 그 시초를 원시사회에서 부터 발하고 있었다는것은 명백한것이다。

一九四九년七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七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十三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용
인 쇄 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 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 (二〇번)

제ㄱ—13424

13

一九四七년八월二十일 第三종우편물인가

근로자 一九四九년 제一三호

트동신문사